

중국을 주께로

1995년 3,4월

특집/ 중국의 교육

중국의 교육 제도

교육 위기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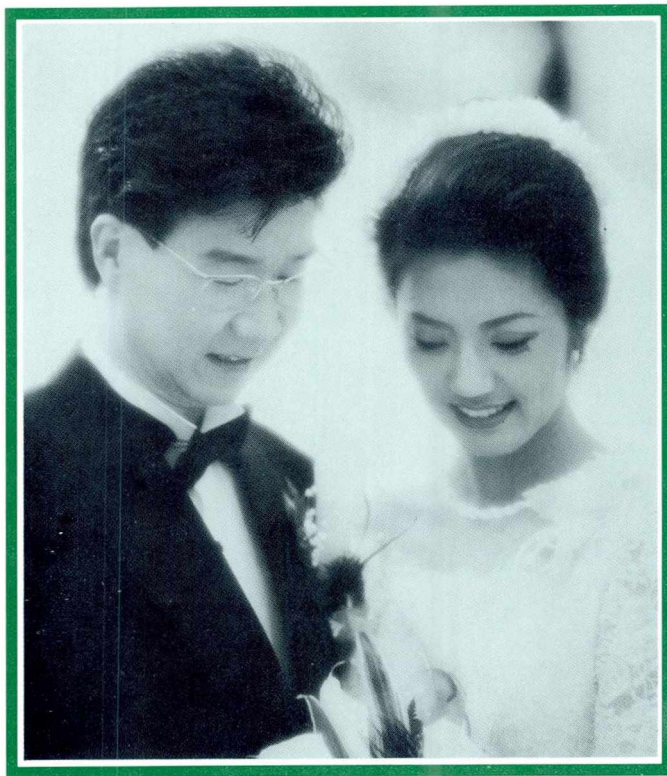
중국의 교육문제 및 새로운 변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국 어린이에게 바울의 길을!

“당신은 중국인을 섬길 수 있는 교육자인가?”

Wedding Photo

행복한 순간의 모습을 담어드립니다.



임백천 · 김연주 커플

사랑과 축복속에 이루어지는 결혼!
언제보아도 환한 웃음이
배어나오는 사진을...

연출사진의 名家[®]
동승스튜디오
PHOTO STUDIO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72-2(방송대학 앞)
대악포본점 : 743-6266~8 FAX:743-6268
▲공동지점 : 775-7767~8 FAX:754-9100

● ● 사과드립니다

죄송스럽게도 금번 1995년 3/4월호 40~44면에 신기로 했던 「여생을 중국 장 애인을 위해 살립니다」에 보안상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부득이 전문(全文)을 삭제한 채 독자 여러분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본고가 현지 선교사님들의 안전에 누를 끼칠 수 있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전적으로 저희 편집진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임을 밝힙니다. 독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차제에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조그만 실수로도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서 사역에 종사하는 저희들은 물론이고, 한국 교회 전체가 이 점을 기억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쳐드린 선교사님과 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총판 및 각 기독교 서점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중국을 주제로」가 중국선교에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995년 2월 20일
발행인 이동화 올림



혹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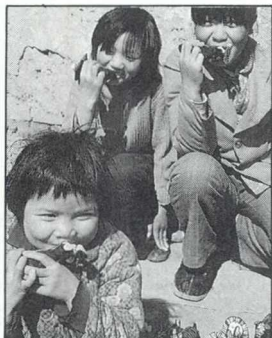
이동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중국 복음화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또 그렇게 되리라는 점이다. 그러기에 중국 선교를 감당하겠다고 나선 우리의 자세와 방법은 언제나 중국 교회가 처한 상황에 서서, 예수님이 늘 그러하셨듯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꼭 그대로 중국 교회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우리의 바람이 늘 중국 교회의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 도처에서 들리는 도움을 호소하는 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그 도움의 요청에 손을 내미는 경우에라도 그 방법이 우리 식의 사고 방식에 매여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 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

최근 중국 당국이 우수한 삼자 교회의 한 목사를 강제 사직시키고, 동북 지역에 이제 바야흐로 움트기 시작한 신학교 운영의 기운을 꺾어 버리는 등 강경한 자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거나 않으신지 겸손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혹시 만에 하나 중국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자세와 방법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1995년 3/4월호 차례



특집/ 중국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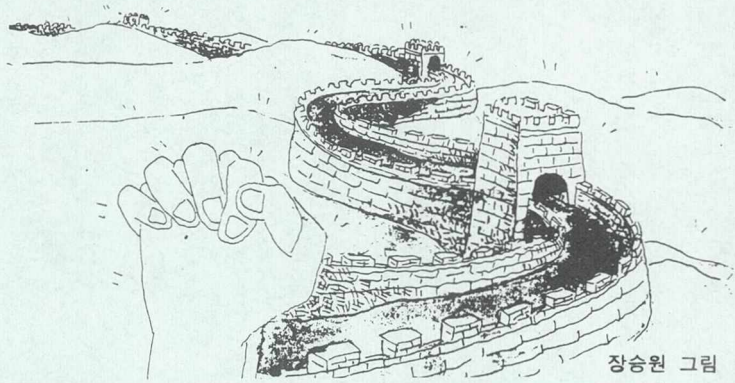
- 10 중국의 교육 제도 / 차이나
- 15 교육 위기의 현장 / 민두기
- 20 중국의 교육문제 및 새로운 추세 / 강성광
- 29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국 어린이에게 배움의 길을! / 석은혜
- 35 “당신은 중국인을 섬길 수 있는 교육자인가?”/ 안득렬

선교 전략

- 1 발행인 칼럼 혹시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 이동화
- 4 선교일언 영적 기도생활 / 김성복
- 50 선교 돌보기 세상은 뛰는데 선교는 긴다? / 이영재
- 54 현지에서 온 소식 중국의 벼락부자와 개 / 강성광
- 80 중국선교의 발자취 노구교 사변(盧溝橋 事變) / 방지일
- 112 묵상의 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선교정보

- 45 중국교회 현주소 “주여, 나를 보내소서!” / 陳詠祈
- 58 오늘의 중국 흔들리는 중국 지식인의 심리- 그 다섯가지 변화 / 艾眞
- 68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와 풍속 (IV) / 권수영
- 82 중국유학 안내 중국 중남지구의 주요 대학 / 박명수
- 116 중국선교 참고도서 『중공은 중국에서 죽었다』 외 2권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121 중국 교회 소식 중국의 종교, 규제인가 자유인가?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125 중국은 지금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인물·간증

- 40 인터뷰** “여생을 중국 장애인을 위해 살립니다.” / 석은혜
88 한국 개신교 중국선교사 연구(1) 한국의 첫 중국 선교사 박태로 목사 / 김교철
102 중국선교사의 간증 드디어 중국에 들어가다 / 허드슨 테일러
106 대륙성도의 간증 주님을 영원히 따르리라 / 趙鐵山
 도박꾼의 회개 / 李進永

선교마당

- 65 중국의 문화** 총체적 예술 경극(京劇)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101 중국어 퍼즐 填字遊戲
111 중국어로 찬양을 我們尊崇祢(예수 우리 왕이여)
114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 海上的神蹟 (바다 위의 기적)
118 내가 사랑하는 선교도서 영적 지도자 만들기 / 한윤숙

기도·선교단신

- 130 중국을 주께로 기도** 캘린더
134 선교단신

선교자료실

- 137** 각 성의 삼자교회 주소록 및 전화번호부

표지 설명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인 중국은 문맹의 인구가 2억에 이른다. 전 세계 문맹 인구의 1/4이다. 중국 농촌이나 어촌에 사는 어린이들은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살아간다. 미래의 중국을 짊어질 중국 어린이들의 교육 문제를 위해 중국을 사랑하는 우리는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진은 중국 민속놀이를 즐기고 있는 어린이들 모습.

영적 기도생활

김성복

들어가는 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영적 대화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만날 수 있었다. 이는 친밀성을 의미한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은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혼의 깊은 만남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자녀로서 사는 길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길에 대해서 알고 하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 매일 능력을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기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주님께 온전히 바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히 힘을 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내가 삼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왕하 20:5).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 영혼의 갈망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옵꼬”(시 42:2).

프랑스 작가 가스파림은 말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기도가 그를 이 땅으로 끌어내려 그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을 연결시킨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초월자이시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함께 계시며,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또한 연약한 자녀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 그 연결은 바로 기도이다. 그러므로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자는 하루종일 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기도는 우리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개와도 같다. 하나님께 가장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이 기도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기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품에 안기고 말 것이다.

기도를 배우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 주셨다. 선교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신 적은 없으나 기도에 대해서만은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시고 명령하셨다. 이는 기도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동시에 기도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기도의 최고의 모범이요, 교리와 윤리의 총결산이다

· 우리는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기도의 기본적인 기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주는 데 있음을 배우자.

· 우리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다. 기도가 계속되면 나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게 된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선다. 예를 들어, 내가 직면하고 있는 특별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 그것에 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시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되며, 하나님 앞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놓는다.

기도는 교회의 일이며, 그리스도인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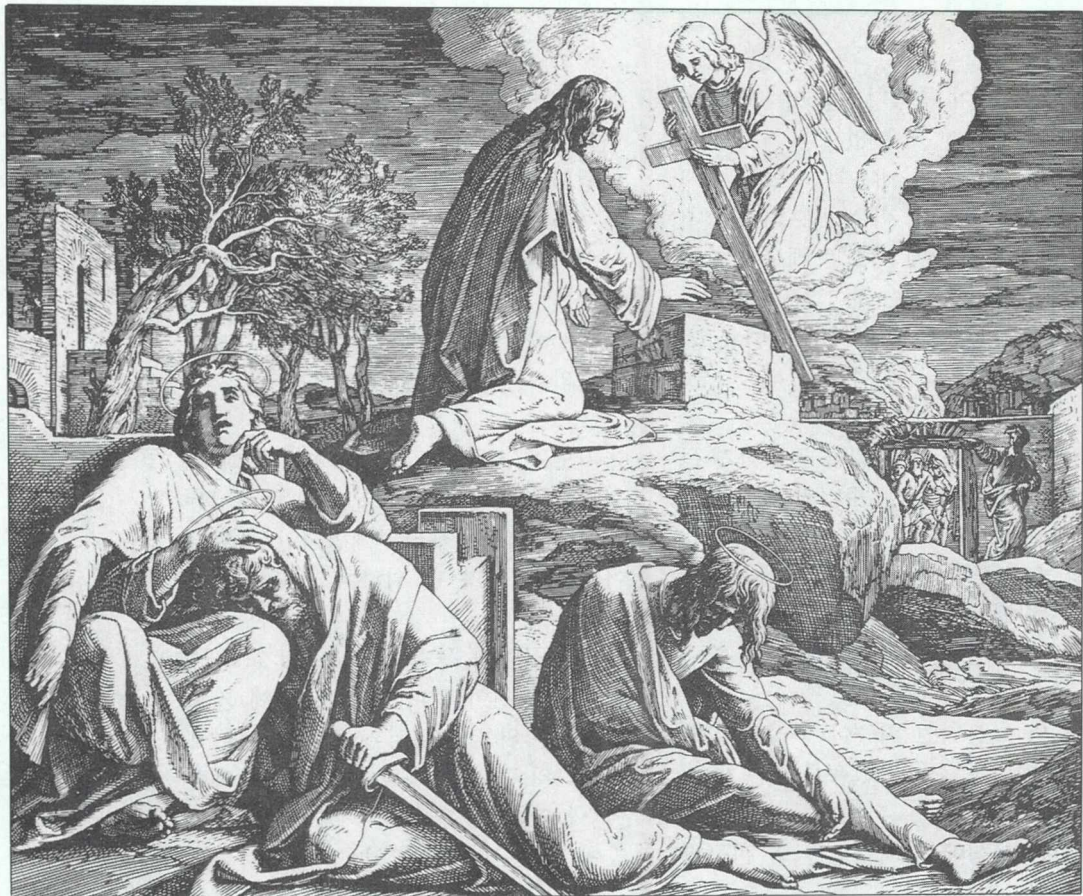
이다. 기도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나 다른 일과 동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기도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손을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이 세상에서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는 그분의 수단으로 택하셨음을 알자.

· 기도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한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서로간의 관계를 세워준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시들어 버리듯 우리가 받는 은혜도 열렬한 기도 없이는 시들어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언제나 바른 기도생활만이 시들은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 가운데 계신다. 기도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한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주의할 점을 제시하였다.

· 사람에게 나타내려는 기도를 피하라.
기도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행위이다. 이것을 사람의 비위에 맞춘다거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



갯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회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6:5).

신앙의 행위가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 하늘의 상급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다. 기도뿐 아니라 구제나 사랑을 베푸는 것, 섬기는 것, 모든 것이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할 때는 하늘나라에서는 무가치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기도를 자랑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막6:6)

나는 일주일 금식했다느니, 매주일 철

야 기도한다느니 하면서 쉽게 떠들어대는 신자를 볼 수 있다. 기도를 남에게 자랑할 일이 아니다. 나는 매일 숨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서 그것을 자랑할 때 아무 유익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 주신다. 이는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과의 한 시간은 인간과의 평생보다 더 값지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이어야 한다.

•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믿음이 있는 한 마디의 기도가 더 효력이 있다는 점이 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시 17:3).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나에게 적합한 기도 내용만이 진정한 응답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 중에 연약한 자를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한다. 나의 재산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누탈한 것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갚아야 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셨다.

기도의 내용

• 하나님을 높이라(Adoration)

기도의 첫 출발은 놀라운 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 속에서 기도의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간다.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인간 경외심의 발로이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여호와와 영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대상 29:11-13)

• 죄를 자백하라(Confession).

자백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는 고백(Profession)과 죄를 인정(Admission)하는 것이 동시에 수반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물쇠를 여는 데는 열쇠가 금이나, 은이나, 무쇠나가 문제가 아니라 자물통에 맞는 열쇠가 중요하듯이, 기도의 화려함보다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세리와 같은 겸손한 기도가 요청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2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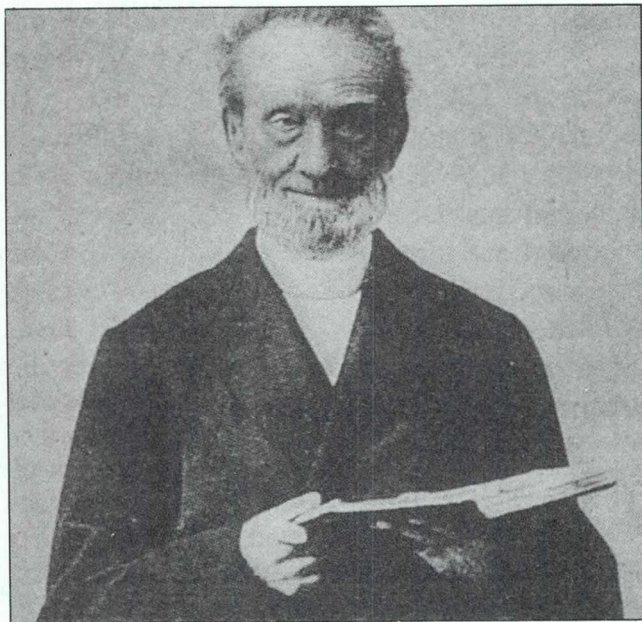
• 감사의 기도를 하라(Thanksgiving).

감사는 성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독일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40세 쯤 되는 중년 신사가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의사가 혀를 절단하기 직전에 모든 사람이 둘러선 가운데 입을 열었다.

“지금 당시의 혀가 절단되면 이제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남기십시오”

그는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혀를 주셔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진정한 감사 속에 은혜가 임한다. 기도 가운데 먼저 감사한다는 것은 응답을 위한 믿음의 표현이다.

• 자신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간구하라(Supplication).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몰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믿는 자들의 간구는 성령께서 친히 도우신다(롬8:26). 고아의 아버지로서 알려진 조지 몰러 목사님은 97세의 긴 생애를 통하여 9,975개의 고아원을 설립했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현금으로 받은 것이 1,300만 달러(약 100억)에 달했다. 이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므로써 이루어진 사건이다. 한 번은 영국 크리스천 선데이 신문기자가 그를 방문하여 어떻게 이렇게 많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몰러 목사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기자를 데리고 지하실 2평되는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바닥에는 두개의 구멍이 난 방석만 하나 놓여 있었다.

•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중보기도, Intercession)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과 교회나 선교 단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는 이기심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 기도의 최대의 적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심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폭이 넓어진다. 기도를

장시간 할 수 있다. 기도의 수평적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보기도이다.

맺음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이생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도의 파트너를 정하여 늘 서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귀의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는 기도없는 연구, 기도없는 사업, 기도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기도없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기도없는 지혜를 경멸한다. 그러나 그는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한다.

-사무엘 차드윅(Samuel Chadwick)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 나갈 수 있다.

- 바라는 것을 마음에 분명히 정하라
-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묵상하라
- 종이에 써서 나열해 보라
- 마음을 조용히 갖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라
- 기도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께 헌신의 약속을 하라
- 기도 응답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 하나님의 지시함에 무엇이든 순종하라

김성복/갈릴리세계선교회 팀사역 대표
주사랑교회 팀 목회자



특 집/ 중국의 교육

이번호에서는 중국의 교육을 다루어 본다.

중국선교를 생각하면서 중국교육을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통해 우리가 중국에 전해주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면 저절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해 주기 원한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 받을 뿐 아니라, 복음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육이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중국 교육의 현주소를 가늠해 보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꼭 의미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중국의 교육 제도

차이나

중국 교육의 변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한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공산체제 국가의 교육은 더더욱 그러하다. 1949년 공산화 혁명 이후 모택동(毛澤東) 정권 시기 중국에서 교육은 전적으로 공산주의 개념을 주입시키려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지식을 멸시하고 교육을 파괴하여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수많은 청소년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중국의 발전을 더디게 한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5년 중국 중앙정부는 <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을 하달하였다.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방침을 선포했다. 정치적 간섭을 줄이고, 학교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교육기구를 조정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개혁한다는 내용이다.

1986년에는 9년제 <의무교육법>을

반포했으며 1988년에는 도시와 농촌에 대량으로 학교를 세웠다. 성인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여 통신대학, 야간대학을 증설했으며 그밖에 전문고등학교 및 정식으로 방송국을 세워서 T.V 교육을 발전시켰다.

중국의 교육과정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의 학제는 개혁, 개방이 시작되었던 1976년이후에 정해진 방침이다.

유아교육

중국 정부는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탁아소 및 유치원 설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는 13여만 개소의 유치원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일을 마친 후 문화, 예술, 정치활동에 종사하고 싶은 부모들을 위해 탁아소는 24시간 하루종일 운영되고 있다.

승덕(承德) 시내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한 유치원은 고급 당 간부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이다.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의 연령은 3세부터 5, 6세가

지이며 교육방침의 주안점은 공동체 생활교육이다.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치원 내에서 다른 아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한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부모들이 와서 자기 아이들을 데려간다. 부모와 주말을 보낸 아이들은 월요일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간다. 아이들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하여 운동, 공부, 놀이, 예능 및 낮잠시간이 있다. 오후에는 거의 야외로 나가서 활동을 한다.

소학교

중국의 소학교는 우리의 국민학교이다. 학제는 한국과 같은 6년제이지만, 2단계로 나누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초급소학이라 하고, 5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고급소학이라 칭한다.

수업과목은 어문, 산술, 역사, 지리, 자연, 운동, 음악, 미술 등이며 그 중 어문 과목에는 낭독, 작문, 습자가 포함된다.

1986년 정부에서 9년제 의무교육을 반포함에 따라 무릇 학령기 아동이면 누구나 소학교 기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초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사회주의 국민으로 훈련된다.

초급중학 및 고급중학

오늘날의 중국에서는 실제로 의무교육이 상당히 보급되어 있으며, 농촌에서도 학령기 아동의 95%가 취학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인 중학교교육은 교사나 시설의 절대부족 때문에 소학교 졸업생의 약 2/3 정도 밖에 수용할 수 없다.

초급중학까지를 의무교육, 즉 초등교육이라고 말한다면 그 교육기간의 한도 역시 규정되어야 할 것인데, 지역이나 도시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도시에서는

초급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 즉 초등교육이라고 말한다면 그 교육기간의 한도 역시 규정되어야 할 것인데, 지역이나 도시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소학교가 5년이란 표준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도시에 따라 중학교가 6년이거나 중학교를 초급과 고급으로 3년씩 나누고 있기도 하다. 또 농촌에서는 교사부족 때문에 중학교를 합쳐서 8년밖에 교육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것이 중국의 교육 시스템이다. 하지만 개혁개방의 발걸음을 따라서 중등 교육의 교과과정도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에 대한 사상 정치교육은 과학기술, 능력, 노동, 전문지식, 학습, 인재, 개방화, 개혁 등을 중심으로 전 문화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4항 기본 원칙 견지, 오강사미삼숙애(五講四美三熱愛; 다섯 가지의 존중할 것과 네 가지의 아름다운 것, 세 가지의 사랑할 것), 계급 자유화 반대정신 오염방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등과 이데올로기 교육도 추구되었다.

그리고 초급중학과 고급중학의 커리큘럼은 어문, 수학, 물리, 과학, 생물, 위생상식, 역사, 지리이며 수학시간에는 또 산술, 대수, 기하 및 삼각함수가 있고 생물시간에는 식물, 동물, 인체 해부 생리, 다윈주의 기초 등을 배운다. 역사는 세계 고대사, 중국 고대사, 세계 근대사, 중국 근대사로 나누어지며 지리는 자연 지리, 세계지리, 중국지리, 중국경제지리 및 외국경제지리 등이다.

대학교 및 대학원

1978년 개혁 이후에는 과거와 같은 교육의 양적 팽창 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 중국 정부는 교육제도를 평등주의에서 업적주의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입학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은 인근에 있는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면접 시험까지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등소평 시대의 교육에 있어서 발생한 커다란 변화는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수준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312개교가 5년 안에 복교되거나 증설되고 회복 및 발전되었다.

1980년대에는 교육의 중점을 전문성 향상에 두고, 그들이 정력적으로 추진하려는 4가지 현대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즉 대학교육을 재건하고, 개방의 추세와 함께 유학정책을 재개하며, 그 동안 폐쇄시켜온 서유럽 선진국의 학문을 배우는 데 힘을 기울였다. 특히 자본주의 유산이라고 배격했던 학위제도를 부활



등소평이 제창한 80년대 이후의 교육은 전문성 향상과 4개 현대화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외국어 LAB 시설이 운영되는 중국의 한 대학.

리고 그는 지식과 인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4대 현대화의 실현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관건이 달렸다고 하면서 그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

1978년, 문혁기간에 폐쇄되었던 13개 대학이 복교되고, 새로이 42개 대학과 전문대학이 신설되었다. 1981년에 전국에는 대학이 704개교였는데 그 가운데

하여 그에 대한 학위조례(學位條例) 등을 제정하였으며 심지어 명예 박사학위까지 수여하였다.

대학원의 부활과 대학원의 모집은 등소평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교육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교육 지도자들은 등소평의 “4개 현대화의 열쇠는 과학기술의 현대화이다”라는 말을 빌어 대학원생 배양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있

다.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에 맞는 대학원생의 특성은 다음의 4가지로 규정된다.

첫째, 사회주의 방향과 “우홍우전(又紅又專; 紅은 혁명성을 띤 교육이념을 가리키며, 專은 기술과학적 전문성을 띤 교육방침을 칭한다-편집자 주)을 견지한다.

둘째,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며 조국의 4개 현대화에 공헌한다.

셋째, 자질을 제고시킨다

석사과정 응시자는 대학의 본과를 졸업한 35세 이하여야 하며, 박사과정 응시자는 석사학위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서 40세를 넘을 수 없다. 박사과정 응시자는 전공에 관계있는 두 명의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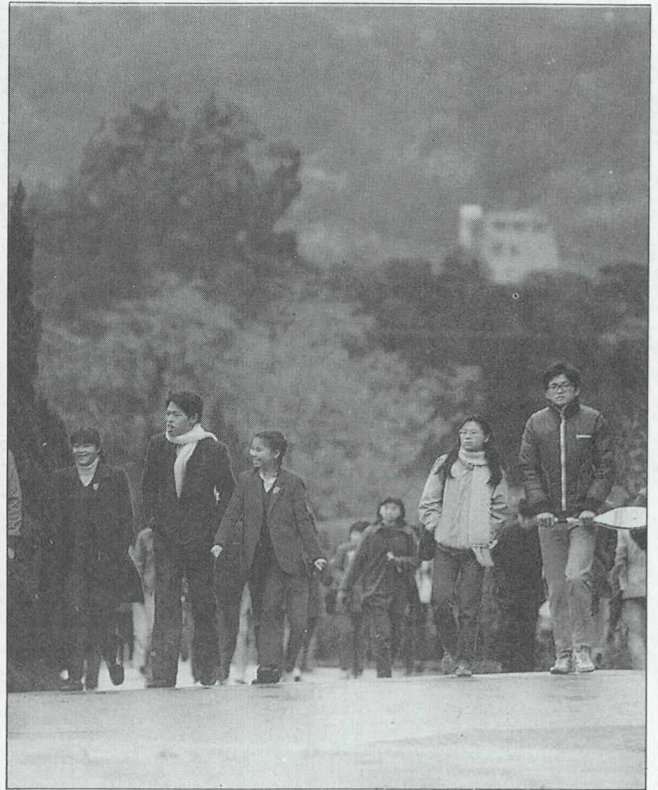
지원시기는, 석사과정은 매년 2월 중이고 박사과정은 6월 중이다.

시험과목은, 석사과정은 정치이론, 외국어 기초과목, 전공 기초과목과 전공과목 등 5~6개의 과목이다. 박사과정 응시자는 정치이론과 외국어 과목을 필수로 부가하는 것 외에는 모집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험과목을 융통성 있게 결정한다. 이들 신입생은 입학 3개월 뒤 정치, 문화, 건강의 재심사를 받아 결격사유가 있으면 입학이 취소된다.

외국어는 석사과정의 경우 하나가 요구되고 박사과정은 두 개가 요구된다. 대학원생의 모집상황을 보면 공과가 가장 많고 다음이 이과, 문과, 사법학과, 농과, 의대, 약대, 재정학과 및 정치법률이다.

맺는 말

개방과 개혁으로 교육은 전보다 크게 발



전되었다고 하지만 세계의 수준과 비교하여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전문가의 수가 적어서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충족되지 못하고 노동자 가운데는 문맹이거나 반문맹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교육의 임무는 아직 막중한 편이다.

중국에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이라는 말이 있다. 즉 나무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한 사람을 교육하는데는 백년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교육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북경 '어린이 궁전'에서 나오는 소학교 학생들. 미래의 중국을 이끌어갈 자원이다.

이제까지 중국의 교육제도는 그 시대의 정권체제에 따라 거듭 변해왔지만 그 밑바탕은 여전히 하나됨을 부인하는 무신론적 교육이다. 개혁개방으로 인해 중국의 교육은 이전보다는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초보적 단계이며 전문적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그럼 하나됨을 믿는 우리는 과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이들을 섬길 수는 없겠는가?

이제는 복음만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포장된 교육의 일꾼들이 나타나야만 할 때가 아닌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장경섭. 1993. "현대중국사회의 이해" pp.210.
2. 이베헌. 1994. "중국인의 생활과 문화" pp.209-212.

3. 신용철. 1989. "中國 高等교육의 改革: 理念 教育과 大學院교육을 중심으로" 『中蘇研究』, 13권 2호, pp.121-123.
4. 신승하. 1993. "中國當代 40年史" pp.332-334, 379-381.
5. 강명상. 1988. "21世紀의 中國大陸." pp.95.
6. 안성진. 1991. "중국 우리의 이웃" pp.194-195, 236-237.
7. 주준희. 1980/90. "中國 學校에서의 정치사회화" pp.55-56.
8. 클로디 브로이엘 지음/ 김주영 옮김. 1985. "하늘의 절반" pp.106-107.

정리·글/ 차이나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교육 위기의 현장

누가 교육을 존중할 것인가?

민두기



처 길수(吉首), 봉황에 이르는 국도와 성도(省道)로 연결된 고원지대나 소동(邵東), 소양(邵陽)을 거쳐 신녕에 이르는 호젓한 성도길이 특히 그러한 곳이다.

대용에서 봉황에 이르는 길은 '상서 토가족 묘족 자치주(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를 관통하는 길인데, 고유의 풍속을 잘 지키고 있는 묘족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은 도로변의 촌락 구조, 가옥 구조로도 알 수 있었다. 묘족에 비해 토가족은 한족 문화에 많이 동화되어 있다. 이 지대의 나지막한 산들은 거의 꼭대기까지 가지런히 다듬어져 겨울인데도 파릇파릇한 야채를 정성스럽게 가꾸어 이 지역이 경작지가 태부족인 가난한 고장임을 알게 한다. 특히 영순에서 보정·화원에 이르는 길은 국도인데도 트럭은 커녕 여객버스 조차도 드문드문 다녀 이 고장이 경제 개발의 사각지대임을 짐작케 한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을 10여 시간씩 마이크로 버스로 달리면서 우선 느낀 것은, 길가의 소학교 건물이

이번 학술조사 여행은 앞으로 여간해서는 다시 가보기 어려운 외진 곳, 구석진 곳을 찾아다닐 수 있어 다행스러웠다.

서북쪽의 대용에서 서남쪽으로 영순(永順), 보정(保靖), 화원(花垣)을 거

**문제는 교육 시설의 평준화가 공산당 정권 아래서도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지극히 빈약하다는 것이었다. 더러 이층으로 된 교사도 없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은 단층의 우중충한 작은 건물로 운동장은 거의가 딸려 있지 않은 듯 싶었다. 학교 건물의 한쪽에 교사가족의 것으로 보이는 빨래가 주렁주렁 널려 있는 것도 초라한 교사를 더욱 초라해 보이게 했다. 어느 산골에 가도 학교 건물만은 제대로 지어져 있고 넓은 운동장이 반드시 딸려 있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도 달랐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신녕의 금석진(金石鎭)의 옛 거리와 비호촌(飛虎村)의 소학교였다. 금석진의 서문(西門)터에서 북쪽으로 옛날 그대로의 좁은 골목길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골목 안의 한 옛 절간 건물에 소학교 하나가 들어 있었다. 골목길에서 창너머로 들여다보니 전등 빛도 희미한 어두운 방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운동장은 물론 없었다.

19세기 중엽 태평천국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강충원(江忠源) 일족의 거대한 사당이 비호촌에 남아 있는데, 그곳은 현재 비호촌 소학교로 사용되고 있었다. 물론 운동장이라고는 없다. 여느 농부와 똑같이 보이는 선생님은 소학교 아닌 사당을 보러온 외국의 연구자를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강씨종사(江氏宗祠)라고 새겨진 돌판 위에 걸쳐놓았던 ‘비호촌소학’이라는 나무 간판을 떼어 보여주었다.

아무리 신녕현이 지리적으로 구석지고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절간이나 사당을 소학교로 이용하는, 100여 년 전에 청 왕조(清朝) 중국에 근대적 교육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을 때의 임시방편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니 적이 놀랄 수밖에 없다. 그 청 왕조가 망하고 세워진 중화민국도 오랜 분열과 대외 항전에 지쳐 쓰러지고 질적으로 전혀 다른 강력한 통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공산당에 의해 새로운 정치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나서 거의 50년, 아직도 100여년 전 그대로 임시방편의 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우리가 찾아간 시간이 오후 3시께였는데 마침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저마다 불통걸상을 들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다. 불통걸상이란 커다란 대나무 밑동을 잘라 앞을 트고 위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으로, 통 안에는 양철 화로를 넣어 위로 열이 전달되게 만들어져 있다. 춥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매우 쌀쌀한 이 지방의 겨울 추위를 학생들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도 100여년 전 그대로의 방식일 것이다. 소양에서 둘러본 소학교처럼 근대적인 학교 시설이 다른 곳에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문제는 교육 시설의 평준화가 공산당 정권 아래서도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소학교, 중학교 교육을 낙후하게 만든 또 다른 더욱 중요한 원인이 있다. 소학교나 중학교 교사의 봉급이 형편없이 낮은데다, 그것마저도 제때에 주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학교 경비가 부족하고 교사의 대우가 열악하

면 그에 대응하는 길은 학교 당국이 갖가지 명목의 잡부금을 학생들로부터 거두고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장사라도 할 수밖에 없다. 잡부금의 부담은, 어린이 노동력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돈벌이를 위해 아이를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주된 구실이 된다

나라님들이 집집의 담벽에 흰 페인트로 “어린이를 교육시키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표어를 아무리 많이 써 붙여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표어가 난무할수록 실체는 표어와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어는 무관심과 무능의 자기표현인 경우가 많다. 호남성 모든 곳의 집 벽마다 안 써붙인데가 없는 표어가 “스승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자”이다. 또 “교사법을 철저히 실행하자”는 것도 있다. 누가 누구에게 스승을 존중할 것을 권하고 교사법의 실행을 강조하는 것일까? 스승을 존중하지 않는 책임이 표어를 통한 교화대상인 백성들에게 있다는 말일까?

1월 24일자 『湖南日報』에는 잡부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곱 가지 방안이 호남성교육위원회에 입안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나친 잡부금의 징수(예컨대 그 중에는 졸업장 만드는 비용의 징수도 포함되어 있다)를 막는 길은 학교경비 조달을 위한 안정성 있는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이 보도는, 교사들의 월급을 제때에 주지 못하면 관계 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 밖에 졸업장 작성비 등 14개 종류의 잡부금을 걷지 못하게 하고, 복



상해 황포강(黃浦江)에 소풍나온 어린이들. 유람선을 타고 즐거워하고 있다.

습자료, 단원연습자료의 사용을 못하게 하고, 각급 시험도 교육위원회의 시험에서 조직·시행하고, 농촌교육사업비 징수를 철저히 한다는 것 등이다. 시험제도의 개혁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학교 재정에 관계되는 사항은 농촌교육사업비의 징수에 관한 것 뿐이다. 그것이 ‘철저히’ 징수된다 해도 정부 당국의 ‘스승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의 가망이 없는 것이다.

광주에서 읽은 『廣州日報』 1월 27일자에는 국무원 부총리가 교사 대표와 나눈 대화가 보도되었다. 교사의 봉급 지급을 거르는 시·현에는 승용차 구매를 허가해주지 않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며 간부들의 해외 여행을 허

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에 전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이런 방안이 중앙정부의 고위 정책 입안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교육문제의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고있다.

이 신문에는 또 다른 놀라운 기사가 실려있다. 전국에 120여만 명의 중·소학교 교사가 정규 사범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므로, 이들에게 텔레비전 교육방송을 통한 사범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지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개방시장경제로 온 세상이 ‘돈을 향해 앞으로 가! (向錢看)’하는 마당에, 이렇게 자질이 떨어진 교사들에게 지극히 낮은 봉급마저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라도 돈을 벌 수밖에 없지 않는가?

1월 25일자 『湖南日報』의 독자 투고란에 화원의 한 소학교 교사의 투고가 실려있다. 화원이라면 우리가 봉황가는 길에 지난 호남성 서부의 고원지대에 있는 소도시이다. 마씨라는 이 교사는, 사회주의 인재를 양성하고 깨끗해야 할 학교가 돈벌이 풍조에 휩싸여 학교 안에 먹거리, 문방구, 장난감 좌판 등이 즐비하다고 개탄하고 있다.

용산현(龍山縣)의 한 소학교 교사는 같은 신문의 투고에서 어떤 곳의 소학교에서는 부인이 경영하는 반찬가게와 학생의 성적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용산현은 역시 우리가 지났던 영순서 서북쪽으로 100킬로미터 떨어진의 고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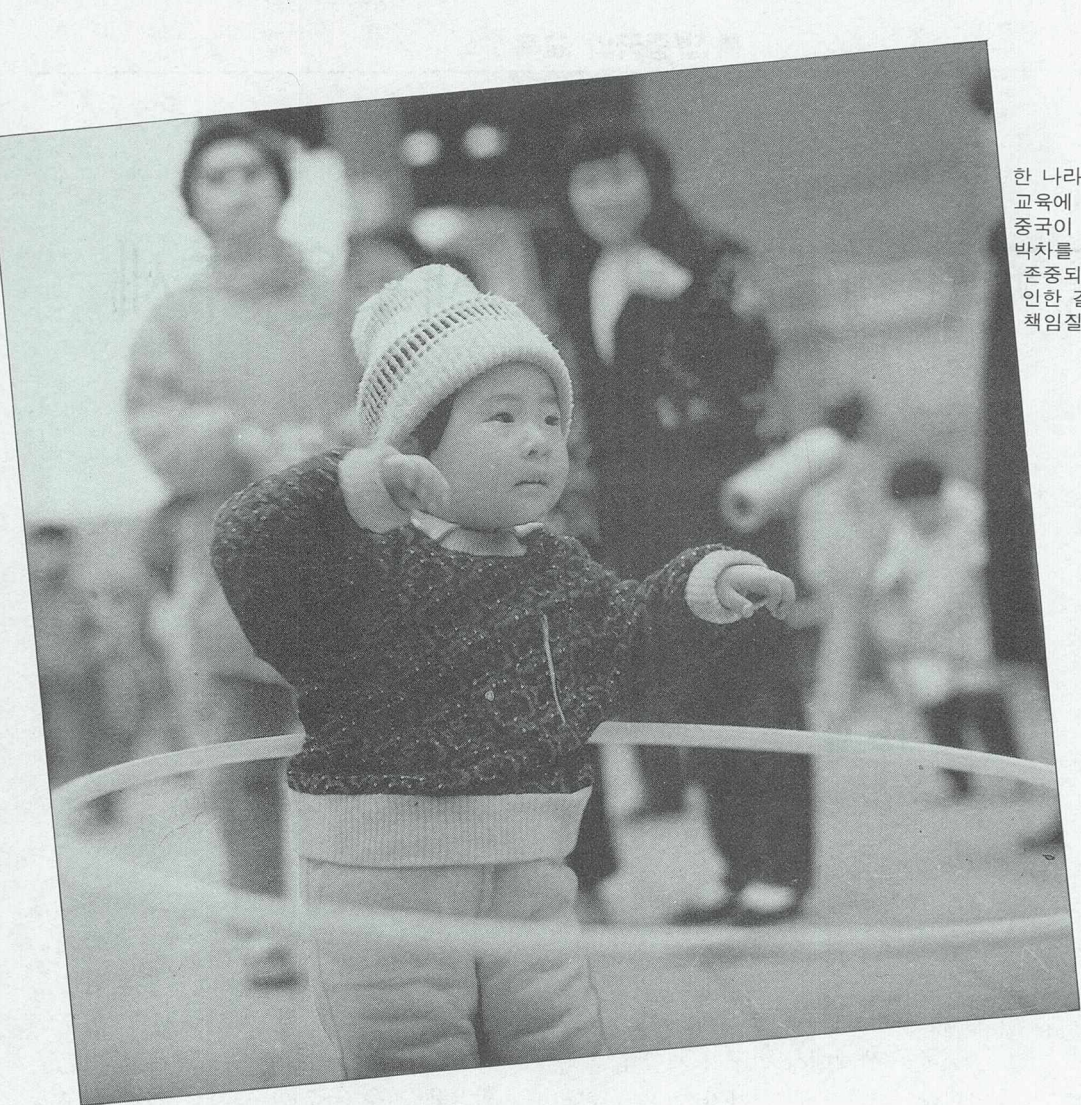
장사풍조는 소학교나 중학교에만 한정된 것은 물론 아니다. 중급 도시인 상담(湘潭)의 광산 대학에서는 영

어 공부를 강화하여 취직시험에 대비함으로써 학생들의 교내 외에서의 장사 풍조를 몰아낼 수 있었고, 소양의 사범 전문학교에서도 학교 관리 방식을 혁신하여 졸업 뒤의 취직 보도를 강화함으로써 교내에서 장사 풍조를 몰아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湘潭日報』, 『湖南日報』 등에 하나의 특별한 사례로 보도되고 있었다.

장사나 권력과 관계가 별로 없는, 그러므로 가난하기 마련인 문화 기관, 예컨대 도서관이나 박물관에도 ‘잡부금’이 있다. 앞에 언급 한대로 도서관에서는 책 한 권마다 얼마씩의 열람비를 받고 있으며, 그 중 일부분을 복사할 때는 따로 자료비를 받는다. 그 자료비라는 것도 아무런 기준없이 제멋대로 받고 있었다. 호남성 박물관에서는 자료 한 쪽을 복사해도 건당 100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일행에게 충격을 준 또 하나의 사례는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정부를 만드는 데 성공한 공산당의 교육도 표준어(普通話)의 보급성적에 있어서는 보잘 것 없다는 점이었다. 쌍봉현(雙峰縣)에서 지역 공산당사 연구자 몇 사람과 좌담을 했는데, 그들의 심한 쌍봉 사투리는, 표준어를 정확히 구사하는 하남성(河南省) 출신의 광주시 사회과학원 낙보선(駱寶善) 교수로 하여금 그들 말의 3분의 1 정도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다. 쌍봉과 가까운 상담 출신으로 상담대학 교수로 있는 성효군(成曉軍) 교수가 쌍봉사투리를 표준어로 통역해야 했다.

우리 일행 가운데는 농민들로 구성된 태평천국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한 상군(湘軍)을 연구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장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중국이 경제발전의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존중되지 않는 교육으로
인한 결과를 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있었는데, 그는 그 상군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상군의 핵심지반이 쌍봉현이었는데, 쌍봉 출신의 병사와 이웃고을 출신 병사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질문받은 한 향토사가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고을 사람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았겠지만 천천히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었고, 설사 의사소통이 어려워어도 지휘관인 사대부(紳士)들은 관리들 사이에 통하는 관화(官話)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지휘관들끼리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나지막한 산들로 구획된 이 지방의 언어사정이 사대부층의 사회적인 효용을 증

명한 셈이 됐다.

1988년에 하남성(河南省), 개봉(開封)의 하남대학을 방문했을 때, 교실이나 복도에 “표준어를 씁시다”라는 표어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상담대학, 그리고 모택동의 모교인 장사제일사범학교에서도 같은 내용의 표어가 복도의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민두기/ 서울대 인문대 동양사학과 교수

편집자 주:

이 글은 「중국탐색 '88-'94, 민두기 저, 지식산업사」에서 발췌한 것으로 지식산업사의 승인 을 얻은 것이다.

중국의 교육문제 및 새로운 추세

강성광

들어가는 말

최근 중국은 개방과 개혁을 통한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어 자신감과 자만심에 충만해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부적인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중국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것이 바로 교육 문제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을 뿐 아니라 문맹 인구도 가장 많은 나라이다. 중국 인구의 22%인 2억이 훨씬 넘는 사람이 문맹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문맹 인구의 1/4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한 국가이다. 1988년을 기준으로 약 2억의 학생이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1/5에 가까운 숫자이다. 이 2억의 학생 중 국민학생이 1억 2,500만 명, 중학생이 약 4,000만 명, 고등학생이 약 1,300만 명이고, 대학생은 220만 명 정도이다.

또한 학교 수는 국민학교가 약 80만 개소, 중·고등학교가 약 11만개소, 대학이 1988년을 기준 하여 1,075개 소가 있다. 전국 교사의 총인원은 1,000만 명 가

량 되는데, 그 중 국민학교 교사가 550만 명, 중학교 교사 240만 명, 고등학교 교사가 110만 명, 대학 강사가 39만 명이 된다.

이와 같이 엄청난 교육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점과 허실도 규모 못지 않게 크다. 최근 인구 조사 통계에 의하면, 2억 5,000만 명의 청소년(15-24세) 가운데 현재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겨우 3,874만 명으로 적령 인구의 15.7%밖에 되지 않는다. 12세의 청소년 중 학생은 전체의 25%밖에 되지 않고, 더욱이 20세 인구 중 학생 수는 11%밖에 되지 않는다. 220만 명의 대학생 수는 인도의 인구 비례 대학생 수의 1/3밖에 못 미치는 적은 숫자이다.

그리고 84년부터 93년까지 10년 동안 4,100만 명의 초·중·고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고, 또 대학생 수도 줄어든 상황이다. 중학생들의 퇴학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만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퇴학한 학생이 5.7%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교육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모든 것을 국가가 부담하던 체제하의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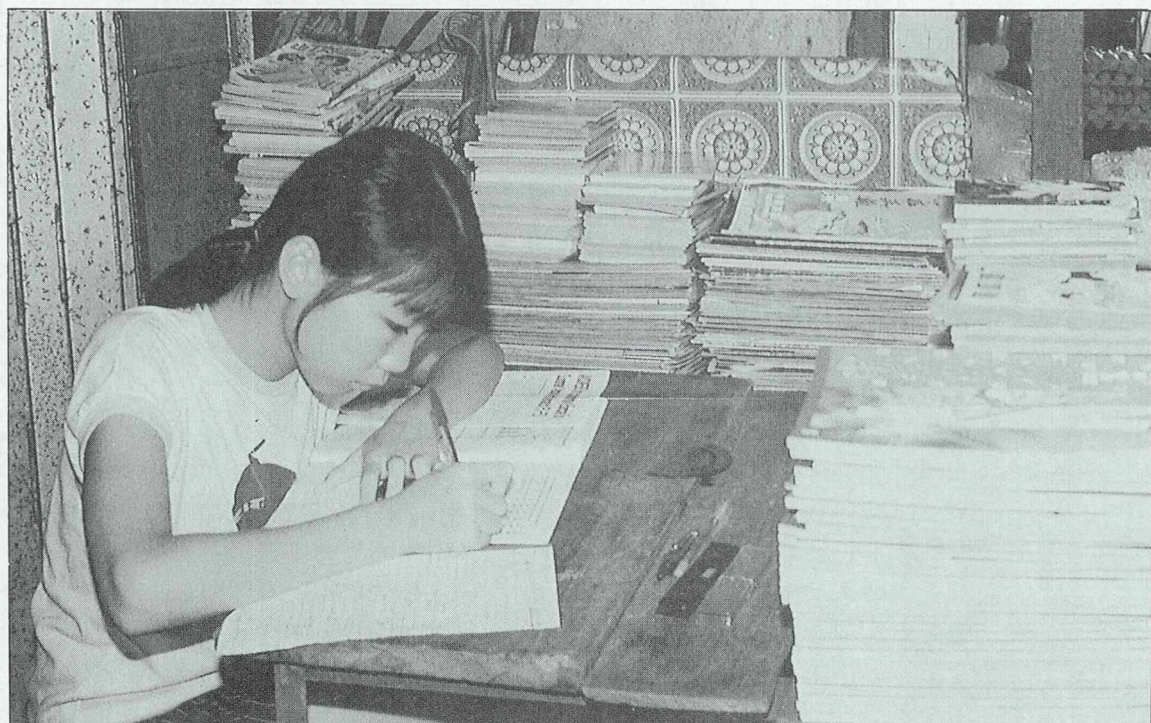
육제도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교육제도와 체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수업료 징수, 사립학교 설립, 심지어 외국인의 중국 내 합작 및 독자(獨資) 대학설립도 부분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면한 중국 교육의 문제점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 정부의 교육 투자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물질 중심적인 사회 풍조 때문이다. 즉 독서무용론(讀書無用論), 지식불치전(知識不值錢)의 그릇된 사회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돈을 벌려고 학교를 중단하거나 부모가 강제로 중퇴시키는 경우가 많다.

현재 중국의 최대 목표는 빠른 경제 발전이다. 따라서 교육 투자는 자연 도외시됨으로 세계에서 교육 투자가 가장 적은 국가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의 교육 경비는 국민 총생산의 2.5%로 전세계 평균 교육 경비가 국민 총생산의 3.6%인 것에 비하면 매우 많이 떨어지는 수치이다.² 중국의 교육 투자액은 국가 예산의 10% 미만밖에 되지 않는다. 계속적인 물가 상승, 학생 수의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정부 당국의 교육 투자가 조금씩 늘어난다 할지라도 낙후된 교육의 문제를 단기간에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심각한 교육 재정의 문제가 발생하자 지방자치적으로 농업세 등을 징수하여 교사 봉급 등을 감당하고 있지만, 세금 납입이 잘 안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재정은 충당되지 않는다.



집 구석의 낡은 책상에서 숙제에 열중하는 여학생. 공부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사회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공부하고 싶은 어린이들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

교육 재정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교사들의 수입은 다른 업종 종사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93년에 사천성 이릉현의 7,000명의 교사들이 7개월 동안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100개가 넘는 국민학교 교장들이 상급 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유실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 현에서 89년에 입학한 2,500명의 국민학교 학생 가운데 작년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은 겨우 1,200명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 재정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교사들의 수입은 다른 업종 종사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작년 중국의 교사 평균 수입은 중국의 모든 12개 업종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

교사의 유실 문제

호북성(湖北省) 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94년 9월의 통계에 의하면, 근래 2년 동안 교사직을 떠난 사람들이 6,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 94%는 45세 이하 대졸 학력 이상의 간부직 교사라고 한다. 그들은 모두 시장경제의 영향을 받아 하해(下海; 관직이나 교사직을 떠나 세속적인 경제 비즈니스를 도모하는 경우)를 위해 교단을 떠난 사람들이다. 북경시의 한 구(區)에서만 93년에 교사직을 떠난 사람이 2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북경시의 한 명문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본과를 졸업한 6명의 교사가 새로 들어오자 교장이 무척 기뻐했는데, 두 달도 못 되서 그 중 두 명은 정식 사직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다른 회사로 가버렸고, 나머지 두 명은 행방조차 알 수 없

다고 한다.³

호남성의 한 중학교에서는 개학하는 날 한 반의 학생들이 담임 선생을 찾지 못하여 등록도 못하고, 수업종이 울리자 반 학생들 모두 교실에 멍하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교장 선생을 찾아가 어찌된 일인지 사정을 물으니 그 역시 선생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나중에 수소문하여 알아본 결과 그는 한 회사의 과장으로 취직해 있었다고 한다.

절강성의 한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작년에 57명이 교직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났다. 모 고등학교의 화학 교사는 중간고사 시험을 끝내고, 학교 측에다 간염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고는 나갔는데, 후에 알아보니 가짜 진단서를 떼어준 의사와 함께 북경에 가서 실크 옷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초·중학교 교사 수천 명이 교단을 떠나버려 몇백 개의 초, 중학교가 임시로 폐교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런 심각한 교사 유실 현상은 중국 서북, 서남의 빈곤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복건, 광둥성처럼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그 예로 1991년 광둥에는 5,000명의 초·중등학교 교사가 교직을 떠났고, 중산대학과 같은 명문 대학에도 강사 유실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한 전체 교사 유실도 엄청나, 1년에 20만 명의 젊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학 강사의 유실은 더욱 심각하다. 국가교육위 직속대학의 청·장년 교수 인원의 50%가 강단을 떠났다. 모대학의 외국어 강사들 대부분이 정식 사직 절차를 밟지 않고 하해하여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에 중국의 대학에서는 대학에 남는 것을 큰 명예로 생각했었다. 학교에서도 석·박사의 인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대학은 이런 젊은 인재들을 학교에 잡아 놓을 만한 능력을 상실했다. 교사하면 가난하고, 적은 월급, 열악한 주거 환경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얼마 전 북경에 거주하는 여대생들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기자, 변호사, 증권 회사 직원이며, 가장 기피하는 직업은 교사직이었다고 한다.

이런 여파로 말미암은 경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은 교사들은 상대적인 착취감을 느낀다고 한다.

교사 자질 문제

교사의 대우가 다른 직종에 비해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사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1988년 전국 국민학교 교사 학력고사의 합격률은 68.1%, 중학교 교사의 경우는 35.6%였다.⁴

68.1%의 국민학교 교사 합격률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인정해 준 결과이고, 만약 4년제 대학이나 사범대학 학력으로 치면 39.4% 정도의 합격률밖에 안 되는 수치이다. 2년 전 귀주성의 국민학교, 중학교 교사 중 교사 실력 시험에 합격된 교사는 20% 미만이었다.

교사 대우 문제가 원인이긴 하지만, 현재 중년 이상의 교사들이 자격에 미달되는 주요 원인은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대부분의 중등사범학교와 고등사범학교가 폐교하다시피 했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⁵

교사 자격 문제는 비단 초·중·고등학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강사 요원이 모자라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바로 강단에 서는 것이

중국 대학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필자가 잘 아는 한 성의 중앙 대학은 전국 중점 대학(명문 대학에 속하는)임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같은 대학)을 졸업한 많은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다.

값비싼 학비 부담

어떤 특별한 규정도 없이 초·중학교 학비를 비싸게 받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호남성 상담시의 1993년도 가을 학기의 학비는 국민학교 55원, 중학교 120원, 고등학교가 311원이었다.⁶ 어떤 현과 시의 학교에서는 과외비 등 여러 명목을 붙여 국민학교 80원 이상, 중학교 200원 이상을 받았는데, 이는 국가 표준 학비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이다. 이런 이유는 국가 재정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학생들에게 모두 지우기 때문이다.

대도시를 제외하고 농촌 및 지방 도시



학비를 낼 때마다 각 반에서 몇 명씩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생긴다.

시민의 1년 총수입이 인민폐 1,000원 미만이며 상당한 농촌 지역의 1인당 연 총수입이 400원 미만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학비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학비를 낼 때마다 각 반에서 몇 명씩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생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령성의 한 농촌 중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25% 정도가 중간에 학업을 포기한다고 한다.

학생 유실 현상

84년부터 93년까지 10년 동안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 가운데 중퇴한 학생은 4,100만 명이다. 근래 중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93년 한 해 동안만 740만 명의 국·중학생이 중퇴했고, 사천성에서는 약 100만 명의 국·중·고등학생이 퇴학(자퇴)하여 집에서 일하거나 외지에 나가 돈을 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평균 100명의 학생(국·중·고등) 가운데 14명이 유실되고 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불망성재망발재”(不望成才望發財; 공부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지 못하더라도 돈은 꼭 벌어야 한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에는 약 1,400만 명의 농민 출신 건축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중 25%가 미성년 노동자라고 한다.

중국 사회 전체에 팽배한 ‘향전간’(向錢看: 금전 제일주의)현상은 중국의 사회, 문화, 도덕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이런 교사의 처우 문제, 이로 인한 교사 유실,

교사의 질 미달, 독서무용론과 향전간 등의 사회 현상이 상당수의 학생들을 학교를 떠나게 만들고 중국의 교육은 당면한 중국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당면한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한 중국 정부 당국은 근래 들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당국은 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8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 공산당 중앙의원 ‘전국 교육공작회의’를 가졌다. 강택민 총서기 등 대부분의 당 및 교육 행정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중국의 교육 문제를 토의했다.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은행을 설립하는 것에 동의하고 교사 대우 등을 제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심각한 교육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국 교육 체제 개혁 및 교육의 사립화 현상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정부는 이제 교육비 부담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비를 점차적으로 학생이 부담하도록 교육 체제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도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싼 학비와 운영 부실로 인한 부작용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개인적 명이나 법인 혹은 외국 학교 명의 등의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중국 교육 형태의 변화와 여러 상황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민판”(民辦-사립학교)

중국에는 현재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학교가 있다.

첫째는 국가 소속으로 국가에서 교사의 월급 및 대부분의 재정을 충당하는 “공판(公辦)”이다.

둘째는 “민판(民辦)” 학교이다. 최근 중국에는 전체 국민학교의 약 45%, 중학교의 15%가 민판 학교이다.⁷ 이런 종류의 민판 학교는 주로 농촌에 소재한다. 그 유래는 문화혁명 기간으로 올라간다. 농촌에 부족한 초·중학교를 농민 스스로 설립하고, 당시 도시의 청년들이 농촌으로 몰려들 때(下放: 정치 학습, 노동) 이 도시 청년들을 교사로 청하여 상당수의 농촌 민판학교가 생겨났다. 그 후로도 부족한 농촌 학교의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 농민 스스로 경비를 충당하면서 명맥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현재는 교사 월급과 경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판 학교의 교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대우가 공판학교에 비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교사가 이탈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30만 명의 민판 학교 교사가 있는데 이들의 수입은 정부의 공판학교 교사 수입의 20~30%밖에 안된다고 한다.⁸ 그러나 빈곤한 농촌 지역에서 이 학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똑같은 민판학교이지만 여러 면에서 농촌의 그것과 정반대 개념인 도시 민판 학교들도 근래 많이 증가하고 있다. 80년대들어 시작된 경제 개방 이후로 개체상인 및 일부 경제적인 부를 획득한 자들은 한 명의 자녀밖에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은 욕망을 갖기 시작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이들의 필요에 부응하게 된 것이 소위 ‘귀족학교’라는 것이다. 이 역시 ‘민판’ 형태의 사립 학교이다(『중국을



40년 만에 최초로 북경에 세워진 민판학교 『북경시사립정칙중학』의 현판식 광경. 교육 역시 시장경제로 진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이다.

주께로』 94년 1/2월호 p.56 “중국 북경에 유행하는 귀족학교” 참조).

이런 류의 민판 학교는 중국의 모든 대도시에서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다. 학비는 중국 현실에 비할 때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다. 입학금이 몇 만 원(인민폐)이 되기도 하고, 1

사립학교는 최고급 시설을 갖춰 놓고 돈 많은 학부모들을 끌어들이는다.

년 학비 1만 원 정도는 보통이다.

이런 사립학교는 최고급 시설을 갖춰 놓고 돈 많은 학부모들을 끌어들이는다. 외국인 영어 교사, 피아노 등 악기 교육, 컴퓨터 교육, 최고 시설의 기숙사 등이 있는 이런 학교에 돈 많은 학부모들은 하나뿐인 자녀를 보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학교들은 모집 인원보다 몇 배의 신청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귀족학교는 대부분이 국민학교이고 소수의 유치원도 있다.

농촌의 국민학교 학생이 100원 미만의 학비가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교육의 기형적인 현상이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귀족 학교의 출현을 법적으로 막으려고 하지만 시장경제의 필요 공급 원칙에 의한 이런 현상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의 중국 내 학교 설립과 투자

중국은 1949년 공산화된 이래로 외국인에게 일체 교육에 관한 투자 및 학교 운영 등을 허락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개방화된 이래 85년부터, 외국인 영어 교사의 수입과 더불어 외국 교육 기관과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조금씩 교육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완화된다고 있다.

최근 중국 교육 부문을 총괄하는 이람청(李嵐清) 부총리는 외국인 개인이나 기관이 중국에 와서 합작하여 학교를 설

립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했다. 그러나 영리 목적이나 소위 귀족 학교의 설립은 반대한다고 했다.⁹

계속해서 그는 중국의 인재 배양 및 훈련을 보충하는 데 필요하고 이것은 중국의 교육이 대외 교류와 합작의 중요한 형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직업 교육 및 직업 훈련 위주의 학교 합작이 필요하며 의무 교육, 즉 초·중학교는 외국의 투자 및 진출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2,200개의 사립 학교에 학생 수가 25만 명 이상 되는 복건성에는 홍콩 및 기업인들이 이미 수십 개의 국내 기존의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과 합작하여 설립한 학교가 지방 교육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런 학교의 교재는 국내 교육 대강(大綱) 기준에 맞추어 사용된다.

외국 합작 학교 설립 및 경영은 크게 환영하지만 외국인이 혹은 기관이 독자적으로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것은 아직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한 화교 기업인이 복건성 천주(泉州)에 1억 이상(인민폐)을 투자하여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립대학인 '앙은대학'(仰恩大學)을 설립하고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93년도 창립). 94년 봄학기에 공부하는 학생이 500명 정도되고 교수 인원도 1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전국 고등학교 연합대학 입학 고사 수험생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대학은 일반 공립 대학과 같이 4년제이고, 문·이·공과가 있으며, 국제재경회계과 등이 있다. 그리고 학생은 국내 외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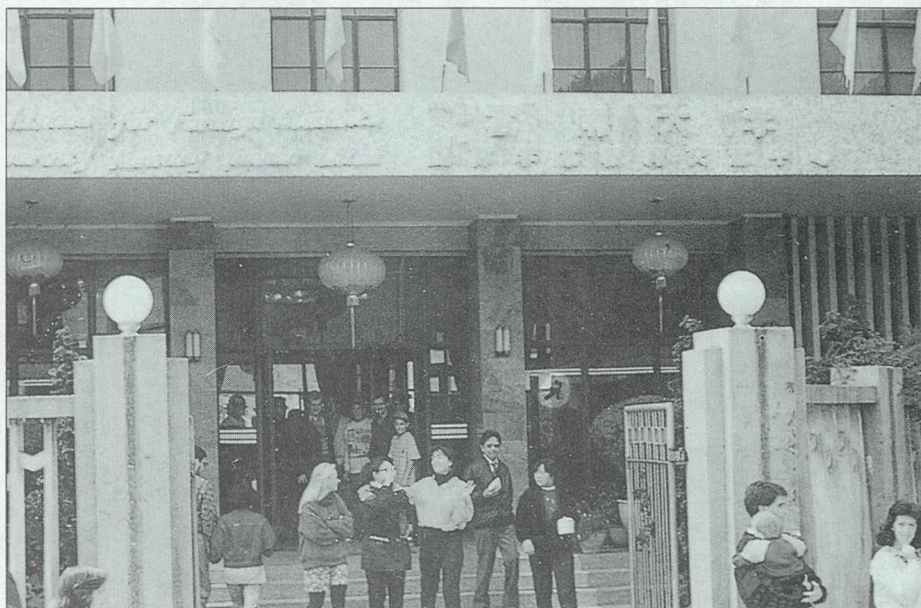
학생 수업료는 1년에 5,000원(인민폐)이고, 교수 월급은 2,000원 이상의 대우를 한다. 교재는 영어과 및 국제재경회계과 등만 외국 교재를 사용하고, 다른

교재는 모두 국내에서 제작한 교재를 사용한다고 한다.

양은대학은 외국 기업가가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첫 학교로서 시험 대상이 되고 있다. 왜냐 하면 아직 중앙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독자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들은 자비학생(自費學生)이라고 해서 지방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많게는 연 4,000원(인민폐), 적게는 2,000원까지 받고 있다.

1993년부터는 여러 대학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교육위원회 고등교육사 부사(高等教育司 副司)인 주전례(朱傳禮)는 최근



운남대학

최근 중국 국가교육위원회 고등교육사 부사(高等教育司 副司)인 주전례(朱傳禮)는, 외국 자금으로 경영하는 사립 대학의 건립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적극 연구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류의 대학을 적극 격려할 것이라고 했다.¹⁰⁾

중국 대학 재정 정책의 변화

본래 중국의 대학생은 거의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보조만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여러 형태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대학 입학 성적이 입학 점수에 못 미치는 학생

한 공식석상에서 중국은 앞으로 대학 제도를 대거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대학의 사영화 허용, 전체적인 대학 학비 인상, 학생으로 하여금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 부여 등이다. 그는 말하기를, 정부는 계속적으로 사립대학 설립을 적극 장려하여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에는 정부가 모든 것을 떠맡았지만 앞으로는 학생이 부분 교육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93, 94년 학기에 중국 대학은 총 78만 명의 공비(公費: 정부에서 학생의 학비를 부담) 신입생을 받아들였



고, 그 밖에 추가로 7만 명의 사비(私費: 개인적으로 학비 부담) 학생을 받아 들였다.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한 공비 학생도 규정에 따라 매년 400~6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비 학생(합격 커트라인에 못 미친 일정 한계의 점수를 얻은 학생은 자비로 학교를 다녀야 함)은 매년 2,000원에서 3,000원의 학비를 내야 한다.

그러나 94년 9월 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공비학생을 포함하는)도 1,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까지의 학비를 내야 하고 사비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은 학비를 내야 한다.

일반 도시 국영기업 노동자의 월급이 300~400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학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1년 총수입이 500~600원인 일반 농민 학부모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주전례는, “정부는 앞으로 가난한 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과 융자금을 늘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¹¹

광둥성의 몇 개 주요 대학들도 94년 5월에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여 발표했다. 그런데 과마다 등록금이 차이가 있어 인기 있는 과, 즉 국제 무역과, 컴퓨터학과, 건축학과, 회계학과 등이 제일 비싸게 책정되었다.

참고 자료

1. 中國教育改革, 程介明 著, 商務印書, p. 14.
2. 三聯精選, 山坳上的中國, p.335-346.
3. 明報, 94. 9. 6.
4. 中國教育報, 89. 1. 1.
5. 中國教育改革, 程介明 著, 商務印書, p. 84.
6. 香港聯合報, 94. 8. 25.
7. 中國教育統計年鑒, 1989.
8. 明報, 94. 8. 24.
9. 文報, 94. 10. 4.
10. 明報, 94. 9. 28.
11. 明報, 94. 9. 2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국 어린이에게 배움의 길을!

문맹퇴치운동 희망공정

석은혜

매년 4백만 명 진학 못해

중국은 개혁과 개방의 물결을 타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따라서 빠른 속도로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12억의 중국 인구 가운데 2억 정도의 인구만이 실제로 경제개혁에 따른 성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중국 인구 중 80% 이상이 농촌에 살고 있으며, 2억이나 되는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문맹이다. 전세계 문맹 인구의 1/4은 중국인이라는 말이다.

중국은 9년의 의무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의무교육법 제4조에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취학 적령기의 어린이와 소년에게 교육을 받게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정부 교육비 예산액은 중국 인민폐로 382억이며, 그외 다른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331억을 합하면 713억이 된다. 이 금액은 전체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적은 액수로서 2억 2천만의 교육인구에 비례해 보면 세계 최하위급에 속한다.

최근 중국 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요즘도 매년 4백만 명의 국민학교 어린이

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거나 도중에 공부를 중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순전히 가정 형편 때문에 국민학교 진학조차 하지 못한 채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린이가 매년 1백여만 명에 이른다.

9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빈곤 정도를 알아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교육재정은 1인당 평균 70원(한화 7천 원 정도)에도 못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초등교육에 충당하는 경비는 국민학생 1인당 60원에 불과하다. 이나마 대부분 학교 관리비와 교사의 보수로 나가고 학생 1인당 수혜액은 평균 1원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시되는 중국의 의무교육은 국민학생 1인당 매년 60원(한화 6천 원 정도)의 교과서 대금, 문구류 대금 및 잡부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연간 소득이 3백 원에도 못미치는 절대빈곤층이 전국적으로 8천만 명이다. 의식주조차 해결



청해성 영하(寧夏) 빈곤 지역의 한 “희망국민학교” 학생들이 신축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돈 60원을 벌
능력이 없어 국민학교 취학을 단념하거
나 중도에 탈락하는 어린이가 1백만 명
을 넘는다는 것이다.

농촌이나 산촌 등 빈곤지역에 살고 있
는 어린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혹한 환경 속에 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들의 부모는 대부분 우매하지만
자기 자식들이 잘 배워야만 부요함과 문
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그
들의 성공을 빌고 있다. 그러나 어린아
이들은 건강과 총명이 부족해서가 아니
라 매년 60원이 없어서 그 아름다운 소
망이 파괴되고 있다.

중국의 농촌과 산촌 등 빈곤지역에서
나타나는 초등교육 낙후현상은 경제와

사회발전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
개혁 개방이 심화되면서 사회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 때에 교육의
낙후는 더이상 연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배움의 길을 잃은 아동들을 위한 ‘희망공정’

중국 당국이 최근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이들 실학아동들에 구체적
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1989년
10월 30일부터 ‘희망공정(希望工程: 희망
프로젝트)’이라는, 실학아동을 학교로
복귀시키는 범국민운동을 시작했다.

희망공정은 학생들의 교육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산간, 농촌 등

빈곤지역 학생들을 도시의 시민들과 연결, 학비를 보조해 주는 일종의 교육비 후원운동이다. 이 희망공정을 통해 들어온 자금은 실학아동을 학교로 복귀시켜 졸업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후원하거나 또한 희망학교를 건립하는 데 사용된다. 특별한 경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주어 대학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기도 한다.

이 모금운동은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운동을 주관하는 핵심 단체는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中國青少年發展基金會)”로서 당초 중화전국청년연합회, 공산청년단, 학생연합회, 소년선발대공작위원회 등 4개 청소년단체가 연합하여 1989년 3월 결성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 단체는 중국의 사회 각계는 물론 해외의 유지들로부터 모금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실학아동의 학비를 지원하고 빈곤지역에 <희망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실학아동 후원은 5년 간(중국 소학교는 6년제이나 희망공정은 소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후원한다. 실학아동들은 대부분 2학년 때부터 중퇴하기 때문이다)이며 300원(인민폐)이 필요하다.

홍콩의 한 일간지와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300원(홍콩 달러)을 기부하여 한 어린이를 5년 동안 공부시키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만약 300원(한화 3만 원)을 기부하면 기금회본부에서는 기부자에게 영수증과 증명서를 작성해주고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통지한다. 기금회에서는 이미 전산화 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컴퓨터로 기부자와 수혜자를 연결시켜 준다. 그 후 기부자에게 수혜자 어린이의 주소를 연

중국 정부가 희망공정을 국가의 중점 교육과업으로 공식 채택하게된 것이다.

결하여 주고, 수혜자 어린이가 1년에 2회씩 감사편지와 자기의 성적 증명서를 보내주고 있다.

열매 맺고 있는 ‘희망공정’

희망공정은 중국지도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적극적인 협력을 얻고 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 등소평(鄧小平)은 “우리는 다른 방면에서는 조금 참고 속도를 희생할 수도 있지만, 교육문제는 잘 해결해야 한다.”고 교시했다. 따라서 등소평도 희망공정에 <한老공산당원>의 이름으로 2차례에 걸쳐 5천 원을 회사했다. 강택민(江澤民) 국가주석, 이붕(李鵬) 총리, 이선념(李先念), 왕진(王震) 등 국가지도자들도 앞다투어 희망공정을 위한 격려사와 함께 실학아동에게 지원금을 보냈다.

1994년 3월 10일 이붕(李鵬)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정치활동보고>를 통해 “각급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과 절박감으로 농촌 적령 아동의 교육문제를 중시, 도중 탈락률을 낮추고 사회의 역량을 동원해 희망공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희망공정을 국가의 중점 교육과업으로 공식 채택하게된 것이다.

희망공정이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4년 반 동안에 약 2억 2천만원의 기금이 국내, 외로부터 들어왔다. 정부기관 종사자들이 거둔 기부금만도 1천만 원을 돌파했다. 중국 사회 각계 인사들과 함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퇴직금, 어린

이들의 용돈,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대학생의 장학금 등 숫자상으로는 일반 국민의 기부금이 가장 많다. 그 밖에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도 이 기부금에 참가하고 있다.

기부금은 일본, 미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해외에서 보내온 것이 전체 모금액의 50%를 차지한다. 해외에서 기부금을 보내주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은 화교들이며 그중 60~70%는 홍콩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해외 화교 외에 외국 기업들도 희망공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회사인 뱅크스 트러스트社는 최근 희망학교 설립을 위해 5백만 원을 내놓았다. 또한 대만의 열심있는 친구들은 북경에

“희망공정 해외 사랑의 기금회”를 설립하고 희망공정 기금 마련을 위해 백 차 례나 자선공연을 거행하였다.

실학 아동이 가장 많은 사천성의 경우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지구 유지들의 지원으로 희망학교를 11개교나 세웠다. 청소년 재단은 희망공정을 통해 들어온 2억 1백23만 원의 기부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1,200개 현에 모두 54만 9천 명의 실학 아동을 구제했다. 또 전국의 극빈 농촌과 산촌에 2백4개 희망학교를 설립했다.

한 가정 한 학생 돕기 운동

이 재단은 효율적인 실학 아동 구제 방법으로 1994년 3월부터 「한 가정 한 학생 돕기(1가정+1인 실학학생 학비보조운동)」 캠페인을 시작했다. 자매결연식으로 빈곤 지역의 실학 어린이들을 지원하자는 발상이다.

이 운동의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가 실로 비장하다.

“300원의 후원이 한 학생에게 국민학교를 마칠 수 있게 하고, 그 학생의 운명을 바꾼다. 2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희망학교 1개교를 건설, 빈곤 지역의 교육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중국의 도시 가구 수는 7천여만 호에 달한다. 이중 평균 소득이 중등 이상인 가구가 80%나 된다. 또 일부 농촌 가정들도 생활수준이 중산층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만약 도시와 농촌이 일체가 되어 매 가정에서 300원씩 후원하여 실학아동을 돕는다면 100여만 명에 달하는 아동들의 실학 문제는 정말 희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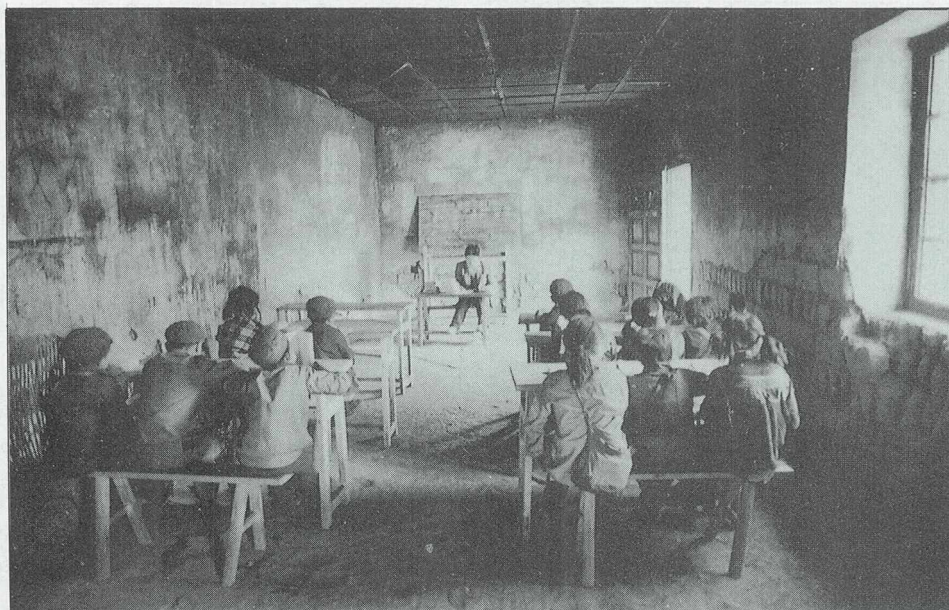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는 희망공정을 통해 금세기 말까지 전국의 적령기 아동이 기본적으로 초등교육을 받게 하고,



희망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



민경(民警)들도 '희망공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사천성 양산(涼山) 산골짜기에 있는 한 국민학교. 이들 역시 희망공정의 혜택을 받을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전국 5백 92개 극빈 지구에 최소한 1개교씩의 희망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희망공정을 통한 선교사업

이 희망공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중국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전문가는 개탄하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근에 학교 재정이 악화되어 양식없는 학교 행정가들이 무분별하게 잡부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희망공정 후원금으로는 잡부금조차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빈곤한 학생들에게는 결국 ‘희망공정’이 아니라 ‘실망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한 광고회사는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것을 선전하면서 희망공정을 지지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마치 자기네 회사가 희망공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

기도 하였다. 그들은 사실상 희망공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다만 자기 회사의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희망공정을 이용한 것이다.

1994년 5월 26일자 홍콩에서 발행되는 명보(明報)의 보도에 의하면, 1994년 50여만 명의 실학아동이 필요로 하는 인민폐는 1억 5천만 원인데, 들어온 돈은 1천 8백여만원에 불과해 1억 3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다.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는 1994년 “국제 가정의 해”와 맞물려 “한 가정이 한 학생 학비 보조하기 운동”을 추진하여 경제조건이 있는 각 가정의 원조로 실학아동을 격려하여 왔다. 또한 우편전신국을 통하여 중국 수만 개의 현금 이상의 우편전신국에 7백만 장의 엽서를 부쳐 기부자와 기금 연락에 편리함을 제공했으나 효과는 여전히 이상적이지 못했다고 밝힌다.

청소년발전기금회의 비서장 서영광(徐永光) 씨에 의하면 홍콩 일간신문이



“희망공정 자선금 실종”이란 기사를 발표하여 희망공정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룬 이래 기부금이 대폭 줄어들었고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기부금을 보내던 사람들이 기부금을 받는 학생의 학습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자금을 보내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좋은 일에도 지지와 협력만 있는것은 아니다. 설사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희망공정은 절대로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중국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이 실학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한다면,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므로 좋은 선교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국 돈 3만 원이면 요즘 우리 나라 물가로 볼 때 한 가족 한 끼 식사비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중국의 어린이가 5년을 공부할 수 있다. 이 희망공정 사업에 우리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의 신념은 단 한 명의 실학소년이 있더라도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모금운동에 참여하려면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로 직접 연락하여 동참할 수 있다.

주 소: 中國人民共和國 北京市 東城區
后圓恩寺 甲1号

우편번호: 100009

팩스번호: 0086-1-403-3895

사무실: 403-5547, 해외부: 403-3895

근무시간: 평일(월-토) 08:30 - 17:00

달러통장번호

통장명: 中國青少年發展基金會

개설점: 中國銀行總行營業部

계좌번호: 71411087

지금 중국의 배움의 길을 잃은 어린이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면서 외치고 있다.

“나는 학교에 다니고 싶다(我要上學!)”

당신은 희망공정을 통하여 중국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는가?

석은혜/ “중국을 주께로” 편집장
중국어문선교회 간사

“당신은 중국인을 섬길 수 있는 교육자인가?”

전문인 사역자로서의 교사

안득열

들어가는 말

중국이 전통적인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중국 교회는 삼자 원칙을 내세워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지난 1994년 1월 31일, 국무원 이봉 총리 명으로 새로운 종교법규 144호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종교활동 관리규정>과 145호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가 반포된 바 있다. 이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공식적인 규제이다.

따라서 최근 전문인 선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직업을 가진 선교사로서 중국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준비를 갖추고 들어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지금까지 중국을 섬기려는 서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문인 선교사로서 중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사(대부분 영어교사)로 들어가 사역을 해왔다.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양심적이고 성실한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존경

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당국의 인정을 받았기에 지속적으로 사역을 해올 수 있었다. 이렇게 덕망을 얻은 교사들로 인해 중국 정부는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좀 더 자질있는 교사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막연히 선교하기 위해서 교사의 신분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선교사라는 소명과 더불어 교육자로서의 특수한 사명감과 철학을 갖고 사역하지 않는다면, 교사로서 학생들과 맺어지는 친밀한 유대감도 형성되기 힘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선교사로서의 장기적인 사역이 어려워질 것이다. 특별히 복음에 적대적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더욱 그러하다.

예로부터 교육은 천직(天職)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사라는 전문인의 직업을 갖고 중국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학생들 앞에 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또한 중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



한 농촌의 소학교 어린이들. 중국의 학생들을 열의를 다해 사랑하고 인내로 교육할 교사 선교사가 필요하다.

질들은 무엇인가? 이 글을 통해 중국의 교사로 부르심을 입은 전문인 선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준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교사

책임있는 직무

누군가 중국에서 사역할 전문인 선교사로서 교사의 직업을 갖고 파송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교사로 부르신 동시에 교사라는 사명을 감당할 자로 인도하신 것이다. 교사가 되는 것은 회사를 차려 장사를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더욱 훈련된 인격이 필요하다. 교사직이 얼마나 책임있는 일인가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약 3:1-2)

교사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 말씀의 경고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가 되는 일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사들의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은 말이다. 교사의 일은 바른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잘못된 의사소통의 결과는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대로 대단히 심각하다.

그러므로 선교사로 갈 이들 가운데 교직의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교직을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 선교사는 당연히 자신의 결점과 허를 길들이는 문제를 다루는 데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교육방식-‘지혜’

한 사람이 어떤 교사인가는 그의 전반적인 교육방식으로 드러난다. 모든 교육방식에는 근원이 있다. 지식은 그것과 관련이 있다. 인격, 교수법도 그렇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 근원으로서 “지혜”

를 말한다.

많은 교사들은 지혜가 학문 연구에서 온다고 믿는다. 그들은 가능하면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열심히 연구해왔다. 지식을 더 깊이, 더 광범위하게 알면 알수록 그들은 교육을 더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혜는 우리가 소유하는 지식의 양보다는 지식의 적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약 3:17)

바울의 경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즉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함이었다(골 1:28).

향기 나는 교사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고후 2:14-16)

교사 선교사들은 교실이나 교무실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를 모시고 간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풍기게 하는 방법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면 어떻겠는가? 훌륭한 수업을 위한 준비와 그리

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한 계획은 둘다 연구와 기도가 필요한 동일한 책임이다.

교사가 학생들 앞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에 따라 주님의 향기가 전해질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수업을 잘 준비하고 수업시간을 엄수하며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새롭게 준비하는 일 등을 통해 향기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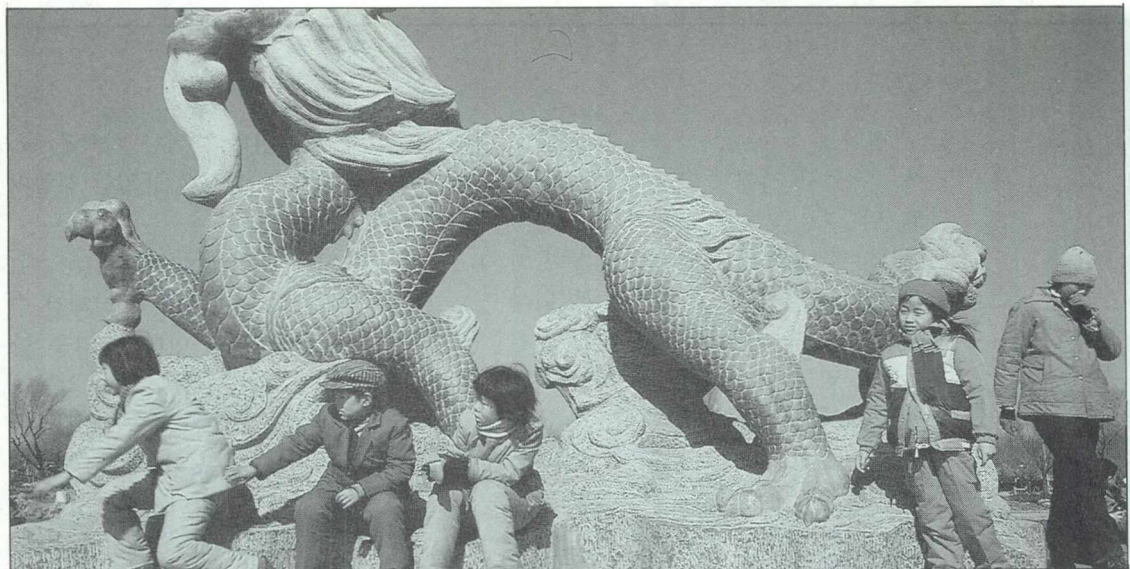
그러나 학생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성실한 교사들이 자기들을 위해 하는 일, 혹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항상 감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해마다 교사가 보여주는 성실함은 의심할 것없이 진정 유익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것이야말로 능력있는 증거이다.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교사의 태도를 갖추게 하시며 발전시키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교사 선교사가 매일 순전함으로 가르칠 때 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빛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도 학생과 동료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군사로서의 교사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4-5)

전문인 선교사인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단지 방어진이 아니라 공격해야 하며 포로를 잡는 군사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는 무신론, 무시되는 인간의 존엄성, 황금 만능주의 등 하나님과



용(龍)의 나라 중국. 중국의 교육 환경에 침투해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할 의무가 교사 선교사에게 있다.

는 거리가 먼 중국 세계의 가치관이 곳
곳에 침투되어 있다.

이런 전장터에서 교사 선교사가 사용
할 병기는 세상의 것과 같아서 안 된
다. 우리의 유일한 공격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사랑, 온유, 청결,
겸손, 자비, 화평케 하는 일 등이다. 이런
모든 병기를 사용함으로써 교사 선교사
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바울은 또 우리가 사로잡아 두어야 함
을 상기시킨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사
로잡고 정복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
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만 일을 지속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성을 주되
심에 굴복시킬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
님의 관점에 맞추어 생각하고 다른 사람
에게 사상을 가르치게 된다. 학생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간에,
적어도 그들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그
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칠 능력을 주셨
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우리
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
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면서, 매일 자연스
럽게 전진하면 된다.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사랑, 진리, 자비, 마음의 청결, 화

평케 하는 일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은 적
극적으로 그것을 파괴하는 수단이다.

중국의 교사 선교사로 서기 위하여

영적준비

무엇보다도 중요한 측면은 우리의 영적
준비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리스
도인 교사는 영적 군사이다. 더욱이 중
국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
이다. 자기 스스로의 영적 관리가 흐트
러지면 보이지 않는 압력과 영적 무기력
에 빠지기 쉽고, 사역에도 당연히 어려
움이 오게 마련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의 구속
사와 중국 전문인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또한 성경적인 원
리들을 이해하여 새로운 문제들과 상황
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 또한 매
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 청년들의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가 “진리”이다.
진리란 무엇인가? 단순히 성경에 대해
서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처했
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차이점은 아주 크다.

중국 교회에 대한 이해

교사 선교사가 학생들과 일 대 일의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현지의 교회와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교사는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다. 비록 외국인인 교사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터전은 중국 교회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한 중국 교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보아야 한다.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교회사, 중국 교회에 대한 기독교 간행물, 기도편지를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와 언어 준비

교사로서 중국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하게 될 때 그들의 문화,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간관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교사 선교사들이 중국인들에게서 언어, 문화, 지역 관습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조급하지 않은 태도로 신중하게 중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훈련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장기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기초적인 중국어 습득 단계-읽기, 쓰기, 말하기를 넘어서야 한다. 우리는 또한 중국어로 성경을 읽는 법, 성경 진리를 전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국에 오래 남아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중국성도들과의 심도 있고 풍부한 교제 또한 제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문적 · 기술적 준비

앞에서 말했듯이 교사로서의 성실성과 신뢰성이 사역의 특징이어야 한다. 특히 자기 분야에 철저한 전문인으로서의 철학을 가진 교사들을 이들은 존경한다. 중국이 현재 필요로 하는 요구를 충분히 채워주고 남을 사람이어야 장기적인 사역이 가능하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써 빠른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이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와서 인재를 양성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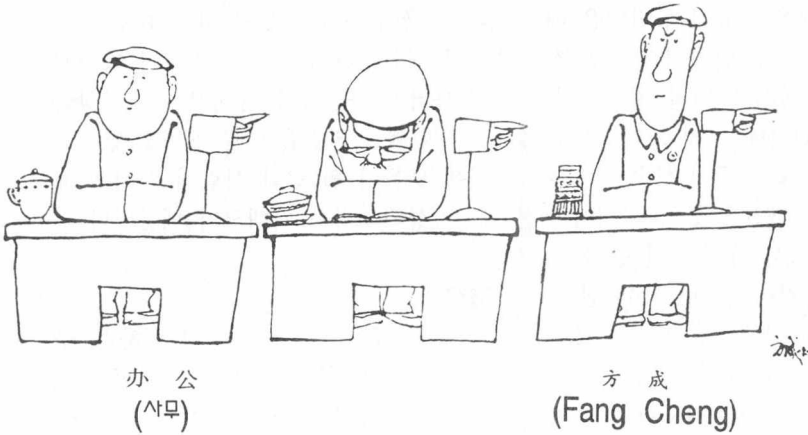
“저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5)

교사 선교사는 어느 학교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잘 가르치는 자이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강단에 보내신 것이다.

그리스도인 교사로서의 직업이 단순히 중국에 남아있기 위한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맡은 교사로서의 소명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열의, 아울러 중국과 중국 영혼에 대한 사랑,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의 사역은 그가 전문인이건, 목회자이건간에 엄청난 자기 부인과 희생을 요구한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급히 들어갈 생각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교사로서의 달란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국에서의 교사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소명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국인 학생들과 동료교사들 사이에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력을 소유한 자여야 한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중국만평

편집자주:이번 호부터 “중국 만평”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의 유명 만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재치있고 풍자적인 그림들을 통해 독자들의 현대
중국에 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공무원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을 고집는 내용.



“주여, 나를 보내소서!”

중국선교 사역자 훈련과정을 마치고

陳詠祈

중국선교 훈련과정

1993년 중국선교신학원은 홍콩 마완(馬灣)에 <중국선교 훈련과정(中國宣敎訓練課程)>을 설립하였다 -약칭 선훈(宣訓).

선훈(宣訓)의 설립목적은, 신학훈련을 바탕으로 중국에 헌신하는 운동을 선도하는 것이다.

선훈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 과정 중 절반은 학교에서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는 실제적인 전도, 제자훈련, 말씀묵상, 성경 및 신학을 교육받는다.

나머지 절반은 직접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의 신도들에게 그동안 교육받은 내용을 공급한다. 즉 훈련과 선교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조국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중국 땅을 밟도록 한다. “1년을 중국에 헌신하며 회어진 영혼을 추수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이 선훈의 구호이다.

처음 시도된 1년제 선훈과정은, 1994년 6월 풍성한 성과를 거두고 마쳤다. 6월 29일에 행해

진 수료식에는 수료생, 선훈 책임자와 강사, 그리고 수료생 가족, 목회자 및 친지들이 참석하였다. 이 날 훈련생들은, 1년 간의 경험을 서로 나누었는데, 특히 자신들이 받은 교육과 선교의 결합에 대한 체험들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사실 이 훈련에 참여했던 훈련생들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었다. 특히 입학할 고려하기 전부터 힘겨운 갈등을 겪어야 했다. 경제적인 압력은 일종의 도전이었다. 그들은 직업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했을 뿐 아니라, 추가로 일정한 액수의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1년 간의 훈련비, 생활비 및 단기 중국선교여행 등에 필요한 비용이 홍콩달러 3만 원(한국돈 330만 원) 정도이다. 이외에도 갖가지 압력 가운데서 사탄이 그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훈련생 모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타 여러 가지 시련과 공격들, 그리고 수많은 핍박 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사히 지나갔다. 일 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한 훈련생이 소감을 통해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일 년 동안 그녀를 부요함이나 궁핍함에 처하지 않게 하시면서 아무런 부족함도 없게 하셨다고 한다.

더욱이 그들은 매번 중국 단기선교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 여행을 갈 때마다 사탄은 떠나기도 전부터 미리 훈련생들이 병에 걸리게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단기 선교사역은 갈 때마다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훈련생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깊은 인상을 남긴 선교여행



선교 훈련과정 중의 현지답사를 통해 훈련생들은 중국 및 중국교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대부분의 훈련생들은 선훈의 훈련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물론 개설된 지 1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차차 개선될 것이다. 선훈의 책임자와 강사들의 검토를 거쳐, 커리큘럼이 더욱 완벽히 개선되어 장래 훈련원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일 년 동안 참여한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상 깊고 유익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훈련생들에게 물으면 너나 할 것없이 중국 단기선교여행이라고 말한다.

선교여행은 그들로 하여금 중국 교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지식 그리고 뜨거운 감정을 갖게 하였다. 훈련생 중에서는 이

미 중국 교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몇몇은 중국선교의 비전을 갖고 중국 복음사역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중국 교회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상태였다.

1년 간의 이론적인 학습과 실질적인 현지답사를 거치면서 자연히 중국 교회에 대한 이해가 증폭되었다. 특별히 중국에서의 제자양육 경험을 통해 실제적인 접촉을 하면서, 중국의 형제자매들이 성경말씀과 영적 생명을 갈망하는 간절함을 보았다.

한 자매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국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믿음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처한 환경이 어떠하건, 눈 앞에 놓인 핍박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바라볼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성도들의 이와 같은 간증은 그 자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비록 홍콩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누가 집권하든지간에 자신도 중국의 성도들처럼 두려움 없는 정신으로 홍콩의 미래를 맞으리라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중국에서 몇몇 영적 지도자들과의 만남도 갖기도 했

다. 그들 중에는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목자도 있었다. 술한 고난과 신체적인 질고를 겪으면서도 오히려 기쁨에 충만한 중국의 지체들의 모습은 훈련생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중국의 형제자매들이 진리에 갈급한 것을 보고 있노라면 감동과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부족함을 대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그들의 필요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성경, 기독교 서적과 무엇보다도 신도들을 양육할 목자가 부족하다. 훈련생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미 10년 동안 한 권의 주석도 없이 목회를 해오던 중국의 한 전도사는 성경주석(啓導本)을 간절히 소원하였다. 이를 본 훈련생 한 명이 자기의 주석을 그녀에게 주었다고 한다.

훈련생들은 이를 보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홍콩, 대만이야말로 각종 자료 및 성경과 기독교 서적이 풍부한 곳임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는 이를 더욱 감사히 여기며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여 준비된 일꾼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회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중국에 들어가 양육사역을 하고 현지 교회를 탐방하는 경험은 훈련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일이다.

이론과 선교의 결합은 선혼의 커리큘럼이 갖는 큰 특징이다. 실제적으로 훈련생들에게 중국 교회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그들의 중국선교 비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에 가서 교회를 직접 체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 중국 현지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 단기선교에 참가한 모든 훈련생들은 중국의 영혼들이 이미 회어져서 추수할 시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훈련생은 과거 1년 동안의 경험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네 폭의 환상을 보여 주셨다고 했다.

“하나의 환상 중에 한 무리의 외국 선교사들과 중국인들이 보였어요. 중국에 파송된 외국 선교사들은 우선 몇 년 동안 중국어를 배우며 중국문화를 습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디 있죠? 홍콩인들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중국에 가까이 살고 있고, 중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중국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언제 중국의 복음과 현지의 필요에 참여할 것입니까?”

이러한 탄식은 결코 이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다른 훈련생은 내몽고에서 사역하는 외국인 선교사를 만나고 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

하시는 것을 느꼈다. “너는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였느냐? 저들보다 많느냐?”

이것은 그로 하여금,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가운데 도전하고 부르시는 길이며, 자신이 요동치 않고 꿋꿋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긍정하게 해주었다.

한편, 훈련생 모두가 스스로 자원하여 선교훈련 과정에 들어오긴 했지만 뒤에서 후원하는 사역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에 공감한다. 과거 일 년 동안 많은 훈련생들이 가족과 교회 목회자, 지체들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들은 훈련생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중보기도를 해왔다.

훈련생들이 중국으로 떠날 때마다 그들의 가족과 교회의 지체들은 끊임없는 기도의 지원을 하였다. 이것은 마치 영적 전쟁에 필요한 탄환과 같아서 훈련생들이 자신감을 얻고 승리하게 하는 데 강력한 힘을 부여해주었다고 한다. 중국선교 사역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선에서의 전투 못지않게 후방에서 후원하는 팀사역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중보기도의 용사들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들이다.

끝이 아닌 시작

중국복음회(China Ministries International)의 총회장 조나단 차오 목사 역시 이번 수료식에 참여하였다. 그는 어떠한 수료도 결코 끝일 수 없으며 다만 또 다른 배움의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차오 목사는, “과거 1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훈련의 기초로 삼아, 앞으로 교회나 중국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더욱 큰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라고 훈련생들을 권면하였다.

바로 이것이 졸업하는 모든 훈련생들의 고대하는 바이다. 1년의 교육을 마친 것에 만족하

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중국의 성도들과 접촉하면서 진리에 갈급해하는 그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난 후, 훈련생들은 스스로를 성경의 진리 위에서 더욱 무장시킬 것이다.

한 훈련생은 중국에서 10대의 형제 자매들이 어린 나이에 돌보고 전도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들 젊은 청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무릅쓴 채 충성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성령에 의지하여 훌륭하게 설교하는 은사가 참만 하였다. 하나님은 그 훈련생에게, “중국 성도들의 영적 생명이 끊임없이 장성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고 있는데 너는 과연 어떠한가? 라는 깨우침을 주셨다고 한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먼저 충분히 자신을 준비한 후에 비로소 중국 현지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는, 과거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연단하셨듯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도 명확히 인도해주실 것을 믿고 있다.

많은 훈련생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 장래의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준비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는 신학을 더 공부하여 장기적인 중국선교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였다.

이와 같은 수확 이외에도 선훈의 학습은 훈련생들의 비전을 더욱 명확하게 하며, 이와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를 더욱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한다. 매번 이루어진 단기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연단하셨고 그들의 장점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셨다.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빔어가시면서 성장하도록 인도하셨다. 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생의 믿음을 연단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셨다.

단기선교를 갈 때마다 훈련생들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 보호하심이 늘 그들과 함께

대표적인 중국의 가정 교회 지도자 왕명도 목사와 사모, 그의 동역자들



했다. 동시에 훈련생들 사이에도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다.

1년 동안 선훈의 강사, 훈련생들 모두가 함께 지내면서 이론 하나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다고 한 훈련생은 말한다. “훈련생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먼 외국에서 홍콩까지 온 이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개개인에 맞는 각각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중국선교를 향한 운동

훈련생들의 나눔을 통해, 선훈의 교육과정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경험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지만 얻어진 수확은 100배

이상이지 않겠는가? 그들 모두 이번 1년 간의 경험이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선훈은 많은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매우 값진 교육의 기회이다. 이 훈련과정이 사람들에게 큰 흡인력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 마지 않는다. 홍보를 제대로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수가 미리 꽉 찼었던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우리는 선훈 과정이 장래에 보다 큰 발전을 거두어 보다 많은 성도들이 훈련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회의 대표 여준서(余雋瑞) 목사가 언급한 것처럼 선훈이 하나의 훈련과정으로서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교회 대부흥의 시

기에 중국선교운동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지난 1년 동안 훈련에 참가했던 강사들과 훈련생들이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협력하여 홍콩 교회의 선교 훈련 운동을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이 선교훈련 운동의 후에는 막강한 중보기도 용사들이 필요하다. 당신도 그 기도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

편집자 주:

위 글은 『<中國與福音>, 2期, 94.9/10월』에 실렸던 <在恩難與恩典中學習>을 번역한 것으로 홍콩 中國福音會(CMI)의 승인을 얻은 것이다.

번역/ 백송진 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정기구독 신청안내

● <중국을 주께로>의 구독은 중국선교의 첫걸음입니다.

중국선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 구체적 헌신의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전 중국을 주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구체적 헌신의 하나가 바로 <중국을 주께로>를 성실히 읽는 것입니다.

● <중국을 주께로>를 받아 보시려면,

- ▷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정기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이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중국어문선교회(TEL. 592-0132, 533-5497)로 연락을 주셔서 정확한 주소와 성함을 알려주시면 지로용지와 함께 우송해 드립니다.
- ▷ 대금은 1부당 3,500원이며 (1년 구독은 21,000원), 보내 드린 지로용지의 '기타'란에 '회지대금'이라고 쓰신 후, 은행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 중국어문선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회원에게는 회원 1인에 한하여 1부씩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선교회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세상은 뛰는데 선교는 긴다?

선교의 정보화

이영재

우리는 정보사회 이전의 사회를 산업사회라 불러왔고, 미래를 고도의 정보화 사회라 규정짓고 있다.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상징을 “증기 기관차”라 한다면, 정보사회의 상징은 “컴퓨터”이다. 산업혁명에 의한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하부구조의 정비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의 전개를 가능케 하였다. 정보혁명에 의한 컴퓨터의 성능향상,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한 정보 인프라의 정비로 정보사회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사회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창출의 대량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정보를 이용한 가치생산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이다.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일인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보사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정보폭증(Information Explosion)이 일어난다.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보기술, 정보수단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것이 엄청난 힘으로 파급된다.

둘째, 정보과학,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진보하여 다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새로운 정보기술은 사람이 하던 지적 활동이나 육체적 활동을 대신해 준다. 또한 새로운 기술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체제 또는 제도를 창조하는 데 이바지한다.

셋째,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정보산업에의 투자와 산출, 정보산업의 조직 등이 다른 산업의 경우보다 지배적인 위치에 있게 된다.

넷째, 생산 및 경영관리의 특성들이 탈규격화, 다양화, 탈전문화, 탈집중화, 분권화되어 간

다.

다섯째, 경제적 생산활동에서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되고,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등 자동화가 촉진되어 전통적인 공장의 개념, 사무실의 개념, 유통판매망의 개념이 달라지고 노동의 개념도 달라진다. 수입을 얻기 위한 노동 이외에 ‘자주적 노동’, 즉 삶의 보람을 위해 사회적 역할에서 일익을 담당하려는 노동의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섯째, 인간의 욕구가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가치추구가 커진다.

물질적 풍요로 하급욕구들이 감소되는 반면, 지적, 창조적 활동을 통한 자기실현의 욕구 등 고급의 욕구들이 부각된다. 그리고 보다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고 인간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늘어나는 정보수요도 다양해진다. 즉, 획일적인 정보수요보

다는 개별적이고 선택적인 정보 수요가 늘어난다.

이러한 특징들을 지닌 정보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정보화는 산업면에서 생산성의 향상, 자원절약,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효과를 지닌다. 더 나아가 정보화는 개개인의 생활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가치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컴퓨터기술의 발전은 특히 90년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 기업생산성 향상으로부터 개인의 생활패턴은 물론 취미와 오락 등 사회전반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급속하게 변화해가는 정보사회로 말미암아 지역의 정보화, 기업의 정보화, 가정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영향은 선교활동에도 미치게 되어 선교의 정보화에 점차 많은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선교의 정보화란 무엇인가? 선교 정보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선교를 하는 조직체는 사명과 미래상(Vision) 등으로 이루어지는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전략과 '무엇을'을 의미하는 목표가 서로 연관성을 가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이란, 선교활동의 전반적인 범위를 결정하고, 그 범위 밖에 있는 환경에 따라 선교조직

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조정, 지원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전략은 선교조직체의 외부환경과 적합성을 이루어야 하고, 조직체 구성원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선교조직체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략을 실현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보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기술은 선교행정 업무처리 방법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이나 조직구조 그리고 구성원의 행동양식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교조직체는 전략적 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선교의 정보화란 선교정보자원을 수집, 가공, 저장, 생산, 전달, 교환하는 데 정보기술을 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집은 자료의 입력활동을 가리키며, 가공은 자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저장을 뜻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검색해서(생산), 네트워크를 통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즉, 선교에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위와 같은 전략과 목표없이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고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것이 선교의 정보화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선교의 정보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첫째가 정보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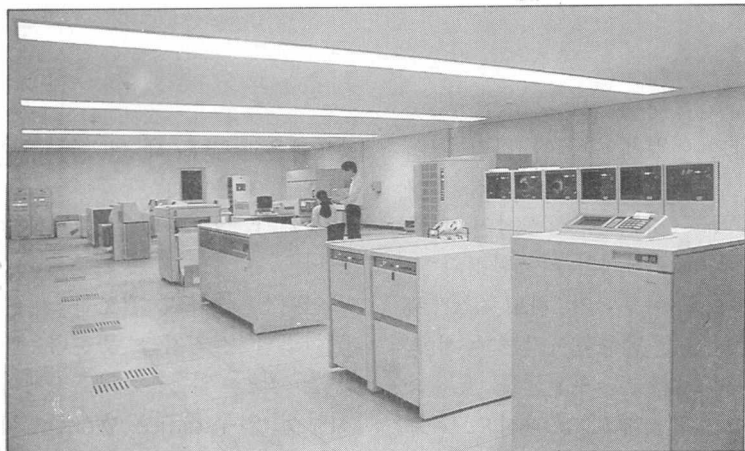
어떠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 서비스할 것인가를 뜻한다. 대상을 찾는 일은 선교조직체의 사무실 업무(Office Work)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무실 업무는 사무작업(기록처리), 의사전달, 의사결정의 세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사무작업은 선교조직체의 기본업무활동에 관한 업무정보의 발생, 가공, 전달, 보관, 활용, 보존, 폐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무작업은 계산, 참조, 분류, 전기, 정서, 이동의 단위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서처리분야(작성, 인쇄, 복사, 배포, 수령, 축적, 검색, 폐기 등)도 사무작업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의사전달은 회의, 협의, 전화 등의 수단에 의해 필요한 정보가 전달 및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의사결정은 사무작업이나 의사전달의 도움을 받아 제공받은 가공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개선책을 작성하고 평가, 선택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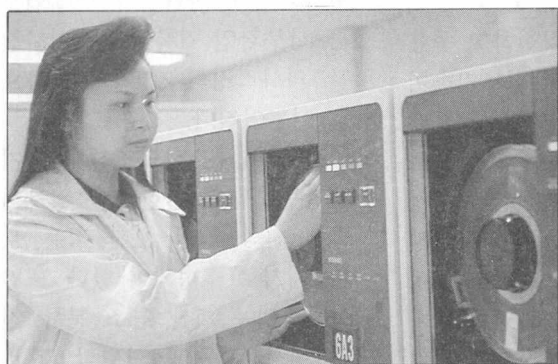
사무실 업무를 분석하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고,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며 교환해야 하는가를 찾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우리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냐가 곧 정보의 대상이 된다.

둘째로 정보활용이다.

정보를 활용하는 주체를 파악



정보통신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교환은 효과적인 선교의 핵심이다. 선교의 정보화가 실현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이 정보기술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해야 한다. 선교사, 교단, 타선교 단체, 교회, 조직체 내부의 구성원 등이 활용주체이다. 활용주체에 따라 제공되어질 정보가 분류된다. 정보는 최종 사용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사결정자는 자기의 경험, 직관, 감각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여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과학적 의사결정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기위해서 의사결정자는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의 경험을 더하게 된다.

셋째가 정보수집이다.

정보의 수집은 크게 발생처(제공처)의 위치를 중심으로 내부 발생처와 외부 제공처로 나누어 각각의 정보 원천을 나열하여 정보를 수집함을 의미한다.

정보의 내부발생처는 선교조직체에서 생성되는 정보와 각 부서에서 수집한 외부정보 등을 제공한다. 정보의 외부 제공처는 타선교단체, 선교사, 해외기관, 교회 등이며 각 제공처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넷째가 정보유통이다.

정보의 유통이란 정보의 수집, 저장, 제공의 제과정을 말한다. 즉 정보의 발생처에서 정보의 저장처로 정보를 모으고(수집), 모아진 정보를 분류하여 보관하고(저장), 저장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함(활용)을 의미한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정보교환(전달)이다. 어떠한 거리에서도 빠르게 전달, 교환되어야 한다. 정보전달 체계는 정보변화 추이보다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라 하더라도 적시에 전달되지 않으면 그 정보는 사장되거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정보의 변화추이는 상황에 따라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변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속한 정보교환(전달)은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핵심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을 우리는 정보통신이라고 한다. 정보통신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교의 각 부문에서 지역적, 시간적으로 거의 제한없이 정보의 신속한 전달 및 교류를 가능케 한다.

한국 미전도종족입양본부의 정보교환소 예를 들어보겠다. 본부의 사명은 미전도종족의 복음화이며, 전략적으로는 한 교회가 하나의 미전도종족을 입양

시키도록 운동(Mobilization)을 전개하는 것이다. 본부의 업무는 교회가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일, 선교정탐원을 훈련시키는 일, 그리고 미전도종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로 구성된다. 따라서 본부의 정보교환소는 정보의 대상으로 종족에 관한 정보를 설정하였다. 정보교환소를 통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주된 주체는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의 미전도종족을 입양시키기 위해 언어, 문화, 관습, 종교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입양할 미전도종족을 선정하게 된다. 물론 선교사, 타 선교단체도 미전도종족 정보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할 것인가? 우선 미국에 있는 선교기관인 "Cleaning House"로부터 수집하였다. 그리고 타 선교단체, 잡지, 회보, 신문 등 더 나아가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 선교정탐원으로부터 미전도종족 정보를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의 유통을 위해서 어떠한 정보기술을 도입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일이다. 정보교환소는 퍼스널 컴퓨터 486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현재 15,000여 종족의 요약된 정보가 입력되었고, 각 종족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입력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스캐너를 이용하여 종족이 살고 있는 위치지도도 입력되고 있다. 이

를 위해 8명의 연구원이 파트타임으로 봉사하고 있다. 앞으로 조만간 본부 내에 자원 공유를 위해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할 예정인 동시에 하이텔, 천리안 등을 통하여 미전도종족 정보를 교회 및 타선교단체에 교환, 전달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계의 통신망 인터넷(Internet)와도 연결하여 외국의 해외선교기관이나 해외 선교사들과도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선교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대상, 정보활용, 정보수집, 정보유통의 네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 단계는 분석하지 않고 정보유통 측면에서 단순히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고 통신을 한다면 비효율적이기 십상이다. 그리고 선교의 정보화는 반드시 선교조직체의 전략이나 목표와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성공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선교의 정보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정보기술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선교조직체는 선교사, 선교중심으로 변신(Missionary/Mission Driven Transformation)을 해야만 한다.

이명재/박사, 한국 미전도종족입양본부
정보교환소 소장

선교도서 안내

▶ 선교도서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협력기구)/3,000원
2. 중국선교-교회의 대장정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3,500원
3. 중국선교핸드북(두란노서원)
/4,800원
4.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1,500원
5. 중국어성경 번역소사/1,500원
6. 神愛世人(中文)/ 2,000원
7. 만 남/ 2,000원
8. 전도중국어(漢語傳福音)/1,500원

▶ 교재

1. 使徒信經, 主禱文 외/1,500원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1,000원
2. 經文背誦/1,500원
經文背誦 Tape/1,000원
3. 我的第一本聖經/2,500원
我的第一本聖經 Tape/1,000원
4. 사복음서 낭독 tape(12개)/12,000원
5. 信仰讀本/5,000원
信仰讀本 Tape/1,600원
6. 中國語신약성경(한어병음)/8,000원
7. 중국어신약테이프(25개 한어병음)
/20,000원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담당: 김바울 간사
(전화: 594-8038, 535-4255)

중국의 벼락부자와 개

강성광

중국에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의 사람들이 최소한 8천만 명이나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일년 총수입은 200원(인민폐) 미만이다. 그러나 이들과 정반대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근래 중국의 대도시들 가운데 새로운 기형적인 과소비 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 한 마리에 수십만 원(한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애완견을 구입하여, 하루 개 식사비만 100원(인민폐) 이상을 쓴다고 한다. 특히 94년도가 개의 해였기 때문에 애완동물의 주인공 격인 개 열기가 더욱 뜨거운 듯하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는 중국 사회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개 기르기 열풍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그 중에서 개를 ‘제일 많이’ 기르는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에는 약 1억 5천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한

다. 기르는 목적도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애완용으로 기르는 경우가 많다. 개 가격도 몇십 원부터 몇십 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개 기르기 열풍이 일자 개에 관한 여러 업종도 크게 발달하고 있다.

첫째, 개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해에는 백 마리 이상의 애완용 개를 기르는 업자가 약 천 명 이상 된다고 한다. 호남성에서 애완견을 사육하는 ‘시에(謝)’씨는 2년 전, 40마리의 강아지를 사고 8칸의 개집을 마련하여 돈을 벌 계획을 세웠다. 이 때, 그가 돈을 벌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1년 만에 3만 4천 원(호남성 농민의 1년 수입은 500원 내외)의 순수익을 올려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개를 길러라”다.

둘째, 개 시장의 흥기(興起)이다.

사천성 성도(成都)시에 있는 한 개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교역량도 제일 많을 시장이라고 한다. 국내



및 해외 각지의 유명하고 비싸며 좋은 품종의 개와 고양이들이 이곳으로 몰려든다. 이곳 외에 광둥성 동관시의 개시장 등에서 사고 팔리는 개, 고양이의 가격은 보통 수준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일반 서민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격이다. 예를 들어 현행 시장 가격을 보면, 순종 북경견 새끼는 마리당 8천 원(한화 80만 원), 큰 개는 5만 원(한화 5백만 원) 정도이고, 장모사자견(長毛獅子犬)은 새끼가 8천 원, 큰 개 6만 원 등이다. 이것은 일반시장의 가격이고, 일부 지방에서는 체형이 특별히 좋고 고급 순종인 경우에 5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리는 애완동물도 있다고 한다.

20~30만 원대도 보통이다. 근래 성도시장에서 매매된 서시견(西施犬) 한 마리의 가격은 38만 원이었다고 한다. 또한 최근 북경에서 50만 원짜리 개가

거래되기도 했다. 이것은 중국의 일반 중소기업의 1년 순이익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이다. 얼마 전 광주(廣州) 시내 몇 곳에 잃어버린 개를 찾는 광고가 붙어있었는데, 현상금이 1만 원이었다. 중국에서 사람 찾는 현상금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걸어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

셋째, 개를 위한 서비스업의 흥왕이다.

일반 가축병원이 아닌 ‘애완견 병원’이 각 도시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어떤 도시에서는 300개가 넘는 개병원이 간판을 걸고 영업중이다. 운남성의 곤명시에만도 각종 애완용 개 진료소가 30개가 넘는다고 한다.

얼마 전 한 도시의 병원에서 환자가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적이 있다. 급성 맹장염에 걸린 이 환자는 병원에 달려가 급진을 요구했지만, 개를 특진

하느라 시간을 끈 의사 때문에 복수가 터져 위험에 처할 뻔 하였다.

광주시의 어떤 대학에서는 애완용 개를 소유한 상당수의 회원이 등록된 소위 ‘개협회’를 설립하고, 갖가지 활동, 즉 개 사육지식, 질병 예방 등을 위한 특별 강좌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런 고급 애완견을 기르는 데 드는 경비도 상상을 초월한다. 심천에 사는 사업가 오(吳)씨는 두 마리의 스위스산 성백견(聖佰犬)을 기르는데, 매일 개 식비로만 100원(인민폐) 정도가 든다. 개들은 외국에서 수입한 캔 종류의 음식을 먹고 고급 광천수를 음료수로 마시며, 심지어 목욕샴푸조차 외제수입품을 사용한다고 한다.

애완견 열풍의 원인

이처럼 비싼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왜 그들은 개를 기르는가? 중국에서 이런 기형적인 동물 애완족이 신속하게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고독감과 공허감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최근 급작스럽게 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 그들은 공통적으로 깊은 정신적 공허감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한 부인은, 2년 전 남편이 호주로 돈 벌러 간 이후, 자주 깊은 고독감에 빠졌다. 그 후 친구의 권유로 8천 원을 주고 산 수입종 말티즈 애완견을 친구처럼, 딸처럼 키운 이후로는 전혀 고독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비싼 개를 사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사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活得太累了)’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호용이다.

이러한 목적은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를 획득하고, 집안에 여러 귀금속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치안 상황에서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비싼 경호견을 기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오락 및 과시용이다.

많은 벼락부자(중국에서 ‘폭발호(爆發戶)’라고 지칭하는)들은 몸에 귀금속을 주렁주렁 달고 한 끼에 수백만 원(한화)하는 산해진미를 먹으며, 하룻 저녁 수백만 원의 유흥비를 써도 자기들의 부를 다 과시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양영화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다니며 껴안고 같이 자는 것을 보고 이것을 모방하였다. 몇만 원(인민폐)씩 주고 명견을 구입하여 부를 과시하며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심천을 비롯한 중국의 각 대도시의 거리 혹은 고급 백화점 등에서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명견을 끌고 혹은 안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북경의 한 갑부는 금색 곱슬털 사자견 한 마리를 16만 원에 사서, 이름을 “사비여사(莎菲女士)”라고 짓고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서 키웠다. 사람들이 먹는 식사를 주고, 에어컨이 설치된 작은 독방에서 키우며 금사슬 목걸이를 달아주는 등 온갖 사랑을 쏟아주며 같이 살았다. 그러다가 이 개가 병이 들어 죽자, 고급 관을 사고 묘지를 구입하여 초호화판으로 장사를 치러 주었는데 그 경비가 10만 원(한화 1천만 원)이 넘었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 중국에 1년 총 수입이 2백원 미만인 사람들이 1억 명 이상이다. 여전히 8억에 이르는 농민의

1년 수입은 연 840원(94년 10월 통계)밖에 안 된다. 초·중학교에 다녀야 할 어린이들이 적게는 몇십 원, 많게는 몇백 원이 없어 학교 밖에서 울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엄청난 빈부의 격차는 기형적인 사회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기형적인 사회 문화에 정신적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북경시에서 94년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개에게 물려 다친 사람이 5천명 이상이고, 광둥성 광주시에서도 93년 1월부터 9월까지 1만 4천 명이 개에 물렸다고 한다. 심천시에서도 93년 1월부터 9월까지 1만 4천명이 개에 물려 부상했고, 93년 10월 한 달 동안 4명이 광견병으로 사망했다.

이처럼 중국에서 개에 물려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람이 매년 100만 명이 넘고, 광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수만 명 된다고 『北京晚報』(94. 10. 3)는 한

관방의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위와 같은 모든 현상은 중국 사회의 식(社會意識)에 있어서 어떤 “공동(空洞)”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민중의 보편적인 정신상의 공허와 사회의 향락주의의 만연이 주요 원인이다. 이런 것들이 외국의 애완동물열과 현저히 다른 점이다.

참고문헌

중국 『深圳特區報』, 1994.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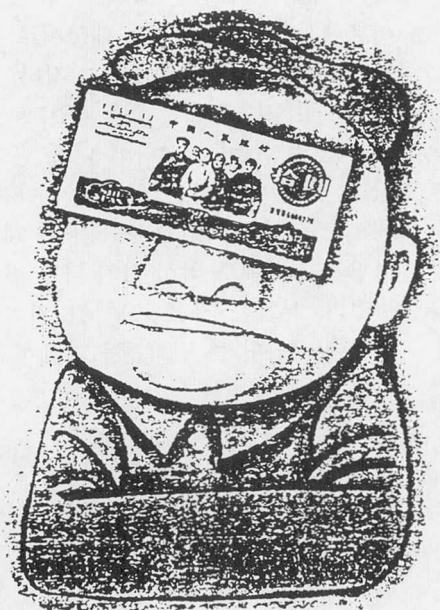
『 ” 』, 1994. 2. 14.

홍콩 『明報』, 1994. 4. 20.

『 ” 』, 1994. 10. 13.

『 ” 』, 1994. 10. 19.

강성광/ 중국 선교사



흔들리는 중국 지식인의 심리- 그 다섯 가지 변화

艾眞

1979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 개방은 이미 15년의 세월을 걸어왔다. 중국인이거나 혹은 중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15년 간의 변화에 대해 경이로움을 가질 것이다. 그 변화는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이다.

유형적 변화는 연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광둥성의 심천(深圳)은 일개 작은 어촌에서 350만 인구의 대도시로 변했다. 삼자 교회는 제로에서 시작하여 육, 칠천 개소의 교회로 회복되었다. 가정 교회는 장강(長江) 남북에 더욱 널리 퍼졌다. 무형의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생성되고 자라났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심리에도 역시 각기 다른 변화가 있었다. 본문은 지난 15년 간 지식인의 심리에 나타난 큰 변화들을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시들해진 관계(官界)진출 열기

중국에는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다. 바로 ‘배우고 남는 힘이 있으면 벼슬을 한다’는 것이다. 벼슬을 한다는 것은 독서인의 가장 좋은 활로이다.

이로 인해 오직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특별한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신중국이 도래한 후 중국은 이 전통을 제도화하고 아울러 그것을 모든 지식인들에게까지 확대시켰다. 대학 졸업생이라면, 공문서에 중대한 실수를 기록하지 않는 한 예외 없이 자동으로 국가 간부가 되어 최하급 21급 간부직부터 시작한다(최고급은 국가 주석으로 이는 1급에 속한다. 13급까지를 고간(高幹), 즉 고급 간부라고 칭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가 간부’란 말할 수 없는 매혹력을 갖는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보장되는 철 밥그릇(鐵飯碗)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농민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가장 큰 바람은 바로 그들이 국가 간부가 되어 빈곤과 낮은 사회 지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국가 간부가 되기 위한 정상적 통로가 바로 대학 진학이다. 그러므로 「관본위(官本位)」의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국 지식인의 심리를 좌우했다.

중국은 이 제도를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간부에 대해 한층 억압적인 규정

을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잘못을 범해서 해고당하거나 사직(辭職)하게 된 간부는 평생 다시는 이 간부 조직으로 되돌아 올 수 없다는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간부의 사직은 여간해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사직이라는 것은 생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간부는 상급자의 말에 대해서 명령하는 대로 절대 복종해야 할 뿐 아니라, 감히 한 치의 다른 의견도 내세울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의 영도에 불복종하는 것으로 비추이고, 이것은 곧바로 당을 배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결국 당적을 박탈당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 어떤 간부가 감히 이러한 모험을 감행하겠는가? 이 제도하에서 지식인은 관직을 위해, 아니 밥그릇을 위해서 점점 더 독립적 사고(思考)를 상실케 된다.

15년 간의 개혁 개방은 「관본위」 제도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했다. 1982년 초, 호남사범대 외국어과의 한 졸업생이 사직함으로 말미암아 「관본위」 제도의 맥이 끊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후부터 대학 졸업생 가운데 국가에서 분배해 준 직장을 마다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했다. 그들은 더이상 국가 간부가 되는 것을 유일한 진로로, 혹은 가장 좋은 진로로 보지 않게 되었다. 많은 지식인들은 관직 생활을 하면서 이미 처장급에 도달했지만, 그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또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쥐꼬리만한 봉급 때문에 굶질거리지 않아도 되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통제에 여론에 반기를 들다.

「여론일률(輿論一律)」의 변화

이전에 지식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국가

간부였다. 나랏밥을 먹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가가 정해 놓은 논조에 따라 말을 해야 했다. 사석에서나 공개 석상에서나 이것은 늘 동일했다. 서서히 지식인들의 사상은 질식되어 침체에 빠지고, 간혹 다른 말을 할라치면 빠르게 압제 당한다. 우세했던 「관본위」 제도가 중요한 이후부터는 점점 더 많은 지식인들이 감히 옳은 소리, 마음에 담아 두고 있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더이상 철 밥그릇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에 대한 지식인들의 의식 가치관의 반역도 점점 분명히 드러났다.

작년 두 사람의 문인이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논쟁의 주요 원인은 그들이 일종의 반역 의식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그 중 한 명인 왕삭(王朔)은 공산주의 이상에 대해 조롱을 퍼부었고, 허무주의로써 정부 당국이 수십 년 간 지녀온 의식을 부정했다. 그는 모든 가치관에 대해 신랄한 풍자와 조소를 가했다. 사실 그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가치가 황당무계하고 가소롭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한 명은 가평요(賈平凹)로서 이미 소설 『폐도(廢都)』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몇 십 년 간 한 세기를 살아온 중국인들의 생활은 환멸로 가득 차 있다고! 중국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수도(首都)’는 단지 폐허의 도시일 뿐이라고! 중앙 정부는 이미 명령을 내려 『폐도(廢都)』를 재판(再版)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앙 정부가 지하 인쇄 공장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해적판 『폐도(廢都)』는 끊임없이 시장에 유포되고 있다.

이론계(理論界)의 지식인들 역시 힘을



1950년대 민간을 시찰하는 모택동과 주은래(가운데), 주덕(우). 그동안 언급조차 금지되어 왔던 중국 내부의 권력투쟁을 다룬 연구서들이 최근 출간되고 있다.

모아 수시로 「언론 자유」의 외침을 발표했다. 최근 대표작으로 나온 『좌경분자 방어 필독서(防「左」備忘錄)』가 있다. 이 책은,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본가 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다-p.81”라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으며, 모택동 사상을 선전하는 문장을 일컬어 “천박하고 졸렬하다-p.440”라고 비난한다. 심지어 대만의 친공(親共)인사인 안원숙(顏元叔:대만대학 외국어과 교수)에 대해서도 호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하는 지식인들의 예도 있다. 중공 내부의 권력투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던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두 권의 책이 있다. 『붉은 장막 아래 권력투쟁(紅色帷幕下的較量)』과 『이색분자 대 숙청(蘇區大肅反)』이 바로 그것이다. 앞의 책은 모택동(毛澤東)과 왕명(王明)의 권력투쟁을 다루고 있으며,

후자는 모택동이 30년대에 일어난 이색분자들을 어떻게 숙청했는지에 관해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중공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도전장을 던진 이들도 있다. 허량영(許良英), 장항항(張抗抗) 등은 전국인민대회회의에서 직접 강택민(江澤民), 교석(喬石)에게 글을 올려, 체포된 정치범을 석방하고 인권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종교아편론」의 중독에서 벗어남

정통적 공산주의는 줄곧 종교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론을 표방해 왔다. 즉 종교는 약자의 몽둥이이며 인류가 무지몽매했던 시기에 발생된 사유 활동의 산물이며, 생산력 저하의 표현이고, 최후에는 착취계급에게 이용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객관 조건은 바로 종교가 소멸되는 객관 조건으로서, 생산력이 전대미문으로 향상되고, 누구

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누릴 수 있으며, 계급은 이미 청산될 것이라는 등이다. 결국 공산주의와 종교는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이 정통적 공산주의의 요지이다. 그러므로 비판을 좋아하는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종교에 대한 비판은 기타 모든 것에 대한 비판의 전제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종교가 특히 기독교를 가리킨다는 것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일찍이 모두 이러한 관념의 옹호자였으며, 심지어 반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주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 이러한 상황은 이미 크게 달라졌다. 종교성을 갖는 것은 인정미의 자연 발로로 여겨진다. 종교적 장식품을 달고 다니는 것이 이미 하나의 유행이 되었고, 종교 간행물이나 서적 등을 읽는 것은 지혜자의 표현이다. 서점가에 갑자기 불교 경전이 범람하고 있으며, 『주역』 연구는 오랫동안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은 삼자(三自)에서 인쇄된 8원짜리 성경을 몰래 입수하여 50원의 가격을 매겨서 일반 서점에 내놓았는데, 뜻밖에도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했다.

모택동은 여러 차례 종교에 대해 비꼬는 표현을 하곤 했지만 그러나 그 역시 전투기간에 점괘를 뽑아 점을 쳤던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흥미진진한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다.

호남(湖南)에서 행해진 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밝혔다.

「성탄절 밤, 장사시(長沙市)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했던 것이다.」 비록

「예수와 마르크스 모두 인류에게 좋은 가르침을 준 사람들이지만, 막상 비교한다면 그들(청년 지식인)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버리고 예수의 신도가 되기를 원한다.」¹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상해 과학원에서 출판한 수준 높은 잡지 <사회과학(社會科學)>은 ‘어떻게 사회를 치리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을 실은 적이 있다. 그 글에서는 “중국만큼 특색 있는 사회의 통제 체제는 법치, 정책, 기율, 도덕, 여론, 종교의 6가지 통제 수단의 종합체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² 이러한 관점은 가히 전세계의 동일한 관점을 획득할 만하다.

「권력 숭배」에서 「금전 숭배」로

오랫동안 대륙에서 힘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치권력이었다. 경제·문화 모두 정치 권력의 비호하에서만 생존할 수 있었다. 크게는 삼자교회(三自教會)로부터 작게는 일개 대학 서클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의 정관(定款: 조목별로 정한 규정)에는 예외 없이 「본 조직은 중국공산당 영도하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정치권력의 종속관계이므로, 정치권력은 당연히 지식인들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

개혁 개방은 이러한 단일적인 숭배를 파괴했다. 등소평의 「일부로 하여금 먼저 부하게 만들자」란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변했다. 먼저 부유하게 된 사람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란 것이다. 벼슬길이란 본래 좁은 길이면서도 돈 버는 것만 못하며, 돈 버는 길이 실리적일 뿐 아니라 시비를 멀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식인들은 발견했다.

‘하해(下海:돈벌이를 위해 시장경제에 뛰어들다-역자주)’는 지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호가 되었다. 금전의 유혹력은 권력이 끌어당기는 힘과 마찬가지로 되었다. 이전에 권력에 대한 숭배는 자연히 금전에 대한 숭배로 전환되었다.

1983년, 한 단과대학 학생들의 졸업 후 선택할 직업에 대해 앙케트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81.3%의 학생이 정치 분야, 즉 관직의 길을 걷기로 선택했으며, 15.2%의 학생들이 상업 활동에 종사할 것을 원했다. 5년 후 다시 이 대학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상업 경영에 종사하길 원하는 학생들이 79.6%, 정치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학생들은 겨우 13.5%로 나타났다.³

돈 바람은 지식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국민학교에서는 학교 앞에 사탕 가게를 연 교사가 수업을 마치자마자

가게로 달려가 학생들에게 사탕을 팔고 있다.

예술가나 작가들도 잇달아 회사를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중국인의 신이 되었다”며 놀라 탄식한다. “우리는 막 정치 만능의 폭풍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다시 금전 만능의 풍랑에 빠졌다.”⁴

지식인들 스스로도 이것을 인정한다. 이제 다시는 “교수처럼 가난하다”는 류의 말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할 수 없다. 국가가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은 시시한 300원에 지나지 않으며, 게다가 벼슬길은 실제로 가기도 쉽지 않으므로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잇달아 ‘하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무너지는 전통 도덕

모든 사람들이 유가(儒家)가 중국 전통 도덕의 주요 골격이라고 인정한다. 유가는 예의를 강조하는데, 그 속에 효도하



개혁 개방은 이전의 권력에 대한 숭배를 물질에 대한 숭배로 전환시켰다. 백화점에서 금을 사는 상해 시민의 모습.

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효(孝)는 가정 관계 위에서 건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윤리 도덕은 특별히 가정을 중시한다. 「중국 국가의 특성은 바로 거시적인 가정의 효도와 공경이다.」 제가치국(齊家治國;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린다)의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표명한다.

중국의 전통 가정은 보통 삼대(三代)이나 때로는 4대일 경우도 있다. 가정 내의 위계질서가 분명하며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의 중국 가정은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 그 중 지식인의 가족 구성원은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된다. 그들의 가정은 많은 분열 요소에 직면하고 있고, 동시에 가정 관념 역시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중국에서 가정과 국가는 긴밀한 연계성이 있으므로 가정 관념에 대한 전환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성 개방

지식인들은 가장 먼저 서양의 성 개방 이론을 접촉하는 사회집단의 하나이다. 중국의 대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애가 허락되지 않으며, 더욱이 결혼은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서양의 개방’과 ‘동양의 억압’이 단번에 박자를 맞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많은 사람들이 혼전에 몰래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데, 이것은 뒷날 혼인의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혼외정사 역시 성 개방 이론의 결과이다. 조사에 따르면, 젊은 지식인들의 혼외정사가 높게는 51%에 달하고, 이혼율은 10%에 달하였다. 이것은 많은 가정들이 동시에 해체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산가족의 출현

최근 10년 간 해외로 출국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식인들이며, 특히 대다수가 기혼의 젊은 지식인들이다. 부부가 함께 출국할 수 있는 경우는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진다. 많은 부부들이 한쪽이 먼저 출국하고, 다른 한쪽은 국내에 남게 된다. 중국에서는 국내에 남게 된 후자를 가리켜 「류수인사(留守人士)」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여,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시작하길 원한다. 그러나 온 식구들이 단번에 모두 이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가거나, 혹은 부모가 먼저 가고 아이들은 남아 타인의 손에 맡겨져 돌봐진다. 이런 부류의 지식인 가정에서는 혼외정사, 이혼율이 상당히 높으며 자녀 교육 역시 큰 문제가 된다.

근 10년 동안, 지식인의 심리에 대단히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다.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는 그 중 대강의 내용일 뿐이다. 이 변화들이 기독교인에게 말해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들은 유리함과 불리함, 두 가지 방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유리한 면을 본다면, 관리를 우대해 주는 것과, 국가 통제의 일률적인 여론에 반기를 드는 현상 및 종교에 대한 태도 변화는 모두 중국 복음화, 중국 문화의 기독교화에 매우 유리한 현상들이다.

이전에 지식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상부

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장애는 남아있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큰 위협력을 갖지는 못한다. 어느 군대의 한 젊은 지식인은 군대에서 영예로운 계급에 임명되었는데도 결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최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계산을 갖고 있었다. 그는, “기껏해야 공직에서 해고될 뿐 아니냐”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재능을 생각하면 밥그릇을 못 찾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군대에서도 역시 그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에 대해서 눈감아 주는 것이다.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배후는 독립된 사유이다. 40년 간 행해진 반기독교적 교육은 많은 지식인들의 마음 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정부가 극렬히 비판하는 것에서 종종 숭고한 가치를 발견하곤 한다. 기독교가 가장 좋은 예이다. 지식인들이 갖는 의문은 다 음과 같은 것들이다. ‘무신론자들은 왜 유신론자가 존재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박탈하려 하는가? 교회는 정말로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최근 대륙에서 나온 한 학술 저작에는, 「유럽의 암흑 시기에 교회가 대량의 서적을 보존함으로써 전쟁에서 훼손되는 것을 막았다. 이것은 이후 유럽의 부흥에 기초를 다지게 했다」고 써어져 있다. 또한 기독교 교회는 과학자를 박해한 적이 없었다고 밝힌다. 보편적으로 지식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중국 문화의 기독교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 근래의 각종 사상 조류가 지식인들을 하나님 나라와 완전

히 상반되는 길로 이끌어 가는 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허무주의, 향락주의, 전통 불교, 도교에의 회귀, 변증법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속은 뒤 다시는 어떠한 신앙도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자기 자신과 돈만 mind가 기회를 붙잡아서 즐길 것이라고 큰소리친다. 공산주의에서 자아를 찾지 못한 어떤 이들은 부처를 믿고 신선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바로 중국인이 되는 길이라고 여긴다. 이 외에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비록 더이상 공산주의를 믿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에 절대 진리란 없다. 소위 말하는 옳고 그른 것, 의와 불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변증법적 사유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확고 부동한 무신론자인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곡식은 이미 익었다. 가서 수확할 이는 누구인가? 누가 가서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할 것인가?

주

1. 《熱風潮-今日中國大學生大透視》, 1993년.
2. 《社會科學》, 1993년, 10期, p. 42.
3. 註 1과 동일, p. 88.
4. 《作家報》, 1993년, 3월 13일.
5. 헤겔 《世界宗教史, 東方世界: 中國》.

편집자 주:

이 글은 홍콩 中國福音會가 발행하는 『中國與教會』, 100期, 1994年 3/4月號』에 실린 <中國知識分子心理五大變化>를 번역한 것으로 中國福音會(CMI)의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번역/루디아 • 중국어문선교회 행정실 협력간사



총체적 예술 경극(京劇)

중국에는 지방마다 고유한 민요와 방언으로 구성되는 전통극들이 수백 종에 이른다. 그 중의 하나가 북경에서 발달된 민중극인 경극이다. 경극은 중국 회극 예술의 특색을 잘 표현한 것으로 가장 널리 유행되고 그 영향력이 컸다. 이것은 경희(京戲)라고도 불리어진다. 민국(民國) 초기 북경을 북평(北平)이라고 불렀던 시기에는 평극(平劇)이라고 했으며, 대만에서는 국극(國劇)이라는 명칭을 많이 쓴다.

경극의 형성

여러 전통극 중에 경극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은 곡예적인 재미와 오락이 격조 있게 가미되었기 때문이다. 경극이 언제 성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문헌에도 전해지지 않기 때

문에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경극은 목가적인 곡조에 무용과 연기가 가미된 “이황조(二黃調)”라는 호북지방의 소박한 가무극이 18, 19세기 경 북경으로 유입되면서 발달한 것이다.

20세기 초에 경극은 상해(上海), 천진(天津), 한구(漢口), 장사(長沙) 등 일부 대도시에서 전파되어 곤곡(昆曲)에 다음가는 전국적인 대극종이 되었다.

경극 공연의 특징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극은 끊임없이 변했는데, 언제나 가사와 대사가 쉬웠고 분방한 무용과 무술이 가미되었으며, 민중들의 생활 감정이나 애증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대중적 인기를 유지해 왔다.

경극은 중국의 문학작품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홍루몽>, <금병매> 등 고전을 경극화 한 것이다. 중국의 경극에 나오는 인물들은 거의 전부가 실존 인물로서, 제갈량, 조조, 양귀비 등 풍운 인물, 임금 혹은 그 근친들이고 줄거리들도 역사 사실이다. 얼굴의 화장들이 특이한데, 배역의 외모나 성격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색깔과 모양으로 배역의 성격과 특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는 것이다. 심지어 그 색깔로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빨간 색은 충의를, 흰색은 교활하고 음흉함을, 파란색은 오만하고 사악함을, 검정색은 정직, 엄숙, 우직함을, 자색은 침착하고 정의로움을, 노란 색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을, 녹색은 용감하지만 난폭함을 상징한다. 그리고 코 주위와 눈 언저리에만 흰색으로 분칠을 하면 그가 관중을 웃기는 어릿광대임을 나타낸다.

중국인들은 이런 경극 극중 인물의 얼굴 모양과 색깔을 면보(面譜)라고 부른다. 출연자들의 수염의 길이가 매우 길어 긴 수염은 한 자가 넘고 폭포처럼 넓게 드리워있다. 이것은 극중 인물의 회로애락을 표시할 때 그것을 쓰다듬던가, 한쪽으로 날리던가, 중간에서 가르던가 하는 표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경극은 특별히 무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탁자 한 두개만으로 모든 상황과 장면을 연출해낼 수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에는 사람들의 이해력을 돕는다는 목적 아래 상당량의 사실적인 무대장치와 소도구가 새롭게 개발되었다. 그러나 경극의 무대장치와 소도구는 원칙적으로 무대예술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실물과 소재, 무게, 크기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

경극은 한정된 공간과 사람으로 삼국지나 수호지 같은 대규모의 역사물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표현의 상징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

서 상징성에 대해 관객과 일정한 약속이 맺어진 것이다. 연출중 사용되는 소도구도 상징적으로 사용되어 최고의 연극적 효과를 거둔다. 말채찍으로 말에 탄 것을 상징하고 노 하나만으로 바다와 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연출해 낸다. 막대기에 털을 붙여 술처럼 만든 것은 말(馬)을 나타내고 병사들이 든 깃발은 그것이 삼각형이나 정방형이나 하는 것에 따라 군사기만 명, 십만 명으로 달라진다. 이런 상징적인 동작들은 아름답고 재미있으면서도 과장된 형태로, 경극이 지닌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경극은 노래, 대사, 무용, 무술, 동작 등의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적 연출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창념작타(唱念作打)'라고 한다. 창(唱)은 노래 부르는 기교를 가르치며, 염(念)은 대사를 말한다. 작(作)은 동작과 기법을 가리키고, 타(打)는 연출 가운데 무술 동작을 가리키며, 중국의 전통 무술을 기초로 한 무술 기교의 동작이다. 따라서 경극에서는 연극이 지닌 고도의 예술미와 함께 대중들의 재미를 한껏 높여 주는 묘기도 볼 수 있다.

중국의 경극은 가극(歌劇)으로 창(唱)이 핵심이 되며, 능숙한 창(唱)은 경극배우의 필수 요건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경극을 '본다(看戲)'라고 하지 않고 '듣는다(聽戲)'고 한다. 노래 가사 자체가 이야기 줄거리이므로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하는데 북경 발음이라서 듣기에 힘들지는 않다.

경극의 음악은 경쾌하며 타악과 현악을 주로 한다. 북, 징, 박판, 호궁, 월금(月琴), 비파, 삼현금, 횡적 등이 있다.

경극은 원래 남자 배우만 연기를 했다. 절세미인 양귀비를 연출한 중국의 유명한 경극배우 매란방(梅蘭芳)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여자역만 맡아서 했다. 양귀비가 무대에 서면 그의 손 동작, 눈 동작 하나 하나에 뜻이 있다.

손가락을 바르르 떨며 밖으로 팔을 벌리면 혐오, 거절, 미움을 나타내고, 역시 손가락을 떨며 손을 아래 위로 저으면 기쁨, 행복, 사랑을 표시한다. 그러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는 여장 배우 대신 여배우를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경극

현대에 이르러 경극은 현실과 동떨어진 왕후장상이나 재자가인들의 이야기라 하여 젊은 관객들로부터 외면되었다. 경극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노래나 춤이 없는 현대 연극이 지루할 뿐이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그 반대의 느낌을 주었다. 그리하여 문화대혁명(1966-1976) 시기에는 강청(江青) 등에 의해 경극의 현대화가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전투적 인민의 영웅상을 그려내기 위해 전통적인 무예와 함께 서구의 발레 동작이 도입되고 피아노 음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976년 이후 '4인방(四人幫)'이 타도되고 등소평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에는 기존의 강압적 예술정책이 완화되는 가운데 문화혁명기에 일부 공연금지를 당했던 레파토리가 다시 상연되고 표현적 기법 면에서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 9월, 중앙위원회 문화부에 경극 진흥지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겸 문화부 부장 대리를 그 위원회의 주임으로 임명하였다. 12월에는 국가에서 중국 경극원을 신설하기 위해 특별비를 지출하였다. 정부는 경극을 국보로 인정하고 지원하면서 대외 문화 교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 중국 연극계는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 현대적 감각에 맞는 경극을 시도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묘미와 화려함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의 경극이야말로 극본, 연기, 음악, 소도구, 분장, 의상 등의 예술적 요소를 다채롭게 결합한 총체적 예술인 동시에, 서양의 공연예술과는 달리 이러한 다양한 예술적 요소를 사실적이 아닌 상징적 원리 아래 세련시켰다는 점에서 최고의 약속적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공연된 바 있는 영화 “패왕별희”를 보면 중국 경극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죄송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 부인에게 가서 ‘희망공정’ 모금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 국민학교에 못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십시오!”라고 말하자 그는 몇개의 각종 보석 반지와 금 팔찌를 찬 손을 내밀면서 돈이 없다고 거절하는 풍자만화이다.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와 풍속

서남지역 및 기타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는 서남지역 및 기타(黎, 畲, 高山) 소수민족의 문화와 풍습을 소개합니다.

각 민족의 다양한 혼인, 가족제도, 의식주 및 생활 습관을 통해 소수민족 선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는 이번 호로 연재를 마칩니다 -편집자 주

바이족(白族:Bai)

바이족의 결혼은 일부일처제이다. 혼인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결정하며, 동성동본과 혼인할 수 없다. 다른 민족과는 결혼할 수 있다. 부모들이 사위나 며느리를 고르는 기준은 대개 문당호대(門當戶對: 두 집안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형편 등이 걸 맞는 집안-역자 주)를 선호하며 팔자, 사주나 궁합도 중요시한다.

남자 측에서는 약혼한 이후부터 결혼할 때까지 매년 정중한 선물을 여자 집안의 어른에게 보내야 한다. 선물을 중지하는 것은 파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은 늘 결혼으로 인해 큰 빚을 져야만 했다.

결혼한 아들은 곧바로 부모

와 분가해 산다. 연로한 부모는 막내아들과 함께 살지만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나머지 아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바이족은 운남성의 여러 소수민족 가운데 고풍스럽고 목가적인 경치와 유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적 유산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들은 흰색을 숭상하기 때문에 바이족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의상은 전체적으로 흰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흰색을 사용하거나 또는 흰 옷 위에 빨간 자켓과 앞치마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흰색의 화려함을 느끼게 한다. 남자들은 원래 흰 옷을 입을다고 하지만 근래에는 보기 드물어 별다른 특색은 없다. 여자들은 연령층에 따라 젊은이들은 흰 블라우스에 빨간 자켓과 앞치마를, 중년층 이상은 빛이 바랜 듯한 검푸른 자켓에 빨간 색의 조그만 장신구를 오른쪽 가슴에 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이족의 가장 큰 명절은 매



시장에 나온 바이족 여인들

년 음력 3월 15일에서 21일까지 파리(大理) 바이족 자치구에서 열리는 “3월 축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축제는 천 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설상의 관음이 이곳에 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일명 “관음제”라고도 한다. 축제 기간 중에는 소수민족들의 민속무용, 그네타기,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시장통은 엄청난 인파로 가득 찬다.

바이족은 쌀과 밀을 주식으로 하며 시고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 찹쌀로 빚은 술을 마시며 고차(烤茶: 찻주전자를 탄(炭) 속에 넣어 뜨겁게 한 후 찻잎을 주전자에 넣어 다시 불에 구운 후 물을 넣어 마시는

차-역자 주)를 마신다. 특별히 손님에 대접할 때는 삼도차(三道茶)를 마신다.

하니족(哈尼族:Hani)

‘하니’라는 말은 숫자 10을 의미한다. 매우 용맹한 성격을 지닌 하니족은 수렵을 하며 살고 있다.

하니족은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이나, 과거에는 여자가 결혼한 후 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은 첩을 들일 수 있었다. 결혼은 보통 부모가 결정하며 신부는 결혼 후 수일 내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농번기 때 비로소 남편의 집으로 온다.

하니족은 ‘부자연명제(父子連名制)’의 전통을 갖고 있다.

아버지의 이름 맨 끝 한 자나 두 자를 아들의 이름 맨 앞에 붙임으로써 가족의 이름이 대대로 계승된다. 남성에 한해서만 조상을 숭배한다.

하니족은 쌀을 주식으로 한다. 잎을 찢어서 말린 차는 손님에게 대접하는 귀한 음식이다.

본족의 문자가 없지만 구두문학, 신화, 전설, 역사시, 시가, 고사, 우언, 동요 등 매우 풍부한 문학 유산을 통해 민족의 사상,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중 만물의 연원을 구술한 “창세기(創世記)”와 인류가 홍수와 싸워 이겨 자손이 번영한다는 “홍수기(洪水記)” 신화가 있다.

하니족의 촌락은 대부분 산을 끼고 구성되어 있으며, 30~

40호에서부터 수백 호의 촌락이 모여 있다. 집은 흙과 돌을 주재료로 지어졌으며 천장은 평평하다. 비스듬한 초가집도 있다. 층집은 대부분 상·중·하 3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맨 위 층은 양식이나 잡다한 물건들을 보관해 놓고 가운데층에는 사람들이 산다. 아래층에서는 가축을 기른다.

하니족은 짙은 남색 염료로 천을 염색해서 옷을 만든다. 남자들은 대부분 대금(對襟)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푸른색 천이나 흰색 천으로 머리를 감싼다. 대다수 지역의 여자들은 깃이 없고 은장식으로 단추를 단 윗도리를 입고 모자 쓰기를 좋아한다. 귀걸이, 은 목걸이, 큰 팔찌를 찬다. 각 지역마다 복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어떤 지역에는 한족의 복식으로 개량해 입기도 한다.

다이족(傣族:Dai)

과거 다이족의 가정에서는 가부장제 부권 제도를 고수해왔다. 혼인은 원래 일부일처제이지만 귀족사회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성행하기도 한다. 관습상 옛부터 내혼제(內婚制)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통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한족과의 통혼도 가능해졌다.

결혼 전에 남녀는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다. 결혼과 이혼도 비교적 개방적이고 자유롭다. 그러나 지금도 약탈혼이 남아

있다.

특이한 것으로 “종처거(從妻居)”라는 풍습이 있다. 즉, 결혼 후 신랑이 신부 집에서 3년 이상 살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결혼식을 치른다.

인구 약 83만 명에 불과한 다이족은 지금껏 봉건적인 사회분위기 타인지 소위 양반과 상민 등 계급 의식이 강하다. 이름을 짓는데도 엄격한 등급을 두며 성(姓)에서도 귀천의 차별을 두고 있다.

남자는 일생동안 유명, 범명, 환속명, 그리고 부모 연명 등 4번이나 이름이 바뀐다. 여자는 일생 동안 두 번만 이름이 바뀐다. 귀족들은 평민과 귀족의 신분을 이름에서부터 차별하고 있다. 즉 그 사람의 이름만 보면 출신을 금방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정치적, 경제적 위치까지 가늠할 수 있다.

쌀을 주식으로 한다. 덕굉(德宏) 지역에서는 맵쌀을 즐겨 먹고, 서쌍판납(西雙版納) 지역에서는 찹쌀을 주로 먹는다. 술과 매운 고추를 즐겨 먹고, 생선과 새우 등도 잘 먹는다. 뽕랑나무 열매(소수민족들이 고된 일을 할 때 각성제로 먹는 은행처럼 생긴 초록색의 열매-역자 주)를 씹는 습관이 있다.

다이족 남자들은 몸에 문신하는 풍습을 갖고 있다. 또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호숫가에 서 목욕하는 것을 좋아한다.

매년 4월(태력 6월)은 다이

족의 유명한 절기인 “발수절(潑水節)”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로에게 물을 뿌려 복을 기원한다. 또 용주(龍舟)타기 시합, 노래와 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함께 즐기고 경축한다.

리쑤족(傈僳族:Lisu)

리쑤족 사회는 오랜 기간 씨족제를 보존해왔다. 각 씨족은 자기의 토tem 숭배대상을 갖고 있다.

결혼은 일부일처제이다. 미혼의 남녀는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지만 결혼은 반드시 부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혼인을 청하는 의례로서 예물을 주고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신부의 몸값은 황소로 치른다.



대나무를 이용하여 탕자나무 열매를 따는 리쑤족 여인들

전통적인 결혼 풍습은 씨족의 혼이며 동성간에는 결혼할 수 없다. 다른 민족과의 결혼도 엄하게 금지된다.

결혼 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생산 용구를 가지고 스스로 집을 지어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된다. 외동아들은 분가하지 않고 부모의 가업을 계승해야 하며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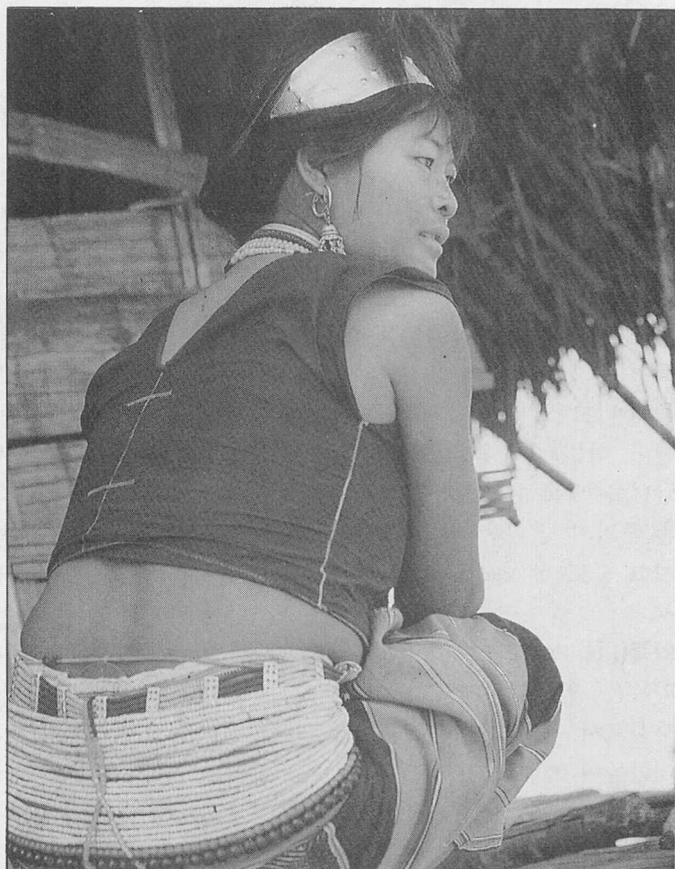
리쭈족은 평생 두 번 이름을 짓는다. 아들이 태어나면 출생 일주일째 되는 날에,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9일째 되는 날에 이름을 붙여준다. 이 최초의 이름을 “혼명(魂名)”이라고 한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 아침, 새가 날면 ‘새가 난다(鳥飛)’, 만약 개가 짖으면 ‘개가 짖는다(狗叫)’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두 번째 작명은 약혼이나 결혼 시에 짓는 성인명(成人名)이다. 약혼이나 결혼 선물이 검은 소라면 신랑 이름은 ‘검은 솟소’, 신부 이름은 ‘검은 암소’라고 짓는 것이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절대로 혼명을 부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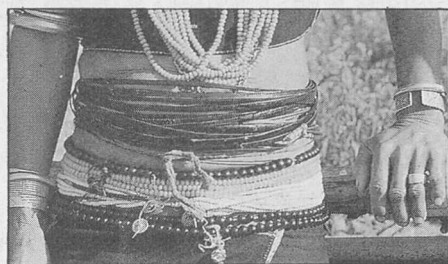
음식은 옥수수과 메밀을 주식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매일 두 끼의 옥수수 죽만을 먹는다. 음력설이나 손님을 초대하는 잔치 때만 고기를 먹는다. 차 마시기를 좋아하며 술과 담배도 즐긴다.

라후족(拉祜族:Lahu)

라후족은 일부일처제를 행하며



와족 여인의 허리 장식



다른 민족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젊은 남녀들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으며, 부모들도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란창(瀾滄)지역 라후족은 결혼식을 대개 신랑 집에서 거행하는 데 비해, 갱마(耿馬), 쌍강(雙江) 지역 일대에 사는 라후족은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라후족 남자는 결혼한 날부터 바로 자기 집에서 처가로 옮

겨 한 3년 정도 아내와 동거하며 살림을 꾸민다. 이것이 “처방거주혼”(妻房居住婚)이라는 풍습이다. 그러나 부부가 같은 집에 거주할 뿐 경제적으로는 완전 독립된 생활을 하고 밥도 따로 먹는다. 생산 활동도 부부가 농사일이나 방목 등 공동 노력할 때도 있고 남자 혼자 사냥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근래 들어 처방거주혼의 기간이 많이 짧아졌다. 가장 짧은 경우 3일만 지내고 신랑의 집

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음식은 쌀을 위주로 하고 옥수수, 고구마, 콩류, 야채 등을 부식으로 먹는다. 평소에는 하루 3끼를 먹지만 식량 기근이 들면 두 끼로 감량된다. 고추를 즐겨 먹고 산 속에 가서 샘물을 길어 먹는 습관을 갖고 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잎담배를 즐기며 찻잎을 찌서 차로 마시고 술도 잘 마신다.

와족(佤族:Ya)

와족은 일부일처제의 핵가족 사회로서 재산의 대부분은 막내아들이 계승하고, 딸은 상속권이 없다.

와족의 작명법(作名)은 매우 특이하다. 아들이 태어나면 祖·父·子 삼대의 이름을 거꾸로 나열해서 짓는다. 즉 이름만 보면 본인, 아버지, 할아버지 삼대의 이름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이다.

혼기에 들어선 젊은이들은 연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결혼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몰래 도주해서 결혼을 하기도 한다. 과거에 행해졌던 고종사촌간의 혼인은 현재에 이르러 비교적 적어지고 있다.

와족은 대나무 집에서 살며, 주로 죽순을 먹는다. 이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일상용품들이 모두 대나무로 만든 것이다. 대나무 의자, 대나무 침대, 그리고 밥을 지을 때도 대통을 쓴

다.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수확할 때, 대방망이 대나무 활과 화살을 사용하며, 두 줄기의 강을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할 때도 대나무가 쓰여진다. 대나무는 와족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기에, 와족 문화는 일명 ‘대나무 문화’라고 불리운다.

이들이 거주하는 대나무 집은 상·하 이층으로, 윗 층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아래 층은 축사나 혹은 돼지, 닭을 키우는데 사용된다. 가정에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두 개의 화로인데, 하나는 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다른 하나는 제사를 지낼 때 쓴다.

주식은 붉은 쌀(紅米)이다. 사냥과 채집을 통해 얻은 수확물로 식량을 보충하기도 한다. 뽕앙을 씹고, 술을 마시며, 진한 차와 고추를 즐겨 먹는다.

남자는 검은 색의 짧은 상의에 통이 넓은 바지를 입는다. 부녀자들은 관두의(攢頭衣)라고 하는 상의에 가로 줄무늬 모양의 짧은 치마를 입는다.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를 하고 다닌다. 사회 발전에 따라 복장도 다소 변화했지만, 와족 집단 거주지에서는 아직도 전통 복장을 보존하고 있다. 원료의 대부분은 자급자족한 면이나 마를 염색 가공한 것이다.

나씨족(納西族:Naxi)

일부일처제의 부계 가정을 이룬다. 남존여비 의식이 뿌리 깊

고 여러 대에 걸쳐 한 집에서 함께 산다. 그러나 영녕사천목리(永寧四川木里) 교외 지역의 러호(瀾沽) 호수 지역에는 지금까지 모계사회가 잔존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여성이 한 가정의 주인이다. 여자들이 농업 생산을 주도하며 재산은 모계에 의해 계승된다. 심지어 제사 활동까지 여자들이 주관한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주 혼(阿注婚)이라고 일컫는 특이한 결혼 풍습이 있다. 이것은 마을 사당에서 결혼식이 끝나면 곧바로 신랑 부모와 친지들에게 인사만 하고 신부는 다시 친정집으로 되돌아간다. 결국 여자는 결혼만 했을 뿐 종전처럼 친정에서 생활하며 일하는 것이다. 시집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다. 결혼한 여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남편이 찾아올 때 자기 방에서 같이 동침하는 것과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하는 것이다. 부인을 찾아간 남자는 밤을 지내고 새벽 일찍 처가에서 나와야지 늦잠을 자면 처가 식구들에게 쫓겨나게 되며,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 장인 장모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출입이 금지된다.

나씨족이 신봉하는 “동파교(東巴教)”는 나씨족의 생활, 풍속, 예의, 정신 사상, 기질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소위 이들에게 형성된 “동파문화”이다. 동파교에서 산출된 다

량의 종교 경서는 나씨족의 진귀한 고문헌 자료이다. 그러나 동파문화는 동파경 뿐만 아니라 그와 상관 있는 음악, 무용, 회화 및 형성 문자인 동파문자까지 포함한다.

동파경은 일천여 종의 경권(經卷)으로 구성된 집성 도서로서 그 내용은 세상 만물에 대한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뿐 아니라 사회, 역사, 목축, 농경, 혼인, 가정, 종교, 철학, 풍속, 예의, 언어, 문자, 천문역산(天文曆算), 점복, 의학 등 그야말로 나씨족의 백과전서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이 책 가운데 우주의 형성과 인류의 기원 및 각종 자연현상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創世記)”가 있다는 것이다.

징뽀족(景頗族: Jingpo)

일부일처제의 소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 부호와 산관(山官: 세습되는 수령으로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위)들은 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다.

가족 중 막내아들의 지위가 가장 높아 부모의 유산을 계승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부모를 부양할 책임도 있다. 장자는 결혼하면 바로 독립하여 가정을 이룬다.

신분내혼제를 앞세워 관리는 관리끼리, 농민은 농민끼리만 결혼을 한다. 만약 농민이 관리 집안과 결혼하려면 농민 쪽 총각인 경우 소나 당나귀 200마리를, 처녀는 총각의 배가 되는

400마리를 각각 신분 상승의 대가로 치러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악탈혼’의 풍습도 남아있다.

결혼 시기가 되면 총각이 짝지어둔 처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라는 공고문을 마을 곳곳에 붙여 그 처녀가 다른 데 시집 못 가도록 하는 등 갖은 술책을 쓴다. 그리고 나서는 처녀의 집 옆에 숨어 있다가 처녀를 낚아채 동거를 시작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나 처녀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면 곧바로 돌려보내고 총각집은 동거한 죄값으로 소 50마리 내지 100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이럴 경우 남자의 집은 망하게 된다. 마음에 드는 처녀와 결혼하려면 남자는 비장한 각오와 함께 큰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주식은 쌀이며 부식으로 곡류와 고구마, 야채를 먹는다. 귀신에게 제사 지낼 때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고기는 잘 먹지 않는다. 잎담배와 뽕랑나무 열매를 좋아한다.

어린이가 급사하면 천장(天葬)을 하거나 수장을 한다. 천장은 아무런 의식(儀式)없이 곧바로 산으로 운구, 시체를 토막내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다. 수장(樹葬)은 대나무 꺾질로 시체를 싸서 커다란 왕대나무 통 속에 집어넣어 비파나무(琵琶樹)에 매달아 놓는 것이다.

뿌랑족(布朗族: Bulang)

뿌랑족의 연애는 무척 자유롭고 개방적이다. 마음에 들면 쉽게 만나 깊은 관계를 맺다가 싫으면 금방 헤어지고 다른 짝과 만나 연애한다. 대개 집집마다 2~3명의 사생아가 있으나 흠이 되지 않는다. 아이는 여자가 맡아 기르며 시집갈 때는 줄줄이 데리고 가서 함께 산다. 노동력이 큰 재산이기 때문이다.

뿌랑족은 딸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보통 모친의 이름을 붙여 짓는다. 어머니 이름의 두 번째 자를 취하여 딸의 이름의 제일 끝자를 짓는다.

뿌랑족(布朗族)은 부계의 대가족 사회이며 동일한 부계 조상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마다 자기의 이름과 족장이 있으며, 이 족장은 최고 연장자 중에서 선출된다.

가정마다 가족들이 신령시하는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가족 정신의 상징물이다. 또 가정마다 일정한 공공 토지를 가지고 있다. 가족 구성원들 모두 토지의 일부분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뿌랑족 남자들은 대부분 술을 좋아하고, 문신을 새기는 풍속이 있다. 남자들 모두 각종 대나무 그릇을 만들 줄 알고, 여자들은 차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 이것으로 손님에게 차 접대하기를 좋아한다.

뿌랑족은 촌락 단위로 집단 거주한다. 사모(思茅), 임창(臨滄), 보산(保山) 등지의 집은 흙과 나무로 된 단층집이며, 서



푸미족

쌍판납(西雙版納)지역에서 보여지는 집은 상하 이층 구조의 대나무집이다. 아래층은 축사로 쓰고, 위층은 사람이 산다.

남자들은 옷깃이 없는 대금(對襟) 상의와 검은색의 폭이 넓은 긴 바지를 입고, 검은 색이나 흰색 천으로 머리를 감싼다. 부녀자들은 몸에 꼭 달라붙고 목둘레가 없는 짧은 옷을 입는다. 밑에는 붉은 색, 녹색, 혹은 검은 색의 통치마를 입는다. 머리는 크게 틀어 머리를 감싼다. 은 귀걸이와 은 팔찌를 하고 치아를 검은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좋아한다.

푸미족(普米族:Pumi)

푸미족은 일부일처제 사회이다. 1949년 이전에 결혼은 대부분 부모가 주관하여 고종 친척

간의 혼인이 성행했었다. ‘조혼(早婚)’과 ‘불락부가(不落夫家)’의 풍습이 남아 있으며, 어떤 지방에서는 아직도 약탈혼인의 풍습이 남아 있다. 신부는 결혼식을 치른 후 바로 친정으로 돌아온다. 남자 쪽에서 적어도 4차례나 데리러 와서 4차례의 결혼식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신랑집으로 갈 수 있게 된다.

푸미족의 민족성은 호탕하고 시원시원하며, 손님 접대를 매우 좋아한다. ‘정직·근면·재능’을 영광으로 여기는 반면, 도둑질과 거짓을 수치로 여긴다. 웃어른을 존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미덕이 있다.

춤과 노래를 매우 좋아한다. 절기, 집회, 또는 결혼을 할 때 매번 일문일답 식으로 노래 대회를 연다. 가사의 내용은 생산, 결혼과 죽음, 종교, 역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음식은 소유차(袖油茶)에 볶은 국수를 넣어 먹는다. 밥에 돼지고기 요리를 곁들여 먹는다(일종의 소금과 산초나무열매가 곁들인 돼지 비계). 담배와 차, 술을 즐긴다.

부녀자들은 머리에 큰 두건을 쓰고, 쏘이 큰 옷옷과 긴 치마를 입고, 채색(彩色) 허리띠를 찬다. 난평(蘭坪), 유서(維西) 일대의 부녀자들은 청색, 남색, 흰색의 쏘이 넓고 짧은 옷을 입는다. 겉에는 조끼를 즐겨 입는다. 남자들은 마직의 짧은 옷과 넓은 바지, 흰 양가죽으로 짠 조끼를 입는다.

아창족(阿昌族:Achang)

아창족은 일부일처제의 부계가정으로 부녀자의 지위가 매우 낮다. 가정의 일체 중대안은 모두 남성 위주로 처리된다. 재산은 아들에게 승계된다. 딸아들은 결혼 후 분가하여 재산을 물려 받는다. 아들이 없는 경우는 데릴사위가 가능하며 자녀는 어머니 성(姓)을 따른다.

결혼 전에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하지만, 결혼의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다. 약탈혼인의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가 결혼을 반대할 경우에 행해진다. 동성(同性)간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반면 다이족(傣族), 한족(漢族)과의 결혼은 허용된다.

이들의 민족성은 명랑하고 매우 개방적이어서 손님접대를 극진히 한다. 손님에게는 차단(茶壇:일종의 토기로 된 차 끓이는 용기 - 역자 주)으로 접대한다.

아창족이 사는 집은 벽돌,기와, 나무, 돌 등으로 지은 정사각형 모양의 건축물이다. 맨 위층에 사람이 기거하고 창고에는 식량을 비축해 두고 있으며 지하에는 소나 돼지우리를 만들어 놓고 가축을 기른다.

주식은 쌀이며 발효식품을 즐겨 먹는다.

남자는 남색, 검정색, 혹은 흰색의 대금(對襟) 상의와 검정색 바지를 입는다.

부녀자들은 바지를 입고 긴 소매의 대금상의를 입는다. 처

녀들은 긴 바지를 입고 머리는 땅아서 은 장식품을 달고 다닌다. 남녀 모두 짐을 어깨에 지고 다닌다.

누족(怒族: Nu)

누족의 작명법은 독특하다. 남자의 경우 일생 동안 3가지 이름을 갖게 된다.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 또는 백부나 할아버지가 아명을 지어 주는데 이것이 최초의 이름이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함축된 글자가 아니라,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은 글자를 골라 짓는다.

두 번째로는 14~15세가 되어 자유로이 공방(公房: 젊은이들이 모여 노는 곳)을 드나들며 이성을 접촉하여도 괜찮은 시기가 도래했을 때 새 이름을 지어준다. 그러나 이 성인명은 절대 어른들 앞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집안에서 아명만을 사용해야지 성인명을 사용하면 불경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결혼기에 접어들어 짓는 이름이다. 이 이름이야말로 평생 동안 지녀야할 공식 이름인 셈이다. 이 이름은 첫 번째의 아명에다가 아버지 이름의 끝 글자를 전치(前置)시키는 부자연명제 형태이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일정한 성(姓)은 없다. 결혼과 동시에 부자연명제로 명명된 아들은 아내를 얻게 됨으로써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공인받게 된다. 그들이 부자연명제를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까지 지키는 이유는 부계 혈통을 보존한다는 데 주 목적이 있다.

한편 여자에 대한 이름은 아명과 성인명 등 단지 두 번에 걸쳐 짓는다. 성인명은 남자보다 한 살 가량 빠른 13~14세에 접어드는 시기에 대개 아버지가 지어준다. 남자보다 여자가 사춘기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자의 이름은 주로 꽃 이름에서 따와 붙이기 일쑤다. 남자와 달리 부자연명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기 집안의 혈통 보존과 상관없는 숙명적인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누족은 남자가 죽으면 손발을 펴서 위쪽으로 향하도록 눕히고 여자는 손발을 구부려 옆쪽으로 흰 자세로 매장하는데, 주로 합장한다. 이러한 장례 형식은 생전에 부권(父權)이 상

위에 있고 아내는 남편에 종속되어 있다는 남존여비 사상에 서 비롯된 봉건적인 인습의 잔재이다.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이지만 소수의 부자들은 여러 명의 처를 거느릴 수 있다. 남자는 결혼 후 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별도의 신방을 짓고 약간의 재산을 물려받는다. 부모는 막내와 함께 살 수 있고 재산은 그에게 승계된다.

누족의 촌락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10여 가구로부터 50 가구까지 다양하다. 모든 촌락의 가족 구성원은 혈연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높은 산과 길이 험하고 하천이 급한 교통이 폐쇄적인 곳이다. 주거 정도는 차이가 심해 가옥의 대부분이 누추하고 각지의 가옥구조도 상이하



방직(紡織)기술이 뛰어난 누족 여인

다.

부녀자들은 가슴과 소매통이 넓은 옷(敝襟)을 입고 복사뼈까지 내려오는 삼베로 된 원피스를 입는다. 남자들 역시 똑같은 모양의 상의를 입고 무릎까지 오는 삼베 두루마기를 입는다. 허리에 천이나 줄로 된 허리띠를 맨다. 남녀 모두 장신구를 좋아하는데, 부녀자들은 산호(珊瑚), 마노(瑪瑙)로 된 머리 장식과 가슴장식을 화려하게 달고 다닌다.

더앙족(德昂族:Deang)

더앙족은 흠어져서 거주하며, 오랫동안 한족, 다이족, 징뽀족, 와족 등과 뒤섞여 살았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제도 등이 모두 이러한 민족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줄곧 자기 민족의 사회 체제는 형성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사회 조직상에 있어, 부계의 대가족제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삼사대의 분가하지 않은 부계 가족이 모두 함께 살고 있다. 식구는 적게는 30~40이고, 많게는 80~90명에 이르는데, 전 가족이 하나의 큰 집에서 거주한다.

따라서 이들은 집단생활을 하며, 남성 연장자가 조직을 리드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가족 구성원은 생산 활동에 모두 참여하지 않기에, 노동의 결실은 대가족 집단 공동체로 귀속되게 된다. 이 때 공동체는 각각의 구성원의 생활 및 기타 소비에 대해 비용을 지급해 준다.

이러한 생활은 1930년대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현재까지도 3~5개의 친족 관계가 있는 핵가족들이 한 집에서 모여 살고 있으나 경제는 독립되어 있다.

더앙족은 일부일처제 사회이다. 혼인은 동성끼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와족과 한다. 청춘 남녀들의 연애와 결혼은 매우 자유롭다. 결혼할 때, 신랑 측은 신부 측에 예물을 보낸다. 이것을 ‘내수전(奶水錢)’이라고 하며, 그 동안 딸을 양육한 고생에 보답하는 뜻이라고 한다.

더앙족은 쌀을 주식으로 하며, 좁쌀, 콩 등을 부식으로 먹는다. 진한 차를 즐겨 마시고 담배와 뽕랑을 좋아한다. 차는 더앙족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차가 없으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 대나무는 직경 1~3미터 정도인데 그들이 거주하는 집은 모두 용죽으로 짓는다.

여자들 중 어떤 이는 검은 줄무늬가 염색된 짧은 치마를 입고, 그 위에 화려한 원색의 가로무늬 긴 치마를 입는다.

여자들의 머리 장식은 매우 특색 있다. 미혼의 처녀는 머리를 기르지 않고, 대머리로 깎아 천으로 머리를 감싼다. 감싼 양쪽에 마치 변발처럼 등 뒤로 늘어뜨린다. 여자들은 결혼한 이후에 비로소 머리를 기를 수 있다. 검은색 천으로 머리를 감싼다.

남자들은 검은 천이나 흰 천으로 머리를 감싸고 큰 귀걸이와 은 목걸이를 찬다. 대부분 남색이나 검은색의 옷셔이 큰 옷옷을 입고, 통이 넓고 짧은 바지를 입는다.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다. 호랑이, 사자 등의 도안을 새기는 것을 좋아한다. 근래 들어 남자들은 머리장식을 하지 않고, 헤어스타일도 한족의 남자와 다를 바가 없다.

뽕롱족(獨龍族:Dulong)

뽕롱족은 씨족공동체 사회이다. 구성원은 모두 동일한 조상의 후손이라 모두 혈연관계가 있는 친척들이다. 씨족의 규모 중에 큰 것은 14~15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은 5~6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씨족공동체 사회이므로 자손들은 결혼 후에도 분가하지 않는다. 부모의 주택 옆에 집을 다시 지어 산다. 가족은 모두 같이 살고, 공동 노동,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일체의 식량과 재산을 공유한다.

이들의 혼인은 사실상 매매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뽕롱족 남자가 결혼해 신부를 맞아들이는 것을 부마왕(付馬旺)이라 일컫는데, 이 말은 “여자를 사온다”는 의미이다.

신부 한 명의 값은 무조건 냄비 1개나 화로 1개 정도 또는 소 한 마리, 돼지 2마리 정도의 값으로 여긴다. 이런 결혼 풍습으로 인해 결혼할 때 다른 민족

들처럼 별로 힘 안들이고 결혼했다가 쉽게 헤어지기도 한다. 말하자면 이들 종족은 마을마다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많다. 그러므로 대다수 여자들은 최악의 경우 재취나 첩이 되더라도 남자 밑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깊다.

뚜롱족 사람들은 근면하고, 손님 접대를 좋아하고, 신용을 중시하고 소박 순수하다. 인심이 순박하고, 가무를 즐긴다.

식생활에 있어서는 옥수수, 좁쌀, 메밀을 주식으로 하고, 물고기와 사냥을 해서 식량을 보충한다. 술과 담배를 매우 좋아한다.

지누어족(基諾族: Jinuo)

지누어족 청소년은 15세 전후에 성년식을 거행한다. 이로써 민족사회의 정식 구성원의 자격과 권력, 의무 등을 얻게 된다. 성년식을 치른 후 남자는 어른의 복식을 차려 입을 수 있고 연애했을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여자는 따로 성년식을 갖지 않으며 부모가 생산도구 등을 선물한다. 성년이 된 처녀는 어른의 복식을 입고 머리를 어른들처럼 땋고 다닌다.

지누어족은 일부일처제이며 남녀는 결혼하기 전에 자유롭게 연애했을 수 있다. 어떤 경우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다가 첫아이를 낳으면 비로소 결혼식을 거행하기도 한다. 결혼에 있어 신부 아버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여 반드시 그가 찬성한

후에야 결혼할 수 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을 때 반드시 장인과 장인에게 지참금을 주어야 한다.

주거환경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대나무를 이용하여 간란(幹欄)식의 대나무 정자(竹樓)를 건축한다. 근래들어 나무 기둥과 돌로 기초를 세운 신식 대나무 누각으로 개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벽돌이나 기와로 된 신식 가옥으로 이주하고 있다.

남자는 남색이나 검은색의 긴 머리수건을 두른다. 흰색의 소매 없는 수놓은 상의를 입는다(성년이 된 남자는 뒤에 달을 상징하는 도안을 수놓는다). 하의는 흰색 또는 남색의 통이 넓은 바지를 입는다. 여자는 머리에 삼베로 된 모자를 쓰고 얇은 상의를 입고 겹에는 소매가 없는 흰색의 짧은 옷을 입는다. 남녀 모두 맨발로 다니며 발목에 끈을 맨다. 귀를 뚫어 귀걸이를 한다. 여자들은 치아를 검게 물들이고 다닌다.

지누어족의 장례식은 매우 특이하다. 사람이 죽으면 마을 사람들이 큰 나무를 잘라 중간부분을 파내어 목관(木棺)을 만든다. 염을 하여 입관할 때는 고인의 생활품을 관에 함께 놓으며 친지와 친구들은 고인에게 예물을 선물한다. 이것은 고인이 사후에 사용하도록 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공동묘지에 도착하면 무덤을 파고 매장하여 대나무 집을 세운다. 가

족들은 매일 대나무 집에서 매일 3번 씩 상을 차린다. 3년이 지나야 대나무 집을 철거할 수 있다. 공동묘지 터를 확장할 수 없기에 새로 매장할 관을 이미 매장된 묘에 다시 묻기도 한다.

리족(黎族: Li)

리족은 대부분 남해의 야광옥이라 불리는 해남도(海南島)에 거주하며 사회제도는 원시 공동체 말기 형태다.

리족의 혼인은 일부일처제이며 동성동족(同姓同族)간에는 결혼할 수 없다. 서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젊은 남녀들의 연애 방식은 매우 특이하다.

밤만 되면 젊은 처녀들은 자기 방숙(放宿:방갈로 같은 오두막집)에 가서 산과 들에서 꺾어온 꽃으로 방을 예쁘게 장식해 놓고 마음에 드는 총각이 오기를 은근히 기다린다. 총각들도 해가 지면 앞다투어 방숙으로 몰려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처녀가 있는 방숙 옆에서 구슬프게 피리를 불거나 사랑의 노래를 열창한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나 길게는 2~3년씩 일편단심으로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구애한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밤을 꼬박 새우면서까지 호소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수단으로 무당을 동원한다. 처녀는 총각이 마음에 들면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선택권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다.

리족 부녀자들이 문신하는



얼굴 문신을 한 고산족

것은 전통적인 풍속으로서 몸에 새긴 무늬는 다양한 지역과 지파를 대표한다. 즉 리족사회에서 행해지는 문신은 단순한 미적추구 뿐만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의미는 지역별 씨족의 신분지표라는 것이다.

리족의 민속춤은 독특한 풍미가 있는데, 특히 타죽무(打竹舞)가 색다르다. 이 춤은 리족의 거주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색다른 춤이기에 흥미를 끈다. 리족이 집단 거주하는 해남도의 오지산(五指山) 일대에는 중국 대륙에서도 대나무 숲이 가장 유명하다.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죽세공품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고장이다. 대표적

인 대나무 춤인 타죽무는 먼저 평지에 큰 대나무 장대를 평형으로 길게 뻗쳐 놓는다. 그 위에 다시 6개의 작은 대나무 장대를 옆으로 걸친다. 이어 6명으로 구성된 대나무 반주자가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며 쭈그러 앉아 장단을 맞춘다. 제각기 두 손으로 대나무 장대 끝을 맞부딪히며 일정한 리듬을 맞춘다. 고유 의상을 걸친 무용수가 공간을 왔다갔다하며 깡충깡충 토끼 춤을 춘다. 장내는 춤 열기로 금세 가득 찬다.

서족(畚族:She)

서족의 혼인 제도는 일부일처제이다. 일반적으로 씨족외혼

이며 동성(同姓)간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과거 서족, 한족간에는 통혼을 엄격히 금지하였으나, 족속의 규정이 완화되면서 이들 사이의 결혼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다.

젊은이들의 연애 및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젊은이들은 노동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며 이 때, 서로 민요를 불러 화답하면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한다. 결혼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훗날 매매혼(買賣婚)이나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독단적으로 배우자를 정해 결혼하는 풍습(包辦婚姻)이 나타나 많은 비극을

연출하였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많이 개선되었다.

운동을 좋아하는 서족인들에게 무술은 최고의 인기 종목이다. 많은 무술 사범들이 무술을 단순한 무공(武功)으로 뿐만 아니라 의술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여 응급 처치로 위기를 넘기곤 한다.

이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먹는 것은 고구마와 옥수수를 쌀과 혼합하여 찐 음식이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여 잔치를 벌일 때만이 밥을 먹는다. 주식 이외에 각종 야채, 다시마, 두부 등을 부식으로 먹으며, 고기는 잘 먹지 않고 술을 즐겨 마신다.

서족은 오랜 전통으로서 화장(火葬)의 풍습을 갖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우선 관속에 입관, 들판에 방치해 둔다. 그래서 시체가 부패하여 뼈만 남으면 비로소 화장하여 유골을 항아리 속에 넣어 땅속에 묻는다.

고산족(高山族:Gaoshan)

고산족은 대만에 살고 있는데, 지금껏 현대 문명을 등지고 민족 독자적인 전통과 고유 풍습을 지키며 살아왔다. 주로 산악지대와 해안 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거나 수렵을 하며 살고 있다.

일부일처제이며 근친결혼은 엄격하게 금지한다. 남녀간에는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하다.

결혼 적령기가 되면 우선 마

을 공동 집회소에서 남녀 모두 모여 일정 기간 합숙에 들어간다. 이 때, 마을 어른들로부터 결혼 생활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아야 결혼 자격이 주어진다. 결혼 상대는 합숙 교육 기간 중 선택하게 마련이다.

일부 부족은 결혼의 증표로 서로의 이빨을 뽑아 교환하는 풍습이 있다. 연애 결혼의 경우는 결혼 전에 미리, 중매 결혼은 첫날밤에 서로의 이를 뽑아 준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헌신한다는 사랑의 희생을 확인하는 것이다. 앞니 2개나 윗 송곳니 2개를 뽑아 피가 묻은 채로 미리 준비해 둔 보석 상자 같은 곳에 넣어 각자가 소중히 보관해 둔다. 이후 부부 중 누가 먼저 죽으면 이빨을 별도로 집 마당 구석에 묻고 자식들과 함께 아침마다 경배를 올린다.

고산족 사회는 지역마다 다른 상황이다. 여전히 모계사회를 고수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부계 사회와 귀족 종실 사회도 존재한다. 모계사회의 가정은 집안의 장녀가 계승한다. 가정은 재산 관리 및 가정 생활, 노동 등을 다스릴 권리를 소유한다. 부계 사회는 남자가 장인이 되며 재산 관리 및 집안 대소사를 관장한다.

음식은 일반적으로 쌀, 고구마, 조, 토란 등을 주식으로 하며 옥수수, 곡류 등도 간간히 먹는다. 물고기를 낚거나 들에

서 나는 식물 등을 채집하여 부식으로 먹기도 한다. 술과 담배를 즐기며 뽕랑나무 열매를 씹는다.

일부 지방에서는 이빨을 뽑는 것 이외에도 문신,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풍습이 남아 있다. 이들은 결혼 후 3, 4년 정도 지나면 자기들의 특기를 과시하기 위해 주로 얼굴 부분이나 턱밑 부분에 문신을 넣는다. 남자는 턱밑에 한 가닥으로 남색 문신과 함께 이빨을 검게 염색한다. 이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용맹스럽다는 표시이며 여자는 얼굴 부분에 방사선 모양으로 3가닥 문신을 넣는다. 이는 자기가 다른 여자들보다 살림을 잘하고 얼마든지 애를 많이 낳을 수 있으며 베 짜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誰來關心我,中國少數民族概覽』, 世界華人福音事工聯絡中心, 1992
- 『中華民族風俗辭典』, 江西教育出版社, 1988
- 『자연과 씨름하는 사람들』, 간경도감, 1993

편집자 주

이번 호로 '중국소수민족을 알자' 연재는 막을 내립니다. 다음호부터 '중국 각 성(省)을 알자'가 연재됩니다.

번역·정리/ 권수영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간사

노구교 사변(盧溝橋 事變)

방지일



1937년 4월 28일 평양을 떠나 내가 자란 곳 선천으로 가서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신의주에 들러 몇몇 분들을 찾아본 다음 대천을 거쳐 해로(海路)로 청도(靑島)에 도착했다. 그리로 통해서 나의 임지인 래양(萊陽)에 5월 7일 도착하였다.

이곳이 바로 내 가친께서 개척하신 곳이다. 해안을 따라 청도로부터 2백80리, 동해안 연태(煙台)로부터 2백70리나 떨어져 있는 산둥반도의 최중앙이면서

도 오지(奧地)인 곳이다. 래양은 산둥 1백8현 중 모범고을로서의 자존심을 가진 성으로, 성내에만 그 인구가 2천 남짓한 고을이다. 성곽은 높이 둘러있고 성 밖으로는 주택이요, 시가가 즐비하게 자리잡고 있다. 성 안보다 성 밖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다. 내 가친은 남문 밖에 자리를 잡으신 바 있다. 거기 선교사 사택이 두 채 지어져 있고 교회당이 튼튼하고 아담하게 지어져 있다. 서문 밖에 침례교 미국 선교사 한 분이 계실 뿐, 외국인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이었다.

나는 말 한 마디 할 줄 모르고 임지에 갔었다. 서양 선교사와는 간단한 영어로 통할 수 있었으나, 중국 목사와 교인들과는 필담으로 의사를 소통할 뿐이었다. 너무도 생소하였다. 그래도 가친이 양육한 사람들이라 나를 푸근하게 대해 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

이들이 처량해 보였다. 또 나를 길러 주신 노조부님도 모시고 갔다. 노조부님은 통 말이 통하지 않아 적적해 하시는데 민망하였다. 그래도 부모님은 늘 전도지를 들고 나가 전도하시는 것으로 일과를 삼으셨다. 그러나 다섯 살인 아들이는 제 동기 외에는 상대할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심심해하는지, 하루는 유리 창문으로 딸을 내다보고 있다가 파리가 유리창에 붙었다 날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파리아, 파리아! 너도 중국말하니?”하는 말을 들을 때 그가 얼마나 가련해 보였는지 모른다.

나는 중국말을 배우기 위해 양우서(楊友緒)라는 인격이 고매하시고 청렴한 분을 선생으로 모셨다. 이분은 서울 중국 교회의 전도사이기도 했고 내 가친의 동역자이기도 했다. 매일 시간을 정하여, 서양 선교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집된 관화유편(官話類篇)이란 책을 중요 교과서로 삼아 배웠다. 한자(漢字)를 전혀 모르는 서구 사람들보다는 배우기가 훨씬 쉬우리라는 생각을 했으나, 실은 좀 안다는 선입관이 있어 바른 발음하기가 더 어려웠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울 때 ‘서구 사람들은 울면서 들어갔다가 웃으면서 나오고, 한국 사람은 웃으면서 들어갔다

가 울면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는 참말이었다. 나는 아는 한자의 발음을 한다고 하지만 듣는 이는 전혀 못 알아듣는다. 중국어를 제대로 하기는 어려웠다.

한 달 남짓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던 중 7월 7일, 소위 77 사변·중일 사변·노구교 사변 등으로 당시에 불려졌던 전쟁이 터졌다. 후에 역사가들이 잘 기록했으리라 보거니와 일본 제국은 자국 팽창을 위해서 한국을 삼키고 대만을 벌써 그 손에 넣었고, 크나큰 만주 땅덩어리를 소위 만주국이라 해서 차지하고도 모자라 대륙에 다시 손을 대려고 하였다. 무슨 트집이라도 만들어 군대를 투입하려는 야망(野望)이 늘었던 것이다.

상해상륙이니 제남사건을 많이 일으키기도 했던 바, 천진 근처 노구교에서 중국인이 일본 주둔군에게 발포했다는 구실을 잡아 이 사건을 일으켰다. 나는 깊은 오지에서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 중국인의 그 배일·항일 운동은 극렬한 것이었다. 전 국민이 총동원 항일 전선을 편다는 등 굉장한 소문은 들렸으나, 훈련이 없고 무장이 없는 터라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경을 점령하고 상해에 상륙하니 해안이 거의 손에 들어가는 듯했다. 내가 있는 곳에도 참호

를 파는 등 전쟁의 도가니였으며 인심은 흉흉하였다. 그 때 이대영, 김순호 두 선교사는 안식년으로 귀국했고, 박상순 목사는 지미에 주재하다가 청도로 이거(移去)했다.

나는 누구와 의논할 수도 없었다. 들리는 바로 청도와 기타 해안의 일본 거류민들은 다 철수했고 박상순 목사도 본국으로 가셨다는 것이다. 결국 나만 혼자 남았다. 그래서 돌아갈 길을 알아내어 아내와 큰딸(7세), 셋째 딸은 청도로 보냈고 그들은 귀국하였다.

조부모님도 가시게 하려니 내가 안 떠나는 한 당신들도 나와 같이 있겠다고 하셔서 아들을 데리고 셋이 남아 있었다. 전란 중에 노인을 모시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견디어야 했다.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다. 나날이 심각한 소식만 이요, 인심은 극히 혼란하였다. 중국인들도 피난을 가느니 마느니 안절부절하고 있는 지경이었다. 남과 북으로 일본군이 대거 침략하는데, 막을 길이 없는 듯했다. 결국 서양 선교사들도 철거하고 나만 거기 있게 됐는데, 악화 일로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 같았다.

『福音歷史半百年』 중에서

방지일/중국어문선교회 고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중국 중남지구의 주요대학

박명수

정주대학(鄭州大學)
Zhengzhou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56년
재학생수 : 8,500여 명(유학생 30명, 대학원생 187명 포함)
교직원수 : 1,135명(교수 47명, 부교수 341명 포함)
소속기관 : 하남성 교육위원회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Politics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Electronics
Computer Science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s
Philosoph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河南省 鄭州市 大學路
鄭州大學外事處

하남대학(河南大學)
Henan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12년
재학생수 : 20,300여 명(유학생 17명, 대학원생 284명 포함)
교직원수 : 1,308명(교수 70명, 부교수 275명 포함)
소속기관 : 하남성 교육위원회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Political Science
Foreign Languages
Education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Physical Culture
Music(II)
Fine Arts
Geograph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河南省 開封市 明倫街 85號
河南大學外事處



중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무한대학(武漢大學)
Wuhan University

학교소개

국가교육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가중점대학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학교의 역사는 청나라 말기인 1890년 호광(湖廣)지역의 총독이었던 장지동(張之洞)에 의해 설립되었던 자강학당(自強學堂)으로부터 시작된 뒤, 1902년에는 방언학당(方言學堂)으로 1913년에는 제 2국립고등사범학교(第2國立高等師範學校)와 무창고등사범학교(武昌高等師範學校) 등으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또한 1926년 가을에는 무한의 국민정부(國民政府)에 의해 국립상과대학, 호북성 성립 의과대학, 법과대학, 문과대학, 사립문화(文華)대학, 중화(中華)대학 등 7개 대학을 병합 국립무창중산대학(國立武昌中山大學)으로 개편되어 설립됨으로써 이 학교는 손문을 기념 제2의 중산대학으로 불리지기도 했다.

현재 32개 학과에 65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1,600여 명의 대학원생 포함 12,000여 명의 재학생과 620여 명의 정·부교수 포함 2,200여 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ournalism
History
Philosophy
Political and Ideological Education
Economics
World Economy
Finance and Insurance
Finance and Auditorial Science
Economic Management
International Economic Management
Administrative Management in Industry and Commerce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Law
International Law
Politics
Library Science
Information Processing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s
English Languages and Literatures
French Languages and Literatures
Mathematics
Statistics
Computer Science

Physics
Space Physics
Radio Information Engineering
Chemistry
Environmental Science
Biology
Virology and Molecular Biolog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湖北省 武漢市 武昌路
珞珈山 武漢大學 留學生部

호북대학(湖北大學)

Hubei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30년
재학생수 : 10,100여 명(유학생·대학원생 157명 포함)
교직원수 : 701명(교수 22명, 부교수 185명 포함)
소속기관 : 호북성 교육위원회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Political Education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Biology
Geography
Physical Educati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湖北省 義戴 武昌寶織庵
湖北大學外事處

상담대학(湘潭大學)

Xiangtan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58년
재학생수 : 9,400여 명(대학원생 208명 포함)
교직원수 : 843명(교수 22명, 부교수 157명 포함)
소속기관 : 호남성 교육위원회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Economic
Philosophy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s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Mechanic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湖南省 湘潭市 西郊 羊枯塘
湘潭大學外事處

중산대학(中山大學)

Zhongshan University

학교소개

근세 중국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가로 기록되고 있는 손문(孫文) 선생이 설립한 대학으로 유명한 이 학교의 역사는 1924년에 시작되었다.

이 학교는 설립자인 손문을 비롯하여 모택동, 주은래 등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다수가 이 학교에서 연구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한 역사로 인해 정치적으로도 그 비중을 인정받고 있으며, 1925년 3월 12일 손문이 죽은 후인 1926년에 교명을 손문의 호를 딴 중산대학으로 개칭하였다.

이 학교는 현재 관리학원, 손문학원, 영남학원 등 6개 부설학원(學院)과 23개 학부 43개 전공에서 1만 1천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정·부교수 600여 명을 포함 모두 1,800여 명의 교직원이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가중점대학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학교에는 인

구, 중국고문헌, 고분자(高分子), 곤충학 연구소 등 모두 50여개의 연구소와 연구실, 그리고 120여개의 실험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중국 대학 가운데 교학(敎學)과 과학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Philosophy

Economics

Radioelectronics

Atmospheric Science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Management

Mathematics

Chemistry

Biology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s

Law

Mechanics

Anthropology

Sociology

Computer Science

Geography

History

Physics

Geolog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廣東省 廣州市 海珠區 中山大學外事處 留學生科

심천대학(深圳大學)

Shenzhen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83년

재학생수 : 7,900여 명

교직원수 : 390명(교수 15명, 부교수 84명 포함)

소속기관 : 광둥성 고등교육국

개설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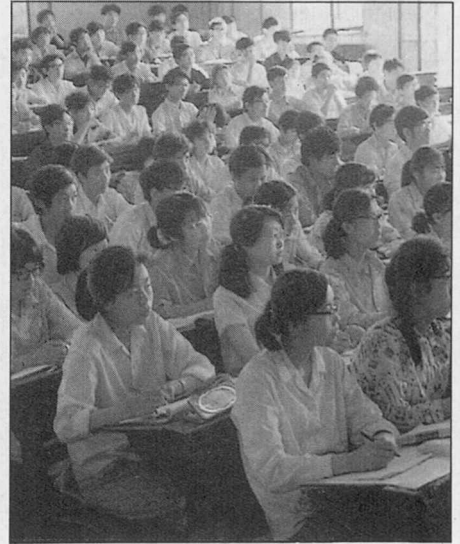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Economics

Management

학교주소

華人民共和國 廣東省 深圳市
深圳大學 外事處



광서대학(廣西大學)

Guangxi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28년

재학생수 : 6,300여 명(유학생·대학원생 154명 포함)

교직원수 : 1,068명(교수 21명, 부교수 275명 포함)

소속기관 : 광서장족자치구 교육위원회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Ore Exploitation

Electric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ournalism

Economics

Foreign Languages
Philosoph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廣西壯族自治區 南寧市
西鄉塘東路 10號 廣西大學外事處

해남대학(海南大學)

Hainan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83년

재학생수 : 4,350여 명

교직원수 : 544명(교수 13명, 부교수 98명 포함)

소속기관 : 해남성 교육청

개설학과

학 부

Dept. of Engineering

Dept. of Agriculture

Dept. of Social Sciences

Dept. of Arts

Dept. of Medicine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海南省 海口市
海南大學外事處

화중이공대학(華中理工大學)

**Central Chin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학교소개

중국 국가교육위원회 직속의 국가중점대학으로 지정되어 있는 화중이공대학의 역사는 1953년 무한대학, 호남대학, 광서대학, 남창대학의 기계공학, 전기공학, 동력공학 등의 학부와 시설, 교수, 학생을 병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의 저명 공과대학으로 성장한 이 학교는 과학, 기술, 예술, 경영 등의 24개 학부에 51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52개 석사과정과 21개 박사과정 등에 대학원생

1,700여 명 포함 14,000여 명의 학생과 정.부 교수 810명 포함 2,660여 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등 중국내에서 세 번째로 학생수가 많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Mechanical Engineering(I)

Mechanical Engineering(II)

Power Engineering

Electrical Power Engineering

Marine and Oceanographic Engineering

Mechanics

Optical Engineering

Bioengineering

Electronic and Information Engineering

Solid State Electronics

Automatic Contro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Architecture

Structure Engineering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ournalism

Social Sciences

Economics

Management Engineering

Sociology

Foreign Language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湖北省 武漢市 武昌 喻家山
中華理工大學外事處

중국지질대학(中國地質大學)

China University of Geology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52년

재학생수 : 5,600여 명(740여 명의 대학원생 포함)

교직원수 : 1,340여명(정·부교수 394명 포함)

소속기관 : 국가 지질광산부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Geology
Mineral Deposits
Hydrogeology and Engineering Geology
Geochemistry
Petroleum Geology
Applied Geophysics
Exploration Engineering
Applied Chemistr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湖北省 武漢市 武昌 喻家山
中國地質大學 國際合作處

호남대학(湖南大學)

Hunan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26년
재학생수 : 9,000여 명(대학원생 466명 포함)
교직원수 : 1,110명(교수 70명, 부교수 311명 포함)
소속기관 : 국가 기계전자(機械電子) 공업부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ivil Engineering
Chemistry and Chemic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Economic Management Engineering
Humanities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
Applied Mathematics
Applied Physics
Engineering Mechanics
Environment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Architecture
Industrial Design
박사과정(Doctoral Programs)
Structural Engineering
Applied Mathematics
Analytical Chemistry
Inorganic Non-metallic Material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湖南省 長沙市 岳麓山
湖南大學外事處

광주중의학원(廣州中醫學院)

Cuangzhou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학교소개

중국4대 중의학원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광주중의학원은 1956년에 설립되었다. 처음 한방약학과(中醫藥學)전공 1개만을 운영하였던 이학교는 1977년 중약학(中藥學)과 침술학(針灸學)과를 추가함으로써 종합적인 중의대학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이 학교에는 3개 학부에 8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21개의 석사과정과 7개의 박사과정에서 모두 1,400여 명의 학부생을 포함 2,200여 명의 재학생과 140여 명의 정·부교수등 600여 명의 교수진이 재직하고 있다.

또한 국가중의약관리국(國家中醫藥管理局)직속 중의학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학교에는 병상수 1,000여 개 규모의 부속병원 2개가 부설되어 있으며, 설립 이후 지금까지 1만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온 유명 중의대학으로 전국에서 그 명성이 높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raditional Chinese Pharmacology
Accupuncture and Moxibustion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廣東省 廣州市 三元里 機場路
廣州中醫學院 外國留學生 工作辦公室

편집자 주:

지면관계상 해남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개설학부에 석사과정만을 실었습니다. 상세한 자료 및 중국 유학에 관해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은 위 자료를 제공한 박명수 선생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778-3773

박명수/ 청와대 공보비서실 근무
『중국유학가이드』 저자
(현)계성문화관광 대표

한국의 첫 중국선교사 박태로(朴泰魯) 목사 (1870~1918)

김교철

황해도 재령읍교회의

첫 한국인 목사 박태로

박태로 목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황해도 지역 교회 역사와 재령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언급하는 것이 바른 순서가 될 것이다.

황해도는 중국의 산둥성과 마주하고 있으며 한국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다. 외국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외지(만주)에서 복음을 수용한 한국인들에 의하여 자생적인 교회가 형성되었던 지역이 바로 황해도인 것이다. “한글로 번역한 누가복음과 요한 복음을 1883년에 서상륜(徐相崙)씨가 휴대(攜帶)하고 귀국하여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하여 1884년에 황해도 송천(松川)에 교회를 설립한 것이 한국 장로교회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 북장로회 최초 선교사 원두우(元斗尤)목사가 1887년 9월 27일 서울 새문안(新門內)교회를 설립한 것이 한국교회 두 번째 교회 설립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창립 50주년 약사, 1962. p. 24).

황해도 장연에 설립된 소래교회는 “한국 개신교의 요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곳이다. 1886년 말 소래의 서상륜이 서울에 거주하는 언더우드를 찾아와 소래의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초기의 외래 선교사들이 북부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들이 방문한 주요 지역이 바로 소래, 평양, 의주 등지이다. 1898년도에는 이미 해주와 소래를 중심으로 하는 황해도 서부지역에 42개의 예배처소와 14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600명 이상의 세례교인과 350명에 이르는 학습 교인이 생기게 되었다.

개신교가 황해도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기 훨씬 전인 1801년 신유박해 이전에 이미 황해도 지역에 천주교가 전래되어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개신교가 황해도 지역에 적극적인 활동을 펴기 시작하여 상호 갈등과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1900년 해서교안(海西教案)을 발생케 하였던 것이다.

황해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선교활동을 펼친 북장로회와 북감리회 가운데 북장로회는, 1909년 당시 황주, 재령, 장연, 안악, 신천, 봉산, 수안 일부, 곡산 등 그 외 여러 지역을 담당, 선교활동을 진행

하고 있었다.

박태로 목사는 1870년경 황해도 황주에서 출생하여 1898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가정에서 성장했는지, 입신 동기와 과정은 어떠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밝혀주는 문헌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박태로 목사가 1900년 음력 1월에 김익두를 전도하여 목사가 되게 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으나 확실히 뒷받침해주는 문헌을 아직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박태로 목사(박태로는 1912년 6월 28일 제2회 황해도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가 일찍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 들였으며, 자신 뿐만 아니라 그의 두 동생 박태화(朴泰化, 1914년 6월 26일 제 6회 황해도회에서 당포교회 장로로 안수 허락이 되었다), 박태선(朴泰善, 모동교회 장로)을 전도하여 가문 전체를 기독교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박태로 목사가 일찍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뚜렷한 증거가 있다.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미북장로회, 남장로회, 호주장로회, 캐나다장로회 4대 선교회는 1893년에 세칭 영어 공의회를 조직하였고, 1901년에는 한어 공의회를 조직하여 한국인들도 공의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1901년의 한국어 공의회(경성, 정동예배당)에 24명의 선교사 대표와 3명의 한국인 장로(서경조, 방기창, 김종섭), 6명의 조사 대표가 참석을 하였다. 이 공의회는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는데, 1906년 9월 12일 경성연동중학교에서 열린 공의회에 박태로 목사가 평안소회(平安小會) 총대로 참석

하였다. 당시 전국적으로 5개의 소회(小會)가 조직되어 있었다. 경성, 평안, 경상, 전라, 함경소회에서 참석한 전체 회원 83명 중에 38명이 평안소회 회원이었다. 당시 서북 지역의 교세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통계라 하겠다.

평안소회 회원 중 장로회원인 양전백, 김찬성, 우종서, 송린서, 한석진, 방기창, 주공삼 그리고 박태로와 함께 총대회원으로 참석한 김익두 등은 익히 잘 알려진 인물들이다.

박태로와 김익두와의 관계는 좀 더 연구해 보아야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미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공의회에 참석한 회원들 모두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한국인 회원들은 모두 초기 선교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람들이다.

박태로는 이미 신임을 받고 있는 유망한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가 예수교장로회 공의회에 참석한 1906년 9월, 바로 4개월 전인 5월 1일부터 재령에 선교지부가 개설되었다. 그 전의 선교중심지가 안악과 해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부가 재령에 선교지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리상의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당시 재령은 인구 5,000여 명의 상업중심 도시의 하나였는데, 후에 철도 노선과 연계되면서 재령은 황해도 교회의 중심 도시가 되어, 1907년부터 1914년까지 재령에 설립된 교회의 수는 20여 개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박태로는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 수업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1912년에 졸업한 것으로 보아 대략 1907-1908년경에 입학하였을 것이



장승원 그림

다. 당시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전쟁과 분쟁과 박해를 통과하여 지도자적 위치에 이미 부상해 있었던 엄선된 사람들이었다. 세례를 받은 지 최소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한 지교회의 직분자로 최소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학할 자격이 없었다. 각 사람은 지교회의 지도자로서 오랜기간 동안 견습을 쌓아오고 시장터와 노방 전도 및 축호 전도를 통해 스스로가 훌륭한 사역자임을 실증해 보인 사람들이어야 했다.

당시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가족이 딸려 있고 재산이 별로 없었으므로 학업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그들이 조사로서 섬기는 교회나 순회 교구들은 일년 내내 그들에게 사례금을 지불하고, 매년 3개월 반씩 학업을 위해 자유시간을 주었다. 박태로가 신학수업을 받는 기간 동안 어느 지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하여서는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하겠으나 그가 가족을 거느리고 있

었음은 확실하다.

박창환 박사(박태화 장로의 손자, 박경구 목사의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박태로 목사의 아들은 박경희, 딸은 박경애라고 한다. 두 자녀 이름 외에는 가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초기의 신학생들은 안수받은 후 교회가 부담할 수 있는 봉급을 받으면서 목사로서 해당 교회를 섬긴다는 약정이 맺어져 있었다고 곽안련 박사는 말하고 있다.

박태로가 신학생 시절 후반기인 1911년에 재령에서 피택장로로 안수받게 된 사실을 볼 때, 그 이전에 이미 재령읍교회에서 다년 간 신앙생활을 하였고 인정받은 지도자의 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다(조선예수장로회사기 하권).

당시에 신학교는 5년 과정이었는데, 1901년에 시작된 평양신학교(조선예수장로회 신학교)는 처음 10여 년 동안의 도적으로 신학교의 수업 기간을 일년에

3개월 반 정도로만 잡았다. 이는 학생들이 나머지 기간에 순회 교구에서 사역을 행하면서 교재와 실제 사역을 병행하기 위해서였다.

졸업생을 살펴보면 1회 졸업생이 7명(1907년), 2회 8명(1909년), 3회 27명(1910년), 4회 16명(1911년)이다. 4회 졸업생 중에 중국 선교사로 간 홍승한 목사(1917년 파송)가 포함되어 있다(예수교장로회연감, 1940).

1911년 12월 8일 봉산군 영천면 모동 예배당에서 황해노회 조직⁴ 노회가 개최되었는데, 안수받은 한국인 목사는 이원민, 우중서, 김익두 3인이 전부였다(3명의 목사는 이미 목사 안수받은 자임). 설립노회에서 박태로는 다른 18명의 신학생과 함께 신학을 계속하도록 추천 받았으며 황해노회가 설립되면서 다른 8명과 함께 피택장로 안수허락을 받았다. 황해노회가 설립되면서 처음으로 허락한 피택장로 중의 한 사람이 된 것이다.

박태로 장로는 1912년 6월, 10명의 동료 신학생과 함께 제5회로 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장로교회사 전회집, 1918), 1912년 6월 28일 재령 남산예배당(재령읍교회 설립 초기에는 재령남산현 교회라 불리어졌다고 한다)에서 개최된 제2회 황해노회에서 신학교 졸업 동기 최병은과 함께 목사안수를 받게 된다.

“신학 준사 박태로, 최병은 2인을 안수하여 재령과 모동교회 위임 목사로 임명하다”

박태로, 최병은 목사는 황해노회가 조직된 이래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다.

(황해노회 100회사에 최병은이 1913년 6월 27일 제3회로 목사 안수받은 것으로 표기됨).

박태로 목사는 안수를 받자마자 재령

읍교회 위임목사로 임명되었는데, 당시 재령읍교회를 맡아 시무하던 교역자는 한국인이 아닌 외래 선교사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W. B. Hunt(한위럼), E. W. Koons(군례반) 선교사 등을 들 수 있다.

재령읍교회는 1895년에 설립되었다(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1928). 재령읍교회는 1,000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커다란 새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로 이미 당회까지 조직되어 있고 학교도 설립한 큰 교회였다. 이러한 교회에서 박태로는 첫 번째 한국인 목사가 되었다(로테스 박사는 박태로가 1911년 봄에 신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오기함.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884-1934).

선교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회에서 한국인 중심의 교회로 전환되는 시점에 박태로 목사가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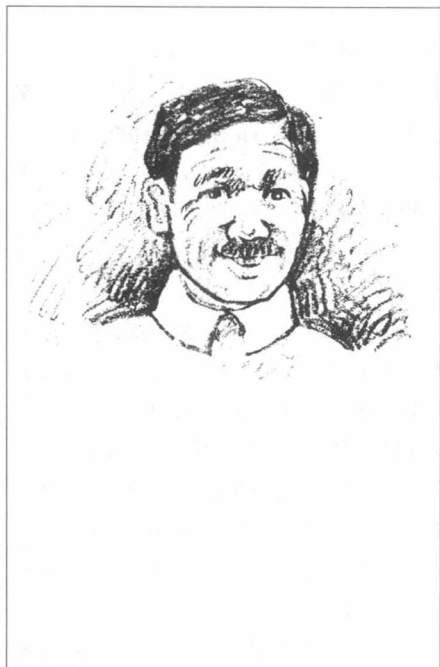
바야흐로 한국인 박태로 목사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제반 준비가 다 된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창립과 그 기념사업

1912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예수교장로회 조선 총회 제일교회가 평남 평양 경창문안 여성경학원에서 개최되었다(조선총회제일회의록, 1912).

창립총회는 최초의 안건으로서, 독로회의 창립(1907년)이 선교교회를 지향했던 것처럼 선교 교회의 사명을 다시 다짐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 외국전도를 시작하되 1년 중 한 주일을 특별히 택정하여 각 교회에서 기도와 헌금을 하기로 결의가 되었다.

“로회를 시작할 때에 제주에 선교사를 보냄으로 신령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바이온족 지금 총회를 시작할 때에도 외국전도를 시작하되 지나(支那-중국)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청원 하오며”.

총회 창립과 함께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해외거주 한국민족을 대상으로 하던 사역과 달리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첫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장로회 총회가 외국 전도의 첫 대상국을 중국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외국 전도를 시작하되 지나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노회는 과연 어느 노회일까? 그리고 1913년에 중국으로 파송받은 3명의 선교사들 중 가장 먼저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는 과연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3명의 한국 선교사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을 똑같이 파송된 선교사로 역사 연구자들이 기록을 해 왔다. 독자들은 이제 필자의 의도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1911년 대구에서 열린 마지막 독노회는 1912년에 총회를 창립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당시의 한국독노회를 총회로 전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각 대리회들이 영역과 구성원은 그대로 둔 채 완전한 노회로 발전하고 독노회가 총회로 승급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황해도 대리회는 독노회의 결정대로 1911년 12월 8일 황해도노회로 승격, 설립이 되었고 설립노회에서 박태로는 피택장로로 허락이 되었다. 이어서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개최되기 전인 1912년 6월 28일, 제 2회 황해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음과 동시에 재령읍교회 위임 목사로 임명이 되었다.

제2회 황해도노회는 전도부(독노회-총회)에 의하여 선교사를 청국(중국) 지방에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기로 총회에 헌의하도록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해 9월에 열린 창립총회에 중국 선교사 파송청원이 제출되었다. 창립총회의 헌의위원은 마포삼열, 리눌서, 한위렴, 곽안년, 김찬성, 리여한, 홍승한, 김선두 등 8명으로 황해도 노회에서 헌의한 것은 전도국으로 보냈다고 하는 기록을 찾아보게 된다. 헌의위원중 황해도노회에 소속된 위원은 바로 한위렴 선교사이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황해도노회는 한위렴, 사우업, 우종서, 김익두, 최병은, 박태로, 이원민, 공위랑이며 장로는 18명이 참석하였다. 창립총회에 제출된 황해도 노회 보고서에 황해도노회는 장래 사건으로 남녀 교우가 외국 전도할 일을 경영함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전도국위원의 보고와 청원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 역시 매우 의미가 있다.

“황해도 노회 헌의는 총회에서 허락하면 그 일은 전도국에서 주장하나 부비

(浮費)는 본 로회에서 전도국에 가는 연보와 감사일 연보로 담당하겠다 함에 대하여 감사히 받음.”

총회 전도국은 창립총회의 헌의위원이자 전도국위원인 한위럼(W. B. Hunt)과 협의하여 그가 적합한 선교지를 물색하고 조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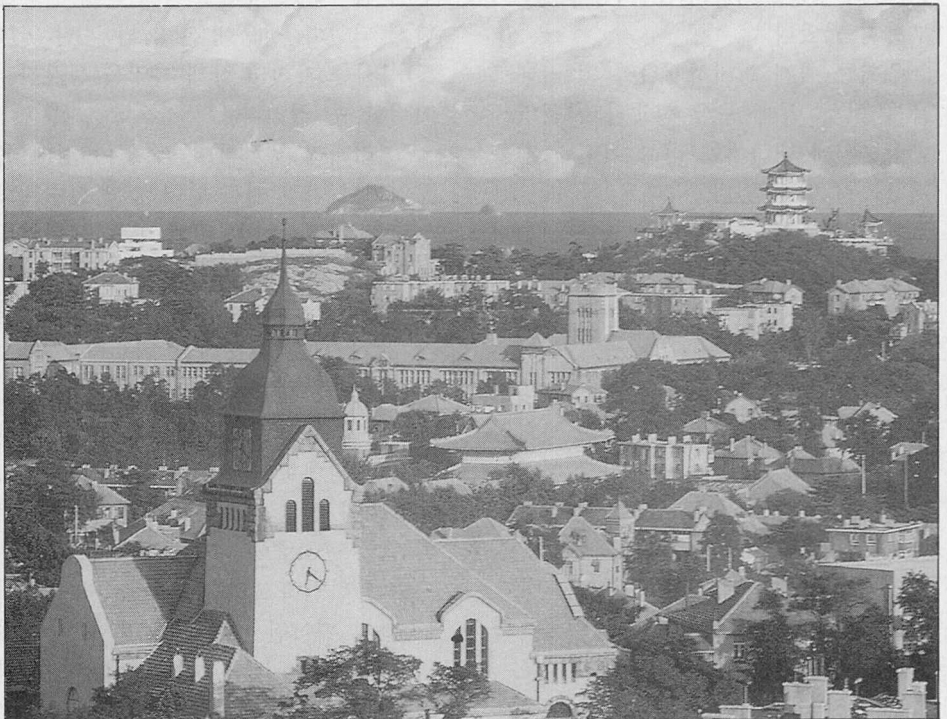
한위럼 선교사는 중국을 방문하여 선교 가능성 있는 지역을 조사하였고 중국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 협의도 하고 미국 선교사들과도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하였다. 그 결과 매우 긍정적인 내용의 시찰보고가 이루어졌다.

방위랑(W. N. Blair) 선교사(창립총회 회계)는 그의 글에서, 1912년 총회가 재령의 박태로목사를 한국교회의 첫 번째 중국선교사로 임명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The Korea Mission Field, 1915).

박태로 목사는 중국선교사로 임명된 첫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가 정확히 언제쯤 중국선교사로 지명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아는 바가 없다. 한위럼 선교사의 중국방문 시기 역시 그렇다. 대략 1912년 총회가 끝난 때로부터 시작하여 1913년 5월 이전인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창립총회 후인 1912년 12월 5일에 제3회 황해노회가 송천(松川)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되었는데, 부회장 한위럼 인도를 개최하여 신임회장에 사우업, 서기에 박태로 목사, 회계에 정찬유 장로가 선출되었다(황해노회 100회사에 4회의 서기도 박태로라고 오기, 사실은 최병은임). 1912년 12월에 노회 서기로 선택된 것을 볼 때 중국 선교사로 그 때까지는 지명이 안 된 듯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13년 5월 이전



산동성 청도시(靑島市) 전경. 독일식으로 지어진 주택과 천주교당이 특이하다.

에 중국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교인 1,000여 명의 재령읍교회 위임목사이자 노회 서기인 박태로 목사가 중국 선교사로 나간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위럼 선교사와 박태로 목사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있겠으나 일단 선발 과정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관련 박사는 다음과 같이 조선 총회의 중국선교사 선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회의 모든 목회자가 자발적인 해외 근무 직원이 된다는 것은 한국의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러한 외지의 선교사역을 위해 사람을 선정할 때는, 각 경우마다 담당 위원회가 선교지에 있는 선택 가능한 사역자들을 조사하여 그 선교과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정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 때 선택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선교사로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회미하게나마 왜 박태로 목사가 첫 번째 중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있다. 박태로 목사는 장로회 조선총회 창립기념 대사업의 중임을 맡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선택을 받았고 그 역시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이야기이다. 대교회의 목사이자 영향력 있는 노회임원이 총회 명령을 따라 선교사로 떠났다는 사실에서 오늘날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중화민국 산둥성으로……(제1차 중국 선교지 산둥방문 1913년 5월)

“전능하신 하나님여 지금 중화민국으로 보내신 선교사 박태로 목사를 보호하

시고 옛날 바울의 앞에 열림같이 복음 전할 문을 널리 열어주소서. 아멘”(예수교회보, 대정2년-기도 모임-).

게일(J. S. Gale)이 편집, 발행한 예수교회보에 “중화민국으로 보내신 선교사 박태로 목사”라는 표현이 나온다. 박태로 목사는 조선예수장로회 총회전도국의 택함을 받아 중국 산둥에 전도차, 1913년 5월 5일 고향을 떠나 신의주에서 료선을 타고 황해를 건너 연대에 도착케 되었다.

박태로 목사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평남 안주교회 김찬성 목사와 함께 산둥장로회와 선교지역 정하는 문제를 협의키 위한 위원회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산둥 몇 고을을 순행, 방문하였는데, 그들은 연대의 남서부에 위치한 래양에 선교부를 설치하도록 조언을 받았다. 김찬성 목사는 먼저 귀국하고 박태로 목사 혼자 산둥에 남게 되었다. 산둥에 혼자 남게 된 박태로 목사는 자신의 장래 사역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리저리 생각하니 죄 없이 정배 온 모양이나 이것 저것 덮어 놓고 신령계로 생각한즉 감사하고 기쁜 마음 태평양도 부족이라 시시마다 홀로 앉아 동천 향해 기도하며 삼위 주께 통정하나, 이곳 인생 형편 보면 가공하고 가련하오 많고 많은 숫한 인종 박의박식 가련하되, 동네마다 좋은 집은 우상봉사하는 묘요 부녀들의 정형보면 가련한 중 극하도다.

발조려 병신되니 행보키 불능이라. 이와 같이 곤고중에 예수신도 별부하니 목도하기 한심하고 마음조차 절벽이니 어느 날에 깨어질까 여보 우리 부형 자매님네들 본방에 역사 하는 형님들이여 일일시시 곤고할 때 이 형편을 생각하고 우리 조선 받은 복은 특별한 줄 깊이 알

고 특별하신 성력으로 이곳 위해 기도하며 진심 감사 드립니다. 두루 형편 생각한즉 전도문은 열렸으니 우리들이 힘만 쓰면 주의 뜻을 이룰 줄 아오니 교제(박태로 자신을 말함-필자 주)위해 구할 것은 오순절에 주신 성신 만세토록 방언주고 하루 회개 삼천인도 만국 중에 될 것 인즉 이를 위해 빌어 주옵소서”.

박태로 목사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는 것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었다. 박태로 목사는 혼자 산동성 위해위 예수교강서당(講書堂)에 머물면서 산동선교지 형편을 파악하고 중국어를 공부하였다. ‘40여 세에 선교사로 부름받아 중국관화를 배우려니 정신이 부족하여 기억하기 어려움으로 능히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찾아오곤 하였으나 마가복음 10:2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를 보고 능히 될 것을 깨닫고 힘을 얻었다고 한다.

박태로 목사는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썼으며 모든 당면한 일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위로와 힘을 얻었다. 1913년 5월 26일 산동성 위해위 강서당에서 박태로 목사가 보낸 편지를 읽어보자.

“본향 생각에 위로인데 벤전 2:11절(사랑하는 자들이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니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을 본즉 무비 다 객지요, 부모 형제를 생각할 때에 마태 7:11절(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을 보고 천부님을 만나보며, 거처 곤란할 때에 요한14:2

절(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를 보고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며, 음식에 불평할 때에 묵시2:7절(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에 생명수 열매를 맛보며, 언어를 모름으로 답답한 때에 내가 천국 방언을 안 것과, 또 오순절을 기다리며 통언정이 없음으로 답답할 때에 요일1:3절(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과, 또 기도로 삼위와 때마다 통정하며 친구 생각이 간절할 때에 요한 15:15절(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참 친구를 만나보며 또 노회때 사진과 남녀 도사경 때 사진과 신학교 사진과 각 사진으로도 친구를 만나보고 많이 위로가 되며 동락하는 영광이 없을 때 묵시 21장을 보고 또 찬미를 부르는데,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고 큰 기쁨을 얻으며 이 술한 인종을 바라보니 바윗돌 같은 마음을 어찌하여야 예수를 알게할까 답답하던 차에 행2:41절(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을 보니 한 날에 3천 명 회개시키신 성신을 의지하니 참 위로가 되오며”.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파송되다(1913년 11월경).

제4회 황해노회가 1913년 6월 27일 김

익두 목사가 사우업 선교사와 동사무사로 시무하는 신천읍교회에서 개최되었는데, 박태로 목사가 중화민국 선교사로 총회전도국에 의하여 청빙된 고로 재령읍교회의 위임 목사직이 사면되고 그가 맡고 있던 황해도회 서기직 역시 신학교 졸업 동기이자 함께 목사 안수를 받은 최병은 목사가 맡게 되었다.

1913년 9월 7일 제2회 장로회 총회가 경성 소안동에배당에서 개최되었을 때 박태로 목사는 산동성지역 시찰한 정형을 총회 앞에 강설하였고, 중국 선교사로 추가 임명된 김영훈, 사병순 목사와 함께 총회 앞에서 지면례를 거행하였다.

김영훈, 사병순 목사는 1913년 제6회로 신학교를 졸업하였고, 사병순은 1913년 6월 12일 평남노회에서, 김영훈은 1913년 8월 26일 평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중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한국 교회가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 3명 모두 북한 지역 교회 출신이었다. 한국 교회가 타민족을 대상으로 한 해외선교사업은 바로 1913년에 시작되었다(중국산동선교 시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국연구 2권과 중국선교(3)을 참조하라).

1913년 11월, 박태로 목사는 추가로 임명된 김영훈, 사병순 목사와 그 가족 일행과 함께 료선을 타고 중국으로 출발하였다. 산동 연대에 도착, 며칠 간 머문 후에 선교지 래양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연대에서 래양까지는 먼 거리여서 박 목사 일행은 고생을 겪어야만 했다. 래양에 도착한 선교사 일행을 위해 셋집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한 가족당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다.

당시 박태로 목사의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었는지, 자녀들의 나이는 어떠했는

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Kerr의 글을 통해서 유소년기의 자녀가 아니었겠는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당시 래양은 교통이 매우 불편한 오지로 당지에서 생산하는 곡물은 밀가루, 소미 등이었고 쌀이라는 것은 구경도 못하는 곳이었다. 박태로 목사 일행은 우선 몇몇 필요한 부엌도구를 빌려 보려고 시도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가게를 다니며 구입 가능한 도구들을 사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작은 나라 조선에서 온 선교사들은 중국인들로부터 거의 존경스러운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구경꾼들이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집안에까지 들어와 주시했고, 그러한 중국인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조차 욕지거리와 비난만을 가져오는 결과로 나타났다.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목사와 그 가족들은 임대 가옥에 거주하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상 선교사 사모들은 전혀 중국어를 배울 기회조차 갖기가 용이치 아니하였다.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으로 인하여 중국어를 배울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은 길거리에서 뛰놀며 나쁜 말까지 배우고 싸우기도 하였다. 첫 선교사와 가족들은 가장 기본적인 주거와 음식, 기후, 언어 문제 외에 자녀 교육에 대한 방안이 전무한 상태였다. 자녀교육을 시키려면 선교사 중에 누군가가 진행 중인 언어공부와 사역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래양에는 단 한 명의 의사조차 없어서 질병에 대처할 방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최초의 중국인 신도에게 세례를 베풀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박 목사와 그의

동역자들은 중국어를 배우는 한편 전도를 시작하여 몇몇 교인을 얻었고, 부근 각촌에 있던 교인 5-6인을 합하여 성내에 교회를 시작하여 1915년에 이르러서는 교인의 총수가 40여 명, 평균 30여 명이 회집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5년에는 최초로 중국인 교우 3명에게 첫세례를 베풀게 되었다. 박태로목사는 그가 1913년 5월에 머물렀던 위해위 근처에 위치한 문등(文登)에 전도차 갔다가 영국 선교사에게 축출을 당하기도 하였다. 문등이라는 읍은 영국 형제교회 목사가 중국정부의 특허를 얻어 타 교파는 와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1915년 성탄절에는 중국 교우들과 함께 감옥 죄수들에게도 전도하는 등 열심을 다 하였다. 박태로 목사는 자신에 대하여, 중국발음을 모르기 때문에 글자를 아는 무식자라고 했었다. 그러나 한자를 이미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서양선교사들보다 훨씬 빨리 적응해 나갈 수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건강을 잃게 된다. 박태로 목사는 1915년 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였다(기독신보, 1916년). 기침으로부터 시작하여 몸이 아프게 된 고로 1916년 4월 26일 그의 동료 선교사들과 작별, 그 가족과 함께 귀국해야만 했다.

박태로 목사는 중국선교사로 파송되어 초기 중국선교사역을 개척하였으나 건강을 잃게 되는 바람에 부득불 귀국해야만 했다. 그의 가정의 귀국으로 1916년 5월부터 산동선교지에는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와 그 가족만이 남게 되었다.

그의 가정의 선교지 철수는 그나마 어려운 여건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던 두 선교사와 가족의 사기에 큰 영향을 주게



장승원 그림

된다. 박태로 목사는 가족과 함께 귀국, 인천, 서울을 거쳐 황해도 봉산 사리원에 가서 그 곳에서 병 치료를 하였다. 사리원에서 병 치료를 하다가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1916년 6월초 경성 남대문밖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내과 의사가 진찰한 결과에 의하면 병의 근원은 못 찾았으나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병 치료중에 있던 박태로 목사는 1916년 9월 2일 평양에서 회집된 제5회 장로 회총회에 참석, 전도국장 김익두 목사의 사회로 열린 강설회에서 중화민국 선교 형편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박목사는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꼬”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부족한 이 사람이 선교의 증명을 받은 것과 조선인으로 중화에 선교하게 된 것이며, 천대받는 중에서 감사한 것이며, 고생과 병 중에서 위로받을 때 감사한 것이며, 선교한 이후 믿는 자가 점점 증가되는 중, 어린아이의 복음서 파는 일로 인하여 군인 1명이 그 동료 군인까지 인도한 일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며, 장래에 대하여는 중화민족이 글쓴 종이를 경석(敬惜)하고 고담을 좋아하는 고로 전도지를 공경하며 성경사기의 강설 같은 것을 잘 듣는고로 전도의 희망이 많은 고로 감사불이하는 것이오니, 골 1:29절의 교훈하신 바와 같이 진력하시며 살후 1:1절의 교훈과 같이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라 하고”.

병든 몸으로 제3차 중국선교지 산동방문(1917년 5월)

해가 바뀌어 1917년 봄에 산동선교지에 있던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가 전도국의 허락 없이 자퇴하는 바람에 선교지가 비

게 되었다(2명의 목사는 모두 미국으로 건너갔다). 총회전도국은 몸의 병으로 귀국, 치료 중에 있는 박태로 목사를 방효원 목사(아들 방지일)와 함께 총회 때까지 임시로 파송케 되었다. 박태로 목사는 병약한 몸으로 산동선교지를 다시 방문케 되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3번째 방문이자 마지막 방문이 되었다. 1917년 5월 7일에 박태로, 방효원 목사는 고국을 떠나 수로와 육로를 이용, 9일 만에 선교지 래양에 도착케 되었다. 래양의 중국 교우들은 선교사가 온다는 기별을 받고 고대하다가 10리 밖에까지 나와서 영접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온 외촌내에 있는 교우 43명이 모여 환영모임을 가졌는데 가뭄에 단비 내림같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맞이하는 것처럼 기뻐하였고 한다. 박태로 목사는 몸이 약한 중에도 전도를 하였다고 한다.

그의 마음은 비할 데 없는 기쁨이 있었다. 당시 래양교회는 세례받은 사람이 18명에 53명이 모여 예배하였으며 박목사는 서리집사 두 사람을 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결국 박태로 목사는 병이 중해져서 연대로 나오게 되었는데, 교우 30여명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전별하였으며 연대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도 연대교우들의 간곡한 사랑과 보호, 위로를 받게 되었다.

박태로 목사는 중국 교우들의 간곡한 사랑의 보호와 위로함을 인하여 매우 감격하였다. 귀국하여 박태로 목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중국교우들의 사랑과 위로에 대하여 말한 바 있는데 그는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을 전하고 받았던 것이다.

영원한 안식으로



박태로 목사가 선교사역을 했던 산둥성 내양(萊陽)의 오늘날의 모습

중국에 수다히 거하는 가련한 생명들을 위하여 일하다가 병을 얻어 환국하여 일 년 동안이나 치료를 받고 휴식하였으되 별로 효험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버려진 선교지를 재차 세우기 위해 총회전도국의 뜻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방효원 목사와 함께 그 병든 몸을 이끌고 황해의 풍파를 겪고 래양선교지를 다시 찾아왔다. 박태로 목사는 주를 위하여 복음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의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음사명에 충성한 주의 사자였다.

박태로 목사는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로 타민족선교를 위해 아름다운 모범을 보인 인물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총회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린 인물이다. 황해도 재령읍교회의 위임목사의 직분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개척선교사로 중국에 기꺼이 자신을 드렸던 것이다.

박태로 목사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귀국한 후에 경성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6개월간 치료와 세 번이나 몽혼수술을 하였으나, 조금도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악화되므로 할 수 없이 사리원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의 병세는 매우 절망적이어서 옮겨 누울수도 없는 상태였고 일 년 동안 한 편으로만 누워 있어야 했다. 그로 인하여 본래부터 기름기가 없는 박 부인의 얼굴은 주름이 깊어졌고 딸과 아이들 역시 모두 한숨 가운데 1918년의 하루하루를 지냈다.

중국선교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당한 고생과 고통, 수고를 주님이 다 아시며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배 한국 선교사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되리라. 박태로 목사와 그 가족의 삶의 모습과 사역을 통해,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들이 많은 교훈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박 목사 가정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그 정신, 말씀 중심의 신앙관, 충성심, 자기희생의 정신 등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박태로 목사처럼 중국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희생적인 정신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대표하여 중국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지를 개척하시던 박태로 목사는 1918년 9월 6일 황해도 봉산 사리원 자택에서 48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박태로 목사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그의 가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단지 후일에 사리원 서부교회 앞에 있는 집에 할머니가 되신 박 부인과 그의 아들이 살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박태로 목사가 중국 선교사로 중국 땅에 첫발을 내디딘 지 어언 83년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 박 목사와 같은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이여 같으니라”(롬10:14-15)

참고문헌

독노회록 및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록 (1912-1918)/겨자씨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2권(1928년간, 하권)/신학지남
장로교회사전회집 2권(1918년간, 1935년간)/중화기독교교회연감(1918)
예수교장로회연감(1940)/한국기독교역사(2) 한국기독교와 역사(제3호)/신앙생활(평양) 황해도회100회사/평북노회사
예수교회보/신성학교사
기독신보(1916-1918)/대한예수교장로회100년사
크리스찬신문(제5권)/한국기독교전래사(김광수)
중국연구(2)/한국장로교사상사(박용규교수)
중국연구(3)/한국기독교사전100년
한국교회와 네비우스선교정책/대한기독교서회/네비우스선교방법(성광문화사)
The Korea Mission Field (1915-1916)/기독교대백과사전(제8권)의 다수의 서적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1884~1934)
복음역사반백년(방지일)/반도문화사

김교철/선교사, 중국선교연구협회 대표연구원,
부개동장로교회, 인천남동외국인교회,
갈월감리교회에서 외국인근로자 선교담당

도전 !!

填字遊戲

독자들의 중국어 낱말 실력향상을 꾀하는 뜻에서
중국어 십자낱말맞추기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상의 용어, 생활상의 실용용어, 시사용어 등
다양한 낱말을 익힐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정답은 Page 141 에)

가로 열쇠

- (1) 취침 전의 인사말. '안녕히 주무세요'
- (2) 여행사, 레스토랑 등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서비스 업
- (3) 노동조합
- (4) 생일 등을 축하하는 말. '동해 바다처럼 한없는 복을 누리십시오'
- (5) 소프라노
- (7) 샌달
- (8) 보물 단지. 자원의 보고
- (10) 표면에 무늬를 내고 염료를 발라서 불에 구워낸 공예품. 칠보
- (12) 한 나라에서 용모가 가장 뛰어난 여자를 지칭하는 말
- (16) 신문 배달하는 아이
- (18) 음력 선달 그믐날 밤
- (20) 불교신자들이 불공을 드릴 때 향을 피우다
- (21) 얼룩말
- (23) 중지하다. 그만두다. '내버려 뒀!'
- (24) 낙엽송

세로 열쇠

- (1) 야회복. 이브닝 드레스
- (3) 공단 복음사역
- (6) 굽이 높은 구두. 하이힐
- (7) 긴 자루가 달린 겹레
- (8) 화합. 모임. 모이다. 집합하다
- (9) 분재. 분경. 조화나 주옥으로 만든 나무
- (11) 태국(타이)
- (13) 하늘색. 하늘빛
- (14) 집 주인
- (15) 영화연극운동경기 등을 알리는 포스터
- (17) 어린 시절
- (19) 밤에 향기를 풍기는 꽃
- (22) 마라톤

1			8		9		13
		3			10	11	
2				14		12	
		4			15		
5	6				16	17	
			21	22		18	19
7				23			
		2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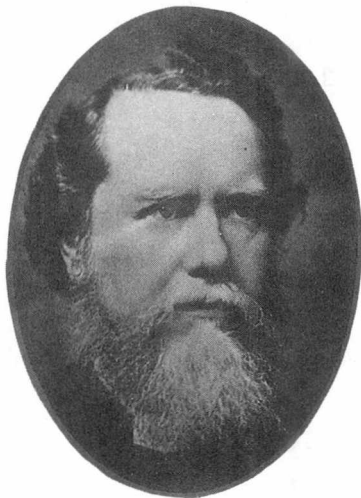
드디어 중국에 들어가다

허드슨 테일러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나는 영국을 떠나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런던을 떠나 리버풀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불신자들로 가득찬 중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수많은 기도를 드렸다.

1853년 9월 19일, 중국전도 위원회는 덤프리스(Dumfries) 호의 맨 끝 선실에서 나를 중국으로 파송하는 간단한 집회를 가졌다. 사랑하는 어머니도 리버풀까지 마중 나오셨다. 그 날은 내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어머니가 내가 목을 작은 선실에 들어오신 장면을 잊을 수 없다(그 작은 선실은 중국에 도착할 때까지 장장 6개월 동안 나의 집이 되어 주었다).

자상한 손길로 침대를 정리해 주신 어머니는, 내 곁에 앉으시더니 이제부터 오랫동안 함께 부르지 못할 찬송가를 마지막으로 함께 불러주셨다. 우리는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내가



영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이었다.

금방 배가 떠난다는 통보가 왔고 이제 어머니와 나는 헤어져야 했다.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자, '이제는 살아 생전에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무 상심할 것을 염려한 어머니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애쓰시는 듯했다. 그리고는 부둣가에 서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나는 홀로 외로이 갑판에 서 있었다. 수문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배를 따라 어머니도 계속 앞으로 걸어오셨다. 배가 수문을 지나는 순간 이제 영영히 어머니와 작별해야만 했을 때, 갑자기 어머니의 상심한 마음에서 터져나온 통곡이 칼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그 순간, 어머니의 울음은 나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잊지 못할 아픔으로 남았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역시 그 시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생전에 체험했던 것보다 더 깊이 깨달았을 것이다.

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귀하신 독생자가 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무릇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주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훈과 계시를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1853년 9월 19일 영국을 떠난 “덤프리스호”는 이듬해 3월 1일, 상해(上海)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출항한 지 얼마 안되어 심한 풍랑이 몰아쳤다. 풍랑의 위험은 점점 심해져만 갔다. 친구들과 친지들은 쉬지 않고 중보기도로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우리가 탄 배는 추분(秋分)의 폭풍우로 인해 머시강(Mersey: 영국 서부의 강-역자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뻔했다. 12일 동안 배는 아일랜드 해협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대양(大洋)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풍랑은 날로 심해져 갔으나 다행히도 일주일이 지나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런데 배는 이미 해만(海灣)의 바람이 부는 쪽으로 표류해 갔다. 할 수 없이 돛을 달아서 배가 바람을 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기도했다. 선장과 선원들이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았다.

9월 25일 주일 저녁, 우리는 카나본만(Carnarvon Bay)까지

표류해 왔다. 배는 해안과 점점 가까워져 갔다. 해변가의 큰 바위에 근접했을 때, 이상하게도 배는 다른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선장은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그 역시 크리스천이었다).

“이제 우리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네. 반시간도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네에게 중국선교의 소명을 주시고 중국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 지금 자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사실 나도 이 문제를 놓고 한동안 심한 갈등을 겪었던 차였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서 다 해결된 일이었다. 나는 자신감에 차서 기쁘게 선장에게 대답했다. “저는 꼭 중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전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뱃머리를 다시 바람을 탈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 항해를 시작했다. 몇 분 후 선장은 나침반을 보더니 “풍향이 이미 2도 방향으로 바뀌었다. 바람을 안고 나가면 해만을 빠져나갈 수 있겠어.”라고 말했다. 결국 배는 대해를 향해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뱃머리의 돛대가 움직여서 배가 무척 파손되기는 했지만……. 며칠이 지나 우리는 바다에서 배를 철저히 수리했다. 우리들의 중국행은 계획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어떤 일 하나가 나를 번뇌에 빠뜨려 힘들게 했다. 예수님을 믿은 시일이 매우 짧아서인지, 난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도 잘 알지 못했다.

난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구명대 하나를 내 방에 가져왔다. 그러나 이런 내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듯해서 그날 밤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결국 마음 속으로 더이상 구명대가 내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명대를 향한 의뢰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니 비로소 평안함이 나의 영혼을 채웠다.

구명대를 준비하는 김에 뜰 수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모두 한 곳에 모아두었었다(배가 침몰할 때를 대비하여). 이상하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갈등이나 자책을 느끼지 않았다.

이 일을 통해 내가 일반적으로 흔히 범하게 되는 결점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정확하지 못한 교훈에서 나온 결과였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인식하게 만든다. 다른 이의 믿음까지도 요동케 하고 많은 이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매개가 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자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늘 주님의 도움을 체험한다.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도 안 된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항상 곁에 구명대를 갖고 다녔지만 아무런 곤혹감도 느끼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간 후 내게 비춘 말씀의 빛으로 인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던 목적은, 아마 오늘날 내가 또 직면해야 할 비슷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환자를 치료할 때나 수술을 행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간구하는 것을 소홀

히 하지 않았다. 그 기도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때문에 환자들이 완쾌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마치 단식을 하면서 기도만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생각은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교만이며 잘못된 생각이다.

항해 노정은 매우 따분했다.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적도 근처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동인도 해의 많은 섬들을 다가가갈 때도 무풍 때문에 지연되었다. 보통 해가 진 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잔잔한 바람이 분다. 바람이 일면

가능한 그 때를 이용해서 배를 전진시켜야 하는데, 아침에 바람이 전혀 없어 배는 정지 상태였다. 돛대도 느슨하게 밑으로 처져 어떤 때는 배가 뒤로 후진하는 바람에 시간을 낭비하곤 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부딪혔던 때도 있다. 뉴기니(New Guinea: 서아프리카 해안 지방-역자 주) 북쪽에 접근했을 때의 일이다. 토요일 저녁, 배는 육지 30Km 경내로 들어서고 있었다. 주일 아침, 갑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선장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수시로 배 옆을 왔다갔다하는 것이 보였다. 예배를 마치고 난 후 그에게 다가가 사정을 물었다. 그는 어떤 수류가 우리 배를 시속 4해리의 속도로 암초를 향해 끌고 가는 중이라고 말

했다. 배는 지금 암초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녁이 되기 전에 암초에 부딪힐 것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큰 삼판선(sampan: 중국의 하천이나 연안에서 쓰는 목조 평저선(平底船)-역자 주)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뱃머리를 돌려 배를 암초에서 멀리 떨어뜨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모두 한동안 갑판에 조용히 서 있었다. 선장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있는 방도는 다 취해봤지만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네.”

내 마음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선장은 의아해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당시 배 안에는 네 명의 기독교 신자가 타고 있었다(스웨덴인 목수, 흑인 심부름꾼, 선장, 그리고 나).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제 우리 네 사람이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맑고 신선한 바람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지금이나 저녁 때나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니까 지금 바람을 주는 것이나 그 때 주는 것이나 그에게는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선장은 내 제의에 찬성하였고, 난 다른 두 사람을 찾으러

갔다. 목수와 함께 기도한 후 우리 네 사람은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다. 짙막한 시간 동안 간단하지만 깊은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왔다. 그래서 더 오래 기도하지 않고 재빨리 갑판으로 올라갔다. 이 때 선상(船上) 지휘를 책임 맡고 있는 1등 항해사를 만났다. 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급히 뛰어가 가로돛대의 밑부분, 아니면 주돛대를 내려놓으라고 했다.

이 돛대들을 모두 위로 올려놓아야 밧줄과 돛대의 마찰이 최소한 줄어든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1등 항해사가 말했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곧 바람이 불 것입니다.”

배는 지금 암초에 너무도 가까이 다가섰다. 일초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불신과 멸시에 찬 태도로 욕을 해댔다.

“바람을 들을 필요는 없다. 바람을 봐야겠다”고 소릴 질렀다. 그가 말을 하는 동안 난 그의 시선을 따라서 맨 위의 돛대를 쳐다보았다. 돛대가 이미 작은 바람에 움직이고 있었다. “바람이 오고 있잖아요. 저 작은 돛대를 봐요!” 난 큰 소리로 외쳤다.

고집불통 항해사는 “아니야.

이건 새 밧의 피에 불과해.”라며 계속 자기 생각만 밀고 나가려 했다. “새 밧의 피든지 말든지, 제발 빨리 주돛대를 내려 바람의 도움을 받으시다!”

난 급해서 외쳤다.

1등 항해사는 다행히 기회를 잡아, 즉시 내 말에 따라 주었다. 1분쯤 지나, 갑판의 소란한 소리에 놀란 선장이 방에서 뛰어 나왔다. 과연 선장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직감했다. 몇 분 후 우리는 시속 6-7해리의 속도로 파도를 거쳐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 드디어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바람이 약간 멈추기는 했지만 서태평양의 필루섬(Pelew Island)을 지나가기 전까지 바람은 틈틈이 불었다.

중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나를 격려하셨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라고 가르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하여 매번 긴급한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도록 만드셨다.

편집자주: 이 글은 홍콩 宣道出版社에서 출판한 『獻身中華』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宣道出版社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번역/차이나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주님을 영원히 따르리라

趙鐵山

나는 요녕성(遼寧省) 무순현(撫順縣) 안가향(安家鄉) 전두산자촌(前陡山子村)에 사는 기독교인이다. 이름은 조철산이며 올해 나이 50세이다.

집 주위에 신도는 한 명도 없고 오직 우리 식구만 예수님을 믿는다. 집 근처에 교회도 없기 때문에 매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고 아무리 추워도 60리 길을 걸어 왜두산(歪頭山) 교회에 간다. 우리는 거기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

1993년 1월 28일 오후 4시 경 이웃집에 사는 조(趙)씨가 자기 집 창고에서 향을 피우다 잘못해서 불이 났다. 그의 집과 우리 집은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방 일곱 개가 전부 타버렸다. 큰 불 가운데서도 조씨 집 물건은 모두 건져낼 수 있었지만 우리 집은 창문이 철망으로 되어 있어 순간적으로 창틀을 끊고 들어갈 수 없어 살림이라곤 하나도 남지 않고 몽땅 불에 타버렸다.

화재가 난 후 조씨는 오히려 우리가 자기 집을 불태웠다고 고소했다. 원래 법원에서는 조씨 측에서 우리에게 손해 배상금 8천 원(인민폐)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그는 잘 아는 ‘관계(關係)’를 통해, 이미 결정된 판결을 재심하도록 하여 우리가 패소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우리는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93년도는 우리 가족에게 있어 마치 읍과 같이 너무나 어려운 한 해였다. 내 손으로 세운 가업이 하루 아침에 다 불 타 버렸다. 그 집은 어렵게 빚을 내서 산 집이고, 여태껏 빚도 못 갚았다. 게다가 변호사 청탁 비용만도 2,800원이나 되었다. 고리대금으로 빌려 썼는데, 그 돈도 돌려주지 못한 형편이었다. 열여덟 마지기의 눈이 있었지만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쌀은 3천 근(斤)도 거두지 못하였다.

아들이 방송전문중학교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입학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손실을 메우기 위해 나는 또 빚을 져야 했다. 그 동안 키운 양을 다 팔아 그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돈을 벌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우리 네 식구는 올 데 갈데 없는 신세가 되어 여름에는 깊은 산골짜기의 천막에서, 겨울에는 다시 마을에 있는 초가집의 마구간에서 살았다.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내가 당한 꼴을 보고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했던 일이다.

그러나, 내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지도 않았고 말라 버리지도 않았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결실을 맺었다. ‘주님, 저를



장승원 그림

구원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제 삶에 충만한 믿음을 주셔서 저의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슬픔과 곤란 가운데서도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생겼다. 화재가 난 후, 곧바로 설(春節)을 맞았다. 춘절 후 처음으로 맞는 주일, 아들은 책과 교과서 등을 찾으려고 불이 난 집터로 다시 갔다. 원래 갖고 있던 책장 세 개와 5백여 권의 책들은 모두 재가 되버렸다. 그런데 아들이 우연히 잣더미 속에서 두 권의 신구약 성경과 교리문답집을 발견했다. 비록 책이 물에 흠뻑 젖고 표지가 약간 그을렸지만, 속은 멀쩡했다. 그 당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책 3권이 당신을 살린 것 같네요.” 라고 말했다. 그렇다! 그 3권의 책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찾게 만들었다. 비록 내 육신은 궁핍하지만, 내 영혼은 풍요롭다. 날마다 나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런 기쁨과 감사를 감출 바 없어, 왜두산 교회에 가서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간증을 나누었다. 간증을 마치자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드렸다.

내가 곤란 가운데 있었을 때,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베풀어주었다. 어떤 이들은 대가없이 쌀과 옷을 보내왔고, 헌금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이에 큰 감동을 받았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준 아이스크림 값 2전(二角)을 나를 위해 헌금했다. 그 돈은 차마 받을 수 없어 마다했지만, 아이가 울면서까지 간청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받았다. 5살짜리 아이가 이런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주님께 감사한다. 같은 교인인 원(袁)씨 할아버지는 120리 길 자전거를 타고 심산구(深山溝)까지 나를 보러 오셨다. 와서는 집안 일을 도와주셨을 뿐 아니라 급할 때 쓰라고 돈도 빌려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사랑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사랑의 마음 마음 하나와 따스한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것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다. 나는 이로 인해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천고만난이 있더라도 영원히 주님만을 따를 것이다!

도박꾼의 회개

李進永

37세의 모봉보(毛鳳寶)는 신강성 차배자(車排子) 농장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 중의 인물이다. 그가 대단한 도박꾼이라는 사실은 그 지역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겨울의 긴긴 밤을, 그는 하룻밤에 두세 개의 도박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낸다. 밤이고 낮이고 3박 4일 동안 도박에 열중하느라 한숨도 안 잘 때가 있다. 도박장에 들어가면 꼭 “홍설련(紅雪蓮)”이라는 술 세 병을 주문한다. 돈을 따든지 못 따든지 술은 꼭 마신다. 그리고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가 꼭 부인을 두들겨 팬다. 맞는 것이 억울한 부인이 그에게, “왜 사람을 이렇게 때리느냐”고 하면 그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대꾸한다. “남편이 도박 좀 하고 놀았다고 해서 바가지를 긁고 야단이나?”

그는 상습적으로 밥 먹듯이 아내를 때리곤 했다. ‘우다당탕!’ 손찌검뿐 아니라 발로 차기까지 한다. 이것도 모자라 한번은 방망이를 들고 부인에게 휘둘렀다. 팡! 소리가 나더니 방망이는 세 조각이 나뉘었다. 부인은 허리를 다쳤고 다리도 부러졌다. 그녀의 마음마저도 부서졌다.

그러는 동안 모(毛)씨는 돈도 모두 도박에 날리고,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갔다. 친척과 이웃들이 말로 타일러도 소용이 없고 파출소 공안국에서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해도 소귀에 경 읽기였다. 78년도에 그의 아내는 더이상 견딜 수가 없어 화끈에 아이를 데리고 고비사막을 지나 멀리 하남성(河南省)으로 도망갔다. 이제 모씨는 도박장에서 돈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가정도 자기 손으로 무너뜨려 버렸다. 처자식마저 다들 그를 떠나버린 것이다.

그 후 그의 아내 조란영(趙蘭英)은 친정 아버지로 인하여 다시 신강성으로 되돌아 왔다. 이 때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다. 그녀는 자기도 믿고 싶긴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가장인 남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여인은 자기가 들은 복음을 남편 모씨에게 들려주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사람들이고, 욕을 먹어도 되돌려 욕을 하지 않으며, 아내된 사람은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다는 등 아마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가 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씨는 “좋아. 허락하겠어. 당신 가서 믿으라고. 내가 지지해 줄 테니.”라고 말했다.

그가 과연 진정, 마음으로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 것을 찬성했을까? 아니,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 네가 예수를 믿으면 때려도 대들지 못할 것이고, 욕을 해도 감히 입도 뻥긋 못 할거야. 이젠 내가 아무리 너를 못살게 굴어도 넌 꺾소리도 못 할거다.’ 그의 속셈은 이런 것이었다.

모씨의 부인은 온갖 근심 걱정, 상한 몸과 지친 영혼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아갔다. 그녀는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경건한 나날을 보내던 그녀는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을 처소로 개방했다.

이제 육신의 병과 마음의 고통을 치유 받은 그녀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었다.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였으며, 특히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남편을 택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했다.

89년도 봄 어느 날, 모씨는 하룻밤 사이에 거금 4백 원을 날려버렸다. 이번은 그가 도박한 이래 가장 비참한 결과였다. 그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온 몸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 때 갑자기 아내가 믿는다는 예수님이 생각났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신실하고 기묘하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 응답하셨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기 벌써 복음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처소 교회가 된 그의 집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하고 있었다. 이 때 그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졸지도 않았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설교에 귀 기울였다.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에 설움이 복받쳐 눈물을 흘렸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눅13:3)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집회가 끝나자 그는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전에 강박했던 한 사나이가 지금은 눈물로 얼굴을 씻어 내리며 통곡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통회하며 자복했다. 그는 드디어 구원을 얻었고 거듭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장승원 그림

이후 그는 180도 변하였다. 도박장에 발길을 끊었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담배도 완전히 끊었다. 부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주일이 되면 두 사람은 사이좋게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 평소에도 집에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 드린다고 한다. 이제 온 집안이 화목하여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느 날 그들 부부가 집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집 앞에서 누가 그를 불렀다. 밖에 나가 보니 옛날에 그와 같이 도박장을 누볐던 친구들이었다. 그는 일부러 “누구를 찾습니까?” 하고 물었다. “누굴 찾긴. 자네를 찾으러 왔지”라고 그들이 대답하니 그는 “당신들이 찾는 옛날의 모봉보는 이미 죽었다네.”라고 대답했다.

친구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모형, 무슨 말을 하는거야? 농담하지 말라고” 했다. “정말이라네. 믿지 못한다면 내 아내에게 확인해 보게나. 어이, 안으로 들어와 앉게나. 내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해줄게. 하지만 술과 담배를 대접할 수 없어 무척 미안하네.”

그렇다. 모 형제는 도박 귀신을 뿌리쳤을 뿐 아니라 술, 담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악한 귀신의 결박을 끊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렸다. 주님께 몸과 마음을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했다.

몇 년 간의 연단을 거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간 그는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틈만 있으면 가방을 들고 전도하러 나간다. 가는 곳마다 자신의 생생한 간증을 나누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새 피조물인 모 형제가 태어났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天風』 1994년 1월호 중에서

번역/ 차이나 ·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중국선교 세미나

중국선교를 통한 북한선교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길이 있습니다.

중국선교!

바로 북한선교의 지름길입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본회는 북한 사회과학연구원의 원장 박완신 박사를 모시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북한선교의 구체적인 길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주 제: 중국선교를 통한 북한선교
- 강 사: 박완신 박사
- (북한사회과학연구원 원장)
- 일 시: 1995년 2월 27일(월)
- 오후 7시-9시
- 장 소: 이수성결교회
- (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 주 최: 중국어문선교회
- 문의처: Tel.594-8038, 533-5497,
- 535-4255

我們尊崇祢 예수 우리 왕이여

耶 穌 我 們 尊 崇 祢

齊 宣 揚 祢 作 王!

主 求 祢 與 我 們 同 在

我 們 要 讚 美 事 奉 祢

求 以 我 們 敬 拜 為 寶 座

以 我 們 敬 拜 為 寶 座

以 我 們 敬 拜 為 寶 座 主 啊

求 悅 納 我 們 敬 拜

우리말 가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발 음

yē sū wǒ men zūn chóng nǐ
qí xuān yáng nǐ zuò wáng
zhǔ qiū nǐ yǔ wǒ men tóng zài
wǒ men yào zàn měi shì fèng nǐ
qiú yǐ wǒ men jìng bài wéi bǎo zuò
yǐ wǒ men jìng bài wéi bǎo zuò
yǐ wǒ men jìng bài wéi bǎo zuò zhǔ a
qiú yuè nà wǒ men jìng bài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만약 당신이 주님을 안다면 당신은 이미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당신을 그분께로 처음 이끈 내적인 인도하심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셨다(요8:26~29).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기본적 권리이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만약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만약 당신이 겸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잠16:9).

그의 주 되심을 복종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응답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허락하라.

하나님께 당신이 원하는 인도하심의 방법에 대해 지시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당신은 그의 종일 뿐이다(사무엘상3:9). 그러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 순종과 듣는 것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을 선택하실 것이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이것은 당신의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 올 수 있다.-하실 수도 있으며, 아니면 특정한 성경 귀절을 지시하실 것이다(시119:105). 가장 흔히 있는 방법은 조용하게 내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사30:21)을 통한 것이다.

용서받지 못한 어떤 죄든지 있다면 고백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깨끗한 마음이 필수적이다(시66:18).

도끼머리 원칙을 사용하라.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이야기에서 나온 내용이다.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듯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가장 마지막으로 들었다고 확인하는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순종하라. 열쇠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한 마지막 일에 당신은 순종하였는가?”이다.

당신 자신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당신의 방향을 확인시킨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어야 한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다(왕상 13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다른 이에게 당신이 인도하심 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

때때로 이 일은 즉시 일어난다. 그러나 또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다.

동방박사의 원칙을 사용하라.

세 동방박사는 각각 별을 따라 왔으나 그러는 동안 모두 다 똑같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둘이나 그 이상의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시키실 것이다(고후13:1).

속임수에 대해 조심하라.

위조지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종이 봉지를 위조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이 이유는 위조할 가치가 있는 것만 위조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조하려고 한다(행8:9~11, 출7:22). 예를 들어 점괘, 강신술, 운수, 점성학 등을 통해(레20:6, 19:26, 왕하21:6) 가짜 인도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당신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실 것이다. 사탄의 인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고, 당신을 속박할 것이다.

사람의 반대는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행21:10~14).

여기서 다시 한 번 중요한 것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다(단6:6~23, 행4:18~21). 거역하는 것은 결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지도자로부터 잠시 곁으로 비켜서 있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 반항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의 계획의 일부로서 말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각자가 다 독특한 사역이 있다(고전12:1, 뱀전4:10~11, 롬 12장, 엡4장).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들을수록 당신은 당신의 부르심에 더욱 효과적이 될 것이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장난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배우는 심각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올바른 사람과 함께 올바른 일의 연결 안에서, 올바른 지도력하에,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옳은 일을 옳은 장소에서 행하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수록 더욱 쉬워질 것이다.

이것은 마치 전화를 받자마자 가장 가까운 친구의 음성을 알아내는 것과 같다. 당신이 그의 음성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아는 것이다. 어린 사무엘과 나이가 들었을 때의 사무엘을 비교해 보라(삼상 3:4~7, 8:7~10, 12:11~18).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실 뿐 아니라 인격적이지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도하심은 인도하시는 분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게 될 것이다(출33:11, 마7:24, 27).

海上的神蹟

太十四30-36; 約六22-71;
可七1-23; 太十六13-26, 十七1-2

바다 위의 기적

(마 14:30~36, 요 6:16~22, 막 6:47~56, 막 7:1~23)

1 加利利海上的夜，強風、怒浪。耶穌的門徒迎着風浪努力地划。突然間，他們看見一個人朝他們走來。他們很怕，直到看清這個在水上的人是耶穌。彼得跳離船，朝着耶穌走去；但他看見洶湧的浪濤，失去信心。

1 갈릴리 바다의 밤은 강한 바람으로 성난 파도가 일렁거렸다. 예수 제자들이 풍랑과 맞서 힘차게 배를 저어 갔는데, 갑자기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였으나, 곧 물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임을 알아보았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나와 예수를 향해 걸어갔는데 그분 사나운 파도를 보고 믿음을 잃어버렸다.

3 噢，彼得，爲甚麼懷疑？

3 “오!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主啊！
救我！



4 耶穌救起彼得，他們回到船上。風停了，海也平靜了。

4 예수가 베드로를 구해내어, 그들은 배로 돌아왔다. 바람이 멈추었고 바다도 조용해졌다.



5 祇有從上帝那裡來的，才能作這樣偉大的事！

5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야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6 天剛亮，門徒把船駛靠岸。衆人一看見耶穌，趕忙帶患病和殘廢的到他面前。耶穌一醫治他們，有愛心又有忍耐。

6 날이 밝자, 제자들은 배를 물에 대었다. 무리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서둘러 병자들과 불구자들을 그의 앞에 데리고 왔다. 예수는 그들을 하나 하나씩 사랑과 인내로 치료하였다.



7 祇要碰到他的衣服，我的病就會好。

7 “그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의 병이 나을 것이다.”

8 那天下午，耶穌到迦百農進了禮拜堂。那天用五餅二魚餵過的衆人，都等在那裡希望再有東西吃。耶穌却講了一篇道，談到一個人的靈命的需要；許多人大失所望，掉頭走了。

9 法利賽人看見這情形，重新公開攻擊耶穌。

9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보고, 다시 예수를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10 我看見你的門徒吃飯前不洗手。你爲甚麼讓他們違法背紀，污穢自己。

11 從口裡進去的，不能污穢人，惟有從口裡說出來的髒話，才能污穢人。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직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사람을 더럽힌다.”



8 그날 오후, 예수가 가버나움에 도착하자 회당에 들어갔다. 그날,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던 무리들이 그곳에서도 다시 무엇을 좀 먹을 것이 없을까 하고 바라고 기다렸다. 예수는 오히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필요에 대해 설교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여 외면하고 가버렸다.

중공은 중국에게 죽었다.

권오홍 저 / 시대평론 / 267쪽 / 6,000원



오늘날 중국을 문학 작품이나 정치 현안 등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무리다. 변화는 바로 살아가는 ‘터’에서 벌어진다. 현장의 이야기가 중요함은 이 때문이다.

우리의 중국 접근이 아직도 실제의 “현장”보다는 피상적인 기행(紀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때로는 왜곡된 현장을 담고 온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 그들에게 각인된 중국의 모습을 결코 중국의 전부라 말할 수 없다. 이면에 또 하나의 얼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공(中共)은 중국(中國)에 죽었다”는 말은 더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닌 사실이 되었다.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어 온 사회

주의 중국의 이미지를 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중국은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신 중국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바로 새로운 변화 속에 있는 중국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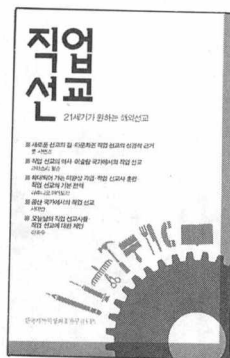
여기에 실린 각 단편들은 일종의 “요즘 중국 이해 ABC”와 같다. 벌어진 현상을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는 “필드 작업”의 한 유형에 속한다.

이 책은 변해가고 있는 최근 중국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기에 중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직업 선교

21세기가 원하는 해외 선교

데츠키나오 야마모리 외 다수 / 이득수 편역 /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 159쪽 / 2,500원



최근 들어 선교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통적인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는 세계의 많은 지역들로 들어갈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제는 선교단체나 교회가 전문인 사역자들을 파송하기 시작해 선교의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헌신된 전문인 사역자들에게 교회나 선교단체가 그들을 그곳에 파송하여 전략적으로 선교하도록 일깨우며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전문인들이 해외에 있는 전문직들을 찾아 가도록 격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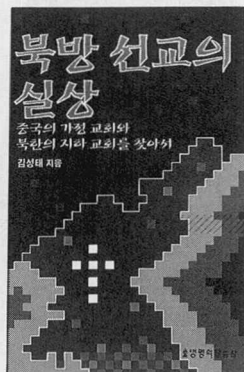
또한, 선교를 목적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적당량의 일을 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새로 보직을 만들고 적절한 사람들을 배치하는 전략적인 산업육성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선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이슬람 국가와 공산 국가에서의 직업선교에 대한 전망과 준비를 제안하고 있으며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선교사들의 경험담을 담았다.

이 책은 현대의 문화적 경향을 따라 인간 생활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등 선교의 방법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선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북방선교의 실상

중국의 가정 교회와 북한의
지하 교회를 찾아서



저자는 한국 교회의 북방 선교가 성경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북방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한국의 성도들이 북방 선교에 힘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그동안 북방선교의 현장에 직접 투신한 저자의 열정과 학문적 통찰력,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쓰여진 것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1부는 총체적인 차원의 북방 지역 선교를 논했고, 제2부는 중국선교현장을 논하였으며, 제3부는 북한선교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한국 교회의 북방선교는 짧은 시간에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선교 경험과 전략의 부족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남긴 것 또한 사실이다. 중국선교를 하겠다고 나서는 교회와 사역자들은 굉장히 많지만 실상 중국교회에 대해서 아는 이들은 너무나 적은 것을 공감한다.

이 책은 북방선교, 특히 중국선교의 전문가이며 선교학자인 저자의 치밀함과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져, 중국 교회와 선교에 관심을 갖고있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영적 지도자 만들기

한운숙

이 책의 도입부는 재미있게 시작된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들”이란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부제를 달아 놓았다. 목회자가 될 것인가 평신도 사역자가 될 것인가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에 실망한 젊은 목회자 후보생에게, 선교 단체 지도자들에게, 성숙한 모델이 필요한 젊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의문을 가지거나, 사역 임지를 찾으려는 사람, 지도자를 키우는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넓은 시야가 열릴 것이라며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 즉 이 책을 읽는 대상은 전문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각종의 사람들의 모임에서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확신있는 권면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처음 책을 읽을 때는 서구적인 학문방법인 논리적 분석으로 체계화시켜 너무 방법적인 면에만 치중한 것이 아닐까 하여 별로 큰 도전을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막상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기록도 하고 내게 적용시키며 기도해 나가면서 큰 도전을 받았다. 또한 내 역할과 사명에 대해 넓은 시각을 갖고 새롭게 보게 되었다.

저자인 로버트 클리턴 박사는 풀러신학교 세계선교대학원에서 지도자론과 신학 연장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영적인 지도자들 -성경 속의 모세, 여호수아, 바울을 비롯하여 몇 이전 세기나 금세기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위치만니, 네비게이트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만 등의 일생을 세심하게 연구 분석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키우실 때 사용하시는 몇 개의 공통된 경험과 원리들을 발견해 냈다. 곧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는 각각 독특한 상황, 환경에 따른 개별성도 있으나, 그것의 내적인 배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공통된 훈련 원리들을 발견하여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정리, 체계화 시킨 것이다. 사람의 일생을 통해 정지 단계, 인성의 개발 단계, 사역 단계, 성숙 단계, 수련 단계, 회상의 단계로 공통적인 경험과 원리들을 도출해 냈다.

우리가 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두 가지

상반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첫 번째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태어나는 것이기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지나친 신비주의적 극단이다.

두 번째는 이와 반대로 “지도자는 만들어진다. 적합한 기술과 방법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양성해 낼 수 있다.”고 하는 인간 중심의 방법, 전략, 기술 위주의 극단적 오류이다.

저자는 이러한 양극단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도력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사라고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그들 일생의 시간선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때에 맞게 훈련시키셨는지를 깨닫는다. 우리 역시 그런 지도자로 키우실 하나님을 주목하게 됨으로 자신감을 회복케 될 것이다.

책의 본론 부분에 들어가면 저자가 한 지도자의 인생의 시간선을 통해 발전 단계로 나누어 연구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로버트 클린턴은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를 통해 지도자의 일생을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곧 각 제1단계인 정지 단계는 하나님께서 장차 지도자로 쓸 사람을 위하여 기초적인 요소들을 섭리 가운데 마련해 놓으시는 단계이다. 사람, 환경 등의 고립에서, 고독과 고난, 어려움 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보통 제1단계에서 2단계로의 경계선에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회심이나 전폭적인 헌신을 체험하게 된다.

제2단계는 인성의 개발 단계로 장차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지역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점차적인 훈련을 받는 단계이다. 표면적으로는 사역훈련이 중점적으로 발전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단계에서 초점을 두고 개발하는 분야는 관계를 통한 그의 속사람 개발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 개발을 위하여 성장 시험을 하시는 것이다.

제3단계는 사역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내 은사를 계발 시키신다. 그 가운데 내 은사와 사명이 어디 있는지 우선 순위를 알려주신다. 이 단계 역시 비록 사역을 통해 많은 결실이 나타나지만, 주안점은 여전히 사역자의 영성을 위해 사역자의 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이 단계에서 때때로 지도자들은 사역의 생산성, 활동, 그리고 열매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선 잠잠히 그리고 색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늘 일깨워 주신다.

성숙의 단계인 제4단계는 “사역은 됴됨이(존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 증명하는 단계이다. 이 기간 동안 지도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성숙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제5단계는 수련의 단계로서, 지도자는 이제까지 개발된 인격과 됴됨이와 하나님의 은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은사와 경험 및 기질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지도자는 더 이상 자기가 은사가 없는데도 사역을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스러울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은사를 향상시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저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 소수의 지도자만이 수련 단계

를 체험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만큼 성숙한 인격을 바탕으로 두고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 지도자가 적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중에 하나님의 훈련에서 중도 탈락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마지막 제6단계는 회상의 단계로서, 이 단계 역시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소수의 지도자만이 경험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의 지도자는 전생애를 통한 사역의 열매와 성장이 하나로 융화되어 인정받으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단계에 있는 지도자가 그 동안 사역 경험에서 얻은 지혜의 보고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러한 6단계 시간선 가운데 이루어지는 매 순간의 훈련과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순종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한다. 인생의 시간선이 2단계나 3~4단계에서 중지 또는 정체되는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 단계의 경계선이나 기복 사이에서 고립이나 고난, 연단을 통한 전인격적인 내면 성숙의 시험을 주실 때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잠재력을 지닌 장차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 지속적인 성장과 끝맺음을 잘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포기하여, 거의 소수의 지도자들만 이런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만들기”에 순종할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책은 하나님 앞에 사명과 은사를 받아 장차 지도력을 발휘할 우리에게, 끊임없는 우리 내면의 성장과 훈련 사역의 경험들을 통해 끝까지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영적 지도자 만들기』 이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 이제까지 애매 모호하게 보이던, 이유를 모르던 하나님의 훈련과 때로 지치고 힘들었던 고립의 과정들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단계별 시간선을 통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앞으로 어느 단계를 통해 나아가야 하는지, 성실과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싶은 갈망이 생겨났다. 기도의 폭도 커졌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풍성한 고백도 하게 되었다. 또 하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영역에서 끊임없이 훈련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이 되었다.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태되거나 중도 탈락하고 싶지 않다는 갈망도 생기게 되었다.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많은 도전을 받은 것은, 아마 지금의 내 단계에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깨달음과, 다시 내 인생과 사역에 대해 확대되고 발전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많은 이들 -사역에 지치거나 실망한 이들, 또는 자기의 진로를 몰라 안타까운 이들, 더 많은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갈망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을 믿고, 이 지면을 빌어 감히 권한다. 주안에서 이미 확보된 승리를 순종함으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영적 지도자 만들기』 / 로버트 클린터 저, 이순정 역 / 베다니출판사 / 값 4,000원

한운숙/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연구원

중국의 종교

규제인가? 자유인가?

심양시 동관교회 사건의 전모

이것은 심양 동관교회(東關教會)의 여지빈(呂志彬) 목사가 삼자 측의 스파이로 밝혀짐으로써 두 명의 젊은 목사가 체포된 사건이다. 1994년 10월 3일자 “화교일보(華僑日報)”는 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체포된 고량의(高良義)과 고폐만(高沛滿) 목사 두 사람 모두 양회(兩會) 소속이다. 그러나 심양 삼자교회는 줄곧 곡요조(谷耀祖)와 여지빈(呂志彬) 두 사람에게 의해 장악되어 왔다. 곡요조는 심양시 정치협상위원회 위원이며 요녕성·심양시 기독교 회장이자. 여지빈 역시 심양시 정치협상위원회 위원이며 요녕성·심양시 기독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신도들의 반응에 따르면, 이 지역의 신도들 숫자가 매우 많은데 비해 예배당은 너무 협소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고량의(高良義) 목사는 심양시 교회 종교부지에 대해 반드시 공식적 이전 절차를 따라 줄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당국에서 다년 간 점유하고 있는 가옥 부지를 되돌려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한 과정에서, 여지빈이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 목사가 관련 당국과 결탁하여 뇌물을 받고 있다고 의심하기까지 이르렀다.

700여 명의 신도들이 작년 11월 22일, 심양시 정부를 찾아가 교회 부지를 돌려줄 것을 청원하였다. 원래 동관교회 내에 교회사무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10여년 동안 회의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여지빈은 독단적으로 사무관리위원회를 장악하면서 동관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하였다.

교회의 민주원칙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관교회 신도들은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동관교회 임시교회사무위원회를 성립하였다. 12명의 후보를 추천하여 당위위원회를 맡겼으며, 6명의 재정장부 감사조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곧 장부 감사조는 종교국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종교국 관리들은 3월 19일 공안당국과 연합하여 교회로 몰려와 장부를 봉쇄하고, 장부를 검사하는 신도들을 강압적으로 제압하였다. 이에 대해 2000여 명의 신도들이 교회의 재정장부를 검사할 것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되자 당무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부터 장부 감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고, 또 시종교국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감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감사 결과 동관교회의 재무 상황은 엉망이었고, 여 목사와 곡 목사 두 사람이 마음대로 교회 재산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교회의 결정권이 신도들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곡 목사와 여 목사, 그리고 정부 당국은 일련의 안배를 거친 후 4월 7일에 행동을 개시하였다. 양회 명의로 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붙였다. 동관교회 사무관리위원회는 불법이며 고량의(高良義), 고패만(高沛滿) 목사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선포였다. 또한 교회 재정금고를 지키고 있던 20여명의 신도들을 체포함과 동시에 고량의, 고패만 두 목사의 집까지 들이닥쳐 강제로 체포해갔다.

근래 우리가 받은 신도들의 편지에 의하면, 여지빈의 압력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불만을 품어 온 두 젊은 목사가, 이번 기회에 반항을 시도하여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곡요조와 여지빈 두 원로목사는, 고량의와 고패만 두 사람이 정부의 지도를 거부하면서 3,000여 명을 앞세워 시위했기 때문에 정협세력(政協勢力)으로 간주하여 시장 장은창(張恩昌)에게 고발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두 고씨는 “육처(六處)”라는 곳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곳은 정치범을 감금하는 수용소라고 한다.

(『中國興福音』, 3기, 94.11.-12. 중에서)

북경 강와시 교회 양유동(楊毓東) 목사 해직 사건

“삼자교회 대표는 지난 94년 12월 4일, 사실상의 강와시교회 담임 목사인 양유동을 강제로 강대상에서 끌어내렸다. 정부는 근 2년 이래 줄곧 양 목사를 면직하려고 도모해 왔는데, 그 이유는 그가 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으며 교인들에게 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도록 호위해줬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1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 교회 안에는 이미 2백여 명의 사복 경찰대가 버티고 있었고, 맨 앞자리에는 삼자 교회의 중요 인물들이 앉아 있었다. 삼자교회 북경시 주석인 은계증(殷繼曾)은 그 자리에서 양목사를 면직시키고 자신이 대신 강대상으로 올라가 설교를 했다. 성경 말씀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삼자애국운동의 역사와 목표만을 설명했다.” (香港聯合報 1994. 12. 3)

한 중국선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양유동 목사는 북경시 삼자교회 소속 대부분의 목사들과 충돌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것은 그가 교회에서 자체적인 당무 규정을 세우고 양회와 대립적인 일을 행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교회 청년들의 순수한 복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다가 특별히 정부 측과

가까운 양회 총간사 위순리 목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모순이 심화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목사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활동을 밀고 나갔다.

작년 12월 4일 무장경찰과 강패 100~200명을 동원한 공안당국은 새벽 5시부터 강와시교회로 몰려왔다. 이들은 강대상 바로 앞자리에 진치고 앉아 있다가 양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 단에 섰을 때 갑자기 달려들어 끌어내렸다. 마치 이 교회 성도들이 그를 원하지 않아 끌어내리는 것처럼 꾸민 연극이었다. 그들은 양유동 목사를 강제로 끌고나가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교회 지도자들, 특히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청년들을 불러 들여 협박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어느 의미에서 동관교회 사건과 유사하다. 사회의 각 분야가 개방되고 비교적 융통성이 보여지는 최근 상황에서, 양 목사는 지역 교회들이 보다 나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목회자였다. 이에 대해 삼자 측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개교회의 자주권과 지역 교회의 순수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지도자들에게 이번 사건을 통해 경고한 셈이다.

또한 국무원에서 발표한 종교법규가 개교회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양회의 규정은 이것과 모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강와시 교회 양 목사 사건이 국무원 이붕 총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가 직접 진압을 명령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런 종교적 분쟁은 북경, 천진 등 정치 보수권 지역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선교 관계자의 말이다.

홍콩 연합회에 따르면, 이 사건을 계기로 북경 당국의 핍박에 대하여 북경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 서명운동을 벌였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증보기도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 호소문은 “주 안에서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시해 주십시오.” 등의 내용이다. 연합 서명을 벌인 6명의 성도들은 교회가 정부 당국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강와시교회 양목사의 사직을 거부했다고 한다.

한문조(韓文藻) 박사, 중국기독교협회 사무총장으로 선출

최근 중국기독교협회(China Christian Council)는 북경에서 회합을 갖고 사무총장에 한문조(韓文藻) 박사를 선출했다. 이 회의에서 중국기독교협회장 정광훈 주교는 “삼자애국 원칙은 슬로건이 아닌 중국 교회 실제적 필요에 의한 방책”이라고 밝히고, “차세대 지도자 선출과 신흥 교회에 대한 전통적 교회의 이질감 해소가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심이번(沈以藩) 주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사무총장직을 맡게 된 한문조(韓文藻)는 오는 96년까지 심주교의 잔여임기를 담당하게 된다. 한사무총장은 1923년 상하이의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1940년 개종해 ‘삼자 원칙’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삼자 위원회 협동총무,

중국교회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기독교연합신문, 94. 12. 25)

연길신학교 문을 닫다.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설립되어 1993년 개교하였던 연길신학교(교장:유두봉 목사)가 설립 2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다. 94년 1월에 1기 40명, 94년 9월 2기 65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하던 중 중국정부의 규제에 의해 폐교되었다.

또한 한 한국 화교(華僑) 목사에게 의해 설립되어 93년 말 개교했던 한족(漢族) 대상의 신학교 역시 같은 시기에 문을 닫게 되었다. 이 신학교는 3개월 제자훈련코스로 4기생을 배출했다고 한다.

중국선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중국정부가 서서히 중국선교를 규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증거라고 한다.

동북 지역 가정 교회의 상황

동북지역으로 휴가를 다녀온 한 형제가 모현(縣)의 한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곳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전해왔다. 그에 의하면, 거의 매 촌락마다 10명~20명 정도의 신도가 있다. 가정교회 숫자는 많지만 전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고, 교회는 지도자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한다. 모일 때는 같이 성경을 읽지만 단순히 믿음으로 성경을 한 단락씩 읽는다. 신도들을 양육할 책임을 감당할 사람은 없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신앙서적과 성경이 태부족이다. 남경에 예약한 성경은 1년 후에야 도착하며, 예약한 성경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한다. 때문에 그들은 외부에서 와서 신도들을 양육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며 성경 및 신앙서적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그 지방에 한 무리의 이단들이 와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였기에, 그들은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에 아주 조심한다. 또 다시 분열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中國與福音』, 3기, 94.11.-12중에서)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가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조선족 성도들.

신도들이 박해를 받은 중국동맹

종교

북건에 종교연구회 출현

북건성 종교 연구회가 6개월 간의 준비 끝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이 연구회는 종교 연구기관으로서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곳이다.

중국 종교학회 비서실장 겸 중국사회과학원 부비서실장인 대강생(戴康生)은 어제 북건에 도착하여 이 회의에 참석했다. 북건성은 종교적 역사 배경이 깊고, 종교의 종류도 많거니와 중국에서 신도들이 비교적 많은 성(省)이다. (信報 94. 11. 29)

연길, 조선족 목사 탄생

중국 연길에서 두 명의 조선족 목사가 탄생해 그동안 목회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길림성의 조선족 목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북신학원 제2기 졸업생 박용호, 박서용 목사가 바로 그들로서, 지난 17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 기독교회에서 약 2천 명의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한국선교신문 94. 12. 4)

서녕(西寧) 태국양 신부, 노동교육 1년 연도

태국양 신부가 94년 11월 또다시 일 년 간의 노동교육을 연도받았다. 이제 청해성(青海省) 교구의 수천 명의 신도들은 다시 목자 없는 양떼가 되어 버렸다.

태 신부는 원래 같은 해 4월 21일 수감되어 7월 23일에 석방되었었다. 3개월 동안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 세 끼 식사조차 제대로 못한 고초를 겪었다. 그런데 석방된 지 반년도 못되어 또 감금을 당한 것이다.

(公教報 94. 12. 16)

몰래 크리스마스 파티 확산

외국인들의 종교활동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서는 호텔 이외의 공식적인 성탄축하 행사가 전무한 상태.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젊은이들이 디스코, 캐럴송 경연대회 등을 비공식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일부 극성파들은 쌍쌍파티를 즐기는 등 점차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풍조가 확산.

(중앙일보 94. 12. 24)

중국 교회 삼자원칙 재천명

중국기독교협회(C.C.C 회장:丁光訓)는 최근 북경에서 중국기독교협회와 삼자 애국운동상치위원회를 갖고, <삼자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국기독교협회의 지도노선에 대한 강화방침 확인이 주요한 초점으로 떠올랐는데 정 주교는 회의에서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의 삼자 원칙은 한갓 슬로건이 아니라 항상 실행돼야 할 지침”임을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공보 94. 12. 31)

중국기독교협회 목사 대만 방문

북건성 기독교협회 목사 방문단 일행 9명이 1월 11일 대만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2주의 일정을 마치고 1월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북건신학원 원장인 정옥계(鄭玉桂) 및 부원장 임지화(林志華)를 비롯한 단원들은 대만의 각 명소를 돌아보며, 臺中교회, 中臺신학원, 高雄기독교서원 등도 참관하게 된다. 첫날은 “臺北웨슬리에배당”에서 개최되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기독교지도자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은 중국교회가 처음으로 대만 측의 요청을 받은 경우이다.

(星島日報 95. 1. 11)

한중 관계

한-중 노선 본격 운항

12월 22일 오전 9시, 아시아나항공 331편이 서울을 출발, 북경 노선에 취항하면서 한중 5개 항공노선 정기편이 본격 운항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오전 10시 30분 대한항공 651편이 북경에 취항했으며 중국 국제 항공편도 주 7회 북경-서울 노선 운항을 개시했다.

(조선일보 94. 12. 23)

중국 공안원, 한국인 연행 폭행

중국 공안원들이 한국에서 부도를 내고 도피중인 한국인 사업가를 연행하면서 심하게 폭행하고 그와 함께 중국에 온 2명도 함께 강제연행해 사흘 동안이나 불법 감금했다가 풀어준 사건이 발생했

다. 94년 12월 26일 중국 칭다오공항에 내린 직후 채무변제 관계로 분쟁 관계에 있는 나모씨의 청탁을 받은 연걸시 공안원 등 10여명에 의해 권총 등으로 위협을 받으며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혁대, 포승 등으로 묶인 채 강제 연행돼 공안국으로 끌려갔다.
(한겨레신문 95. 1. 7)

중국국제항공 서울사무실 개설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북경-서울 및 청도-서울간 항로에 취항한 중국국제항공공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소문 한성빌딩에 서울지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한국일보 95. 1. 9)

시들해진 중국-북한 혈맹관계

중국 최고지도부가 연내 남북한 공식 방문 길에 오르는 것은 對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둔 외교강화 차원임이 분명하나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 리펑 총리의 방한을 시작으로 연내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차오스(喬石) 全人大 상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실현되면 중국공산당 서열 1,2,3위의 한국방문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혈맹관계>로 표현해 왔던 북한입장으로서서는 대단한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고 이

에 따른 반작용이 어떤 형태로든 표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앙일보 95. 1. 11)

중국, 대륙연구 "특별예우"

장덕진 대륙연구소회장이 벌이고 있는 1억 1천4백만 평 규모의 중국 삼강평원 개발에 대해 중국측이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봉 중국총리는 지난 10일 고위지도자 집무실로 장 회장을 초청, 40여분간 면담하면서 삼강평원을 비롯한 중국 내 농장, 목장 및 에너지개발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중국 측이 이처럼 장 회장을 극진히 환대한 것은 피폐한 농업을 부흥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 특히 중국 내에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동아일보 95. 1. 15)

중의학 유학생 자격증 줄 수 없다.

한의대, 한의사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국내 대학에서 한의대 진학이 어려운 대학진학 희망자는 물론, 대학 졸업자 일반직장인들까지 한의사가 되기위해 중국으로 유학가는 새로운 유행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상 이들 중의학 유학생들에게 한의사 자격을 줄 수 없어 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돌아올 경우 큰 사회문제가 우려된다.
(중앙일보 95. 1. 17)

정치

보수파 거두 요의림 사망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부총리를 지낸 요의림(姚依林, 77세)이 지난 11일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그의 사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89년 6월 4일 천안문 민주화 사태 당시 권력투쟁에서 개혁파인 조자양(趙紫陽) 총리를 무너뜨린 그는 시장개혁이 한때 후퇴하면서 각광을 받았었다. 그러나 등소평으로부터 개혁개방을 가로막는 인물로 기피 대상이었다.
(조선일보 94. 12. 13)

자유무역지 홍콩의 위상 변함없어

중국은 오는 97년 홍콩의 중국반환이후에도 홍콩의 자유항과 자유무역지구로서의 위상에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13일 약속했다.

우이(吳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은 홍콩 경제인 대표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홍콩이 국제무역, 금융, 교통, 정보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1국가 2체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며 홍콩 내의 외국인 재산과 기본법에 의거한 안정은 보장될 것이라면서 홍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경향신문 94. 12. 14)

권력갈등으로 정책 혼선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이 사망한 뒤 집단지도체제의 핵심을 이룰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리펑(李鵬) 총리, 주룽지(朱鎔基) 부총리 등이 빼적거리고 있다.

홍콩의 明報에 따르면 이들 3頭 체제의 갈등 때문에 중국경제가 올해 30% 가까운 인플레이와 국유기업 적자심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으나 지난달 전국경제공작회의나 계획경제공작회의에서조차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 94. 12. 21)



전인대 금융정책 감독권 요구

중국 의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가 농업, 금융, 교육부문에 대한 의사결정권의 일부를 요구함으로써 공산당의 절대권력에 도전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모닝 포스트지가 28일 보도했다.

27일 속개된 제8기 전인대 11차 상무위원회에서 일부 대표들이 농업 및 금융통화, 교육정책 등에 대한 전인대의 감독권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하고 특히 금융통화 부문에 대한 의사결정권 요구는 강택민이 영도하는 재정 영도소조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4. 12. 29)

미-중 지적재산권협상 재개

미국과 중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음반 영화, 도서 등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에서 서로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20일 사이 북경에서 또 한차례 협상을 갖는다고 미국의 한고위 관리가 6일 밝혔다.

(중앙일보 95. 1. 7)

강택민, 군에 당 훈령 준수명령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겸 당총서기는 인민해방군에 대해 군 내부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당의 명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기도 한 강택민이 내린 이번 지시는 최근 군수품공장들이 민수용으로 전환되면서 군내부에 성행하는 각종 이권행위를 일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신문들은 이와 관련, 군부에 대한 당의 지도력 우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군부내의 안정과 전투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앙일보 95. 1. 7)

연합함대 창설 중

중국은 공격용 핵 잠수함을 비롯하여 중장거리 폭격기와 전투기 및 공중 예비정비기 등을 포함, 막강한 공격력과 기동력을 갖춘 연합기동함대를 창설 중이라고 홍콩연합보 등이 9일 보도했다. 이 연합기동함대는 해상 군사충돌과 해상 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의 주력부

대로 투입될 것이라고 이들 신문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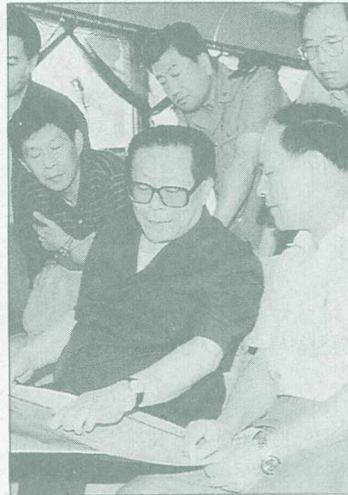
(동아일보 95. 1. 10)

등 사후 비상체제 강화

중국의 최고지도자 등소평(鄧小平)의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반체제인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0일 북경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 중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사회불안을 초래할 움직임을 사전봉쇄 하기 위해 반체제 인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정신장애자를 강제 수용소에 수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5. 1. 11)



언론통제 <신문20條> 곧 발표

중국정부는 덩샤오핑(鄧小平) 사후에 예상되는 혼란에 대비, 언론통제를 위해 <신문 20條>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홍콩언론들이 확인한 이 <신문 20條>는 15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전국선전공작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으로 중국정부는 앞으로 보도금지된 중요뉴스의 발표나 비평성 기사제재, 해외 매체와의 교류 등을 엄격히 제한 또는 감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2년 간 서적, 신문 등의 인쇄공장 설립이 금지되고, 순수 외국자본은 물론 합자에 의한 신문창간

이 금지되며 통신사업 등도 새로운 통제정책에 따라 개방대상에서 빠지는 등 그동안 확대일로를 치닫던 중국언론에 메시가 가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중앙일보 95. 1. 12)

대만, 중국과 경제교류 강화

대만은 중국대륙과의 직접교역 등 경제교류관계 강화를 통해 대만을 21세기 금융, 무역 및 첨단제조업기지로 발전시킨다는 <아시아태평양 운영센터> 건립계획을 5일 최종 확정했다. 대만은 또 이 계획안을 통해 대만 남부 까오슝 지역에 <역외해운센터>를 건립해 이를 제 3지로 규정, 그동안 금지해 왔던 중국과의 직항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하는 획기적인 방침을 확정했다.

(중앙일보 95. 1. 7)

경제

대형 경제사범에 死刑 충격

공직자 부정부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은 최근 거액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제사범들에 대해 잇달아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의 구이저우(貴州)성이 지난 16일 사형을 집행한 엔젠홍(閔健宏·61) 국제신탁 투자공사 회장 사건은 중국사회 안팎에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중국정부는 개혁 개방 정책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8만 3천여 건의 공무원을 비리(非理)로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일보 95. 1. 17)

금세기 최대 삼협댐 공사

중국에 있어 금세기 최대 건설공사인 삼협댐 공사가 내년 초부터 본격화된다. 중국 내륙부의 호북성 양자강 상류에 세계최대의 수력발전소(출력 2천5백만kw)를 건설하는 이 댐공사에는 총 9백54억 원(약9조원)이 소요되며, 오는 2009년 완공목표.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사천(四川), 호북(湖北) 두 성에 걸

쳐 19개 현 및 시의 110만여 주민이 이주를 해야한다.
(국민일보 94. 12. 14)

투자 메리트 큰 중국 증시

중국자본시장은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등 2개 증권거래소 중심의 급속한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 거래소는 최근 4년 간 상장주 시가총액이 약 2백 배로 늘었고 현지 상장주식의 홍콩 뉴욕증시 상장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중국 증시는 제도상의 미비로 리스크도 있으나 성장 잠재력이 큰만큼 투자 메리트도 큰 시장이다.
(중앙일보 94. 12. 24)

가트(GATT) 가입 실패

중국은 20일 금년에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재가입하려던 그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GATT에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시장 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산정권 수립과 함께 GATT를 탈퇴했던 중국은 내년 1월 1일 GATT의 뒤를 이을 세계무역기구(WTO)의 창립회원국이 되기 위해 금년 말을 재가입의 시한으로 정하고, 그들이 WTO의 창립회원국이 되지 못하면 세계무역제도를 전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그러나 중국가입문제에 관한 실무반은 이 날 오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 2월 회의를 계속할 것을 제의했다.

(전주일보 94. 12. 22)

중국 도농간 소득격차 우선 과제

중국의 경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노출된 해안도시 지역과 내륙농촌 지역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국 경제관리들의 최우선과제로 부상했다고 중국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국가경제체제 개혁위원회 대변인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국무원 고문기구인 경제체제 개혁위원회는 중국의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4일 간의 회의를 끝마치면서 이같이 결론짓고 도농(都農) 소득격차

해소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중앙일보 94. 12. 26)

경제특구 확대 필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봉 총리는 24일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수출지향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특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천진에서 열린 경제특구관련회의에서 경제특구의 건설을 가속화해 외자유치와 산업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94. 12. 26)

북경, 식량배급제 재도입

개혁개방정책으로 지난 93년 폐지됐던 중국의 식량배급권(糧票) 제도가 극심한 인플레이 때문에 베이징(北京)시에 한해 다시 도입될 것이라고 일본의 도쿄(東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 시당국은 인플레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직종과 연령에 따라 배급량이 다른 양표를 만들어 지정 상점에서 쌀, 밀가루 등 곡류를 통제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95. 1. 5)

특별환경세 신설 검토

중국 정부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환경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들에 대해 특별환경세를 물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국가환경보호국 해진화 국장의 말을 인용, 7일 보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10개 도시 가운데 북경과 상해, 심양, 광주 등 중국내 주요 도시들이 포함될 정도로 주요 도시에서의 아황산가스 배출이 극심하며 이밖에 광범위한 지역이 수질오염과 산성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95. 1. 7)

상해 외환시장 육성 강화

중국은 미달러와 홍콩달러로 제한돼 있는 상해외환시장의 거래 화폐를 확대하는 등 지난 해 4월에 개장된 중국 외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8일 보도했다.
(동아일보 94. 1. 8)

중국 외화붐, 인플레이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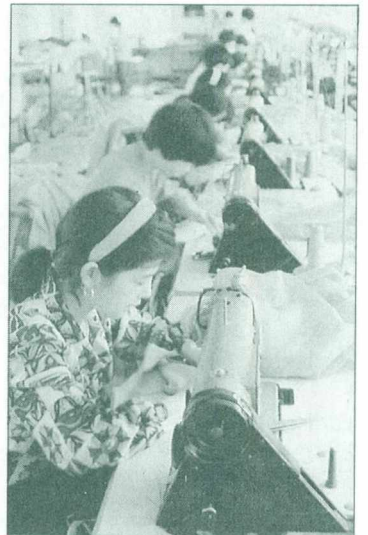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외자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외자의 유입이 인플레이 압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자금 유입은 인민폐의 통화증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금융긴축 정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계속 유지하되 업종에 따라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95. 1. 13)

對中, 외국인투자 작년 44% 감소

중국 대외무역경제협작부의 비공식 집계 따르면 94년의 외국투자 계약액은 6백90억 달러로 1년 전의 1천2백27억 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무려 44%나 격감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 것은 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처음이다. 중국정부 당국자들은 이같은 외국투자 격감의 배경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한 정부의 통화긴축조치와 외국기업의 투자요건 강화 등을 꼽았다.
(중앙일보 95. 1. 16)



중국의 대만 합자(合資)공장.

사회

“북경서 살려면 10만원 씩 내라”

북경시 인민위원회는 94년 11월 1일부터 시내에 상주하는 외지인에 대해 1인당 1만~10만원(한화 1백만~1천만원)씩 容納費라는 일종의 인두세를 물릴 계획이다. 이 세금은 동북삼성과 북경상주 한국업체에 종사하는 많은 조선족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 상사들도 부과대상.

(동아일보 94. 10. 28)

취학연령 3세로 낮춰

중국은 유치원 과정을 공식교육에 편입하기 위해 취학연령을 현재의 6세에서 3세로 앞당기고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가르치는 등 획기적인 교육개혁안을 최근 마련했다.

(조선일보 94. 11. 1)

공자 재평가

중국에서 공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다. 공자와 유교를 논하는 국제 세미나가 열리는가 하면 공자에 관한 각종 연구서도 속속 출간되고 있다.

최근 북경에서는 역사의 회고와 21세기 유교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자탄생 2545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세미나가 개최됐다.

(국민일보 94. 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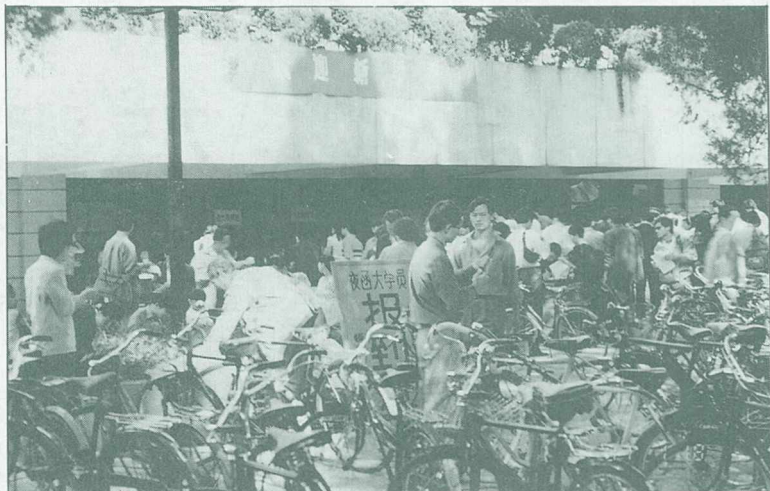
노인 인구 급증 예상

중국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수가 2000년에는 1억2천7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정부의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노인학연구소가 발표.

(국민일보 94. 12. 14)

마르크스연구소 폐지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40년 전통의 마르크스주의연구소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사회과학원이 연구의 중점을 금융, 예산, 무역, 농업과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이론으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94. 12. 17.)

공직·사무직 부패 작년보다 65%증가

중국에서 올들어 지난달까지 11개월 간 공직자 부패와 화이트 칼라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3만2천8백 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65%가 늘어났다고 법제일보(法制日報)가 23일 보도했다. 또한 최고인민검찰원의 장쓰칭(張思卿) 검찰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부패와 경제범죄 및 기타 중대범죄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 남부 광둥성 정부는 22일 뇌물을 받았거나 부정부패, 공금유용 혐의로 체포된 3명의 공직자에 대해 지난 22일 사형을 집행.

(중앙일보 94. 12. 24)

혼수비용 월급 14년치

중국인들의 혼수비용이 최근 도시근로자 월급 14년치와 맞먹을 정도로 급속히 증가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도시지역 국민소득이 1인당 3천1백50원(추계치)임을 감안하면 무려 14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거액이다.

(중앙일보 95. 1. 7)

중국,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중국의 인민일보는 6일 길림성의 장춘시가 오는 2006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길림성 부시장 쎅윈의 말을 인용한 이 보도는 장춘시가 오는 96년 국내 동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경기시설을 보다 완

벽히 갖춘 이후 공식적으로 98년에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95. 1. 7)

중국서도 지난 4일 지진 발생

중국 남부 광서 좡족자치구에서 이번주 일련의 지진이 발생, 3명이 다치고 1천여채 이상의 가옥들이 파괴됐다고 관영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4일 발생한 리허터 규모 3.8-4.8의 지진들로 사망한 사람은 없었으나 광서장족자치구 대화현의 공천, 백마등에서 가옥 1천1백62채가 파괴됐으며 현지 교통 통신망이 한동안 두절됐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95. 1. 7)

중국, 해적판책 발간법에 종신형

지적재산권 침해를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보복에 직면한 중국당국이 수십만 권의 해적판 책을 발간한 내국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중국의 당기관지 인민일보는 7일 중국 남동부의 한 인민중재법원이 지난 90년 7월부터 20여종의 책 68만9천권을 해적판으로 발간한 루펑(31)이란 이름의 남자에게 6일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95. 1. 7)

산성비 전국확산

중국에서 산성비 확산으로 경제 및 환경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전국에 걸쳐 내린 산성비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하였다. (조선일보 95. 1. 11)

중국을 주께로

기도 캘린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며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만큼 강력하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중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기도한만큼 중국은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요일별로 기도의 제목을 정리했으나 이번호부터는 날짜별로 내 보냅니다. 좀 더 애쓰고 힘써서 중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1일 신중한 중국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중국에 건립된 신학교, 대학, 병원 등이 중국 정부에 의해 폐쇄되거나 정부 소유로 전환될 위협에 처해 있다.

눈에 보이는 선교가 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일하는 이들이 신중한 선교 전략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재정이 중국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2일 선교사들의 보안 문제와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보안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교회, 가족, 친지들과의 부주의한 통신으로 인해 사역자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산주의 통제 사회에서 신분상의 제약을 받는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장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본국의 후원자들이 지혜롭게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3일 성경신학의 정립을 위해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대 중국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 신학이론이 수립되어 체계적인 제자 훈련과 지도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사역 기관이 설립되고, 이들과의 협력으로 효과적인 열매를 맺는 선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이러한 연구 단체 및 훈련 기관을 물

질과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4일 방송선교를 위해

중국인들에 의한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마련된 '중국의 새벽(DAWN CHINA)' 운동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한 중국인들의 제자훈련이 효과를 거두도록, 청취자들의 현지청취가 증가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복음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방송국 직원들의 영성을 위해서.

5일 중국의 성경 보급을 위해

작년 애덕기금회를 통해 220만 권의 성경이 인쇄되었지만 수많은 중국의 기독교인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궁벽한 시골이나 산악 지역, 내륙지방에 사는 이들이 성경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공인교회 외에도 가정교회 및 처소교회 신도들에게 제공될 성경이 해외의 교회와 신도들에 의해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성경 전달 사역자들이 세간 검문을 통과할 때 중국 공무원들의 마음이 녹아 그들이 중국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의 전달을 허락하도록.

6일 핍박받는 가정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중국 정부는, 해외 복음방송이 촉매제가 되어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지하 교회를 핍박하고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해외

선교사들의 근거지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선교사들 역시 계속 체포하고 있다.

고난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조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안전하고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7일 강와시교회와 동관교회를 위해

강와시교회와 동관교회 사건을 통해 중국의 공인교회가 여전히 공산 정부의 조정과 통제에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교회의 본 모습을 찾고자 애쓰다가, 이번 사건으로 체포되어 갇힌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조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강와시교회와 동관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으로 절망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8일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중국에는 적어도 7천 명 가량의 순회 전도인들이 있다.

그들의 필요 -신령한 능력, 건강, 보호하심, 공급하여야 할 성경과 재료들, 양식과 처소 등을 채워주시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해외에서 중국에 들어가 비밀리에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9일 삼자등록 압력받는 가정교회를 위해

지난 해 9월, 상해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정부가 그들의 모임을 등록하라고 더욱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개의 독립 가정교회도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소식을 전했다. 교회 지도자들이 좀 더 많은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10일 중국 교회를 이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중국교회에 지도자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영적인 지도자는 더욱 부족하다. 중국교회를 잘 이끌어 가고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도록.

11일 중국신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교회를 빙자하여 사업을 벌이고, 교회 현금을 유용하여 개인이 착복하기도 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영적이지 못한 지도자들, 또한 이들과 결탁한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신도들이 많은데 이 핏박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12일 사회 통제 강화하의 가정교회를 위해

작년 여름 반범죄 운동(An anti-crime campaign)이 중국 전역에 걸쳐 시작되었다. 또한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 통제를 강화하여 96년 8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과거 이런 조치하에서 교회도 역시 핏박을 받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의 가정교회를 보호하셔서 체제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13일 13일 열려진 항공 노선을 위해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북경, 상해, 심양, 청도 노선이 열렸다. 넓어진 교류의 물결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없다는 악한 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이 들어가 중국인들에게 실망을 주고 나쁜 감정을 가지게 하여 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또한 각종 이단들이 들어가 중국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비진리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 세우셔야 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악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의 발길을 막아주시도록.

14일 중국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중국에 3천만 명의 어린이가 있다. 최근 이 어린이들에게 몸에 해로운 성장 호르몬이나 첨가제를 넣은 불량식품, 영양제 등을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사업가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황금만능주의에 눈이 어두워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기업가들의 행위를 막아주시고,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15일 미신적인 제사행위에 미혹된 영혼들을 위해

중국의 내륙지역에서 종교적인 미신과 주술, 제사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범죄 행위를 선동하며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이들의 꾀계를 막으시고, 진리에 갈급하나 진리에 눈이 먼 중국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악한 제사행위에 빠진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16일 마약중독된 청소년들을 위해

경제발전으로 인해 외부 세계와의 문이 열리면서 이전에 금지되었던 마약의 손길이 중국 청소년들에게 뻗쳐지고 있다. 아편 이외에 다른 종류의 마약이나 약물중독에 빠진 사람이 많은데, 그 중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마약중독에 빠진 중국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치료센터가 세워지고 정부가 마약밀매를 근절시키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약에 의지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채워질 수 있도록.

17일 17일 해외파견된 중국 노동자들을 위해

지난 15년 동안 83만 명 이상의 중국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이 해외로 파견되어 일하고 있다고 한다. 홍콩, 멕시코, 싱가포르, 한국 등에서 일하는 이들이 외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 뿌려진 씨앗이 중국에서 더욱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중국 복음화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18일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해

국내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해결책 모색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과 교회들이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며, 사회적으로 외국인을 따뜻하게 받아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19일 한국의 1만 중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국내 각 공단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근로자들이 1만여 명을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기술 연수의 명목으로 입국할 텐데,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화할 수 있는 전략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중국인 근로자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들을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재정과 인력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20일 부활되는 유교 사상 수용의 근절을 위해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신 윤리적인 공백'을 채우기 위한 한 방편으로 중국 정부는 반세기 전에 포기했던 유교사상,



공자사상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공자 사상이 중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들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중국 땅에 뿌려진 복음이 중국 전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21일 21일 등소평 이후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

등소평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중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정부와 소수민족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 민족 사이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22일 자연재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위해

작년 중국의 여러 지역에 걸쳐 일어났던 큰 홍수로 인해 수천 명의 농부들이 심각한 빈곤 상태에 있다. 또한 8월 온주(溫州)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최소한 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올해 1월 광서성의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생겼다. 이러한 재난으로 목숨을 잃고 재산과 가족을 잃은 중국인들을 위해 기도하자.

18일 인플레이션에서 고통받는 중국인들을 위해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현재 중국은 20% 이상의 인플레이션으로 기본 식량의 가격이 2배로 뛰었다. 노인들,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있는 지식인들과 교사들, 농장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

24일 중국의 교육제도를 위해

중국의 무신론 교육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비인간화, 비윤리적인 인간으로 자라게 한다. 하나님께서 중국의 교육제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참된 인간성과 양심이 회복되는 교육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전문인사역자로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천들로 인해 어린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25일 희망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실학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중국 정부와 해외의 각 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희망 프로젝트가 본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이 운동을 통해 중국의 어린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어 바르게 자라 밝은 중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도록.

26일 교사 전문인선교사들을 위해

중국의 각 교육기관에서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문인 선교사들이 있다. 이들이 참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성실성으로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으로 인정받아 장기적인 사역이 가능하게 되며, 학생들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27일 빈부 격차를 해소할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위해

중국의 빈부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절대 빈곤의 인구가 2억 이상인 상황에서 돈을 물 쓰듯이 쓰며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이들이 많고 있다.

영혼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이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중국의 신도들이 중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책임을 감당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28일 해외로 밀입국하는 난민들을 위해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서방세계로 밀입국하는 중국 난민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호주에만 94년 이래 이미 9백 명의 난민이 몰려들었는데, 호주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 자격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자유와 기회를 찾아 탈출한 이들을 도우셔서 이들이 안정된 삶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29일 중국의 미전도종족을 위해

중국 서부의 소수민족들(회족, 위구르, 타지크족 등)은 기독교에 대해 적의를 띤 모슬렘들로서, 공산 정부에 저항하는 것만큼이나 복음에 강하게 저항한다.

티벳불교, 이슬람, 정령숭배의 거짓 영들의 세력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 미전도 족속 속에 들어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전문인사역자들이 들어갈 기회가 넓어질 수 있도록.

30일 중국 모슬렘들을 위해

최근 안휘성 지역의 모슬렘 회족(回族)인들의 신앙이 점점 열광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 민족간에 단절과 미움의 벽을 만드는 악한 영이 깨어지고, 중국 교회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각 선교단체에서 출판하는 중국의 모슬렘들을 위한 소책자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31일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

하남성의 가정 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회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신장성으로 갈 계획으로 위구르어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들이 이 사명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부딪쳐야 할 많은 장애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의 기도제목은 아시아기도(OMF), 세계를 품는 기도(왕의 아이들), Pray for China(CCRC), Chinese around the World(CAW), China News and Church Report(CMI), 亞洲週刊 및 국내 일간지 등을 참고하여 제공되는 것입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고 신 선 단

2월 중국선교세미나 개최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효과적인 중국선교를 돕기 위한 중국선교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2월 중국선교세미나

일시: 1995년 2월 27일(월)

오후 7시 ~ 9시 30분

주제: 중국선교를 통한 북한선교

강사: 박완신 박사

(북한사회과학연구원 원장)

장소: 이수성결교회

(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94-8038, 533-5497, 535-4255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

중국을 주께로 드리기를 위한 기도합주회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중국어문선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회원 및 선교 헌신자,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를 통해 중국을 주께로 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국 현지 선교사들의 생생한 사역보고를 통해 최근 중국의 상황과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94-8038, 533-5497, 535-4255

중국선교 특별세미나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중국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국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홍콩의 C.C.L.(Christian Communications Limited) 사역자를 초청, “현지의 필요에 부응하는 중국선교”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C.C.L.은 중국대륙의 복음화 사역에 필요한 문서들을 출판하고 나아가서 지도자 양육 및 훈련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단체이다.

비공개 세미나 (교단, 목회자 및 선교단체 책임자)- 1995년 4월 28일

오후 12시 30분 - 7시 30분

공개 세미나 - 1995년 4월 29일

주제: 현지의 필요에 부응하는 중국선교

강사: 陳敏瀾(C.C.L.협력목사)

祝民忠(C.C.L.발전부장)

김성태(충신대학원 교수)

장소: 한성중화교회 (중구 정동 25번지)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33-5497, 535-4255, 594-8038

중국어문선교회 행정실에서
일할 간사를 모집합니다.

헌신된 분으로 선교회 본부 행정사역에
관심 이 있는 분이나 재정관리에 은사가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Tel. 594-8038 (기드온 간사)

선교한국 단기선교학교

선교한국대회를 통해 타문화권 선교에 헌신한 이들을 위한 사후양육 프로그램인 단기선교학교가 3월 11일 개강한다.

선교헌신자 및 관심자들이 선교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선교단체 총무, 전문분야의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매주 토요일 조이선교회관에서 진행된다.

등록마감은 95년 3월 6일(월) 오후 5시까지이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한국 사무국
Tel. 555-2713, Fax. 563-0661

선교정탐훈련원 제2기생 모집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는 미전도종족 복음화의 첫단계로서 '선교정탐'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 교회, 선교단체의 정탐리더를 훈련한다는 취지 아래 제2기 선교정탐훈련을 마련하였다.

선교정보화 전략, 도서실 연구방법 및 지역 연구 방법론, 팀사역 및 대인관계 기술, 참여자 관찰 및 인터뷰 기술, 상황화 전략,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질 이번 강의는 1995년 3월 18일부터 12주간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50명이며 참가비는 12만원.

문의는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로
Tel. 402-4967, Fax. 402-4968

해외협력선교회(PWM) 선교사 모집

해외협력선교회(PWM)에서는 평생 또는 단기 선교사로 선교지 개척을 할 유능한 선교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일반대학이나 정규신학교를 졸업한 40세 미만의 남녀(전문인 사역자 제외)로 선교의 소명이 투철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팀 사역에 어려움이 없는

자이면 된다.

현지 선교단체와의 협력사역인 남미 수리남의 신학교 설립사역과 브라질의 신학교육, 영어교육, 교회설립사역, 칠레의 교역자 재교육, 말레이시아에 사는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사역, 태국·미얀마·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의 사역자 재교육 센터설립사역, 태국 남부의 말레이계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사역, 필리핀 한국선교사 자녀 학교 교사사역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PWM선교회

Tel. : 565-3431~2 (안성원 선교사)

해외협력선교회(PWM) '95 하기 선교훈련원

PWM의 하기 선교훈련이 95년 8월 7일(월)부터 8월 19일(토)까지 김화 수양관에서 80명의 선교관심자 및 선교헌신자를 상대로 개최된다.

현지의 경험을 가진 본 선교회의 전임 선교사들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등록비 18만원이며 본회의 소정 양식을 받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PWM선교회

Tel. : 565-3431~2

개척선교부(GMP) 오리엔테이션 안내

GMP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사역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 관심자, 선교사 후보생을 비롯하여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과 영적 추수를 향한 비전 및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나누고자 선교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마련했다.

일시 : 95년 4월 3일 - 6월 25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9시)

장소 : 서울 서초동 GMP사무실

강사 : GMP전문 사역자와 선교사

신청방법 : 1995년 3월 24일까지 소정의 지원양식(방문 또는 전화신청)

등록비 : 22,000원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GMP선교부

Tel. 556-9138, 565-6792 Fax. 563-6792

GMP 95년 터키 여름 단기 선교훈련

GMP는 선교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실제적인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사역의 원칙과 전략들을 점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이슬람 선교를 위한 단기 선교를 개최한다.

참가대상: 선교지망생으로 국내외 선교사역에 직간접으로 참여 경험을 가진 자, 1, 2차 선교 오리엔테이션 이수자 및 3차 예정자, 타선교단체에서 이에 준한 훈련과 추천을 받은 자.

훈련인원: 총 20명(A팀 : 10명, B팀 : 10명)

일시: 1995년 7월 18일(화) - 8월 8일(화)

지역: A팀: 터키, 불가리아,

B팀: 터키, 아제르바이잔

비용: 약 190만원 예상(추후 확정된 금액
통보)

구비서류: 지원서, 신앙간증문(지원동기서 포함), 이력서, 출석교회 담임목사 혹은 선교 단체장 추천서

신청마감: 1995년 3월 31일

자세한 문의는 Tel. 556-9138, 565-6792,
Fax. 563-6950

한국선교훈련원(GMTC) 훈련생 모집

제11기 단기 훈련생 모집

훈련기간: 95년 8월 말 - 95년 11월 말

모집일정: 지원마감: 95년 3월 말

참고의견서 및 서류전형 : 95년 4월 중

면담 및 허입확정: 95년 5월

지원자격: 선교지에서 어느 정도 사역의 경험이 있는 분.

선교행정 사역 예정자.

과거에 선교 훈련을 받은 자.

다른 선교 훈련(언어훈련, 성경번역, 직업훈련)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 있는 분

개교회 선교담당 목사.

선교지의 현지체제하에서 훈련을 받을 분.

제12기 정기 모집

훈련기간: 96년 1월 초 - 96년 7월 말

모집일정: 지원마감 : 95년 5월 말

참고의견서 및 서류전형 : 95년 6월 중

면담 및 허입결정 : 96년 7월

자격: 대졸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기본적인 신앙훈련을 받은 전임사역자 또는 평신도로서 타문화권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느끼고 이에 따라 선교지로 나가기 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받기 원하는 분.

문의: Tel. 649-3197, Fax. 647-7675

각 성의 삼자교회 주소록 및 전화번호부

单位	地址	地区号	电话	邮编	礼拜时间或传真号
中国基督教两会	上海市圆明园路169号三楼	021	3210806 3213396	200002	传真: 3232605
中国基督教两会南京办事处	南京市大铜银巷17号	025	4410835	210029	传真: 7741053
金陵协和神学院	南京市大铜银巷17号	025	6641439	210029	
安徽省					
安徽省基督教两会	合肥市宿州路68号	0551	2676725 2679170	230001	
安徽神学院	合肥市宿州路68号	0551	2676725 2679170	230001	
合肥市基督教会	合肥市宿州路68号	0551	2623060	230001	日8:30 14:00
圣诞堂	安庆市健康路15号	0556	512072	246003	日9:00
蚌埠市基督教堂	蚌埠市南山路135号	0552	249387	230000	日7:00 六7:00
滁州市基督教会	滁州市公管巷19号	0550	323534	239001	日8:30
阜阳市基督教会	阜阳市解放北路164号	0558	265245	236000	日8:30
淮北市基督教会	淮北市相山5号工地	05611	327954	235000	日8:30
淮南市基督教会	淮南市光华街	0554	325121	232000	日8:30
黄山市礼拜堂	黄山市屯溪区中马路4号	0559	216834	245011	日8:30
马鞍山市基督教会	马鞍山市九华路	0555	22148	243041	日8:30
芜湖市基督教会	芜湖市花津路46号	0553	332283	241000	日8:30 14:00
北京市					
北京市基督教两会	东单北大街21号	01	5255086 5124669	100005	
燕京神学院	东单北大街43号	01	5251090	100005	
崇文门堂	崇文门内后沟胡同2号	01	5133549	100005	日9:30
宽街堂	东城区地安门东大街50号	01	4032592	100010	日9:00
海淀堂	海淀区镇池水湖10号	01	2551392	100802	日9:30
珠市口堂	前门大街129号	01	3016678	100050	日9:30
缸瓦市堂	西四南大街57号	01	6034027	100034	日7:30 9:30 19:00
福建省					
福建省基督教两会	福州市仓山乐群路16号	0591	3445102	350007	
福建神学院	福州市仓山乐群路16号	0591	3442635	350007	
花巷堂	福州市八一七北路花巷7号	0591	7522645	350001	日8:30 17:00 六9:00 14:00
天安堂	福州市仓山天安里15号	0591	3475719	350007	日8:30 14:30
苍霞堂	福州市台江区文通巷17号	0591	3259795	350009	日8:30 19:00
铺前巷	福州市817中路772号	0591	3259042	350004	日8:30 14:30
南平福音堂	南平市东山路17号	0599	823952	353000	日8:30
莆田市基督教会	莆田市城内仓边巷14号	0594	2035447	351100	日9:00 14:00 19:00
泉南堂	泉州市中山中路374号	0595	2183151	362000	日9:00 14:00
三一堂	厦门市鼓浪屿安海路71号	0592	2060648	361002	日9:00 14:30 19:30
竹树礼拜堂	厦门市开禾路133号	0592	2017382	361001	日9:00
东坂后堂	漳州市新华西路216号	0596	2054540	363000	日9:00 14:30
甘肃省					
甘肃省基督教两会	兰州市张掖路84号	0931	8464621	730030	
兰州市基督教会	兰州市张掖路84号	0931	8464621	730030	日10:00
平凉基督教堂	平凉市南后街1号	0933		744000	日9:00 14:00
西峰市基督教堂	西峰市基督教会	0934		745000	日12:00
广东省					
广东省基督教两会	广州市中山三路17号	020	3815758	510080	传真: 3815758
广东协和神学院	广州市沙面大街69号	020	8867950	510130	
深圳市基督教堂	深圳市和平路22号	0755	5577377	518001	日9:00 12:00

单位	地址	地区号	电话	邮编	礼拜时间或传真号
佛山贡恩堂	佛山市莲花路71号	0757	224428	528000	日12:00
沙面会堂	广州沙面南街60号	020	8867950	510130	日9:30
东山堂	广州市东山寺贝通津9号	020	7776305	510080	日12:00 六12:30
锡安堂	广州市人民中路392号	020	8889054	510000	日12:00 19:00
救主堂	广州市万福路184号	020	3335778	510115	日9:00 19:30
惠州堂	惠州市中山西路6号之一	0752	2235656	516001	日8:30 12:30
东门礼拜堂	梅州市区东门大康巷10号	0753	223899	514000	日9:30
市西堂	汕头市民权路146号	0754	8271826	515031	日9:00 19:00
台山堂	台山市台城台西路186号	07657	525709	529200	日12:00
石岐太平堂	中山市太平路高家基6号	07654	8823875	528402	日12:00
广西壮族自治区					
广西壮族自治区基督教两会	南宁市七星路90号	0771	208153	530022	
北海市基督教会	北海市珠海西路115号	0779	224799	536000	日9:00
柳州市基督教会	柳州市北鹊路65号	0772		545002	日12:00
南宁市教会	南宁市中山路65号	0771	207431	530012	日8:30
桂林市基督教会	桂林市中山中路185号	0773	222604	541001	日12:00
梧州市教会	梧州市大中路5号	0774	220433	543000	日9:00
贵州省					
贵州省基督教两会	贵阳市黔灵西路68号	0851	623713	550001	
贵阳市基督教会	贵阳市黔灵西路68号	0851	623713	550001	日10:00
遵义市基督教会	遵义市中华南路73号2楼	0852		563000	日14:00
海南省					
海南省基督教两会	海口市海府大道46号504室	0898	5332037	570003	
那大基督教堂	儋州市那大镇东风街43号	0890		571600	10:00
海口市基督教会	海口市义兴街247号	0898	7225997	570000	日10:00
加积基督教堂	琼海市加积镇五德街40号	08096	823894	571400	日12:30
三亚基督教堂	三亚市(红沙镇)基督教堂	0899		572019	日9:00
河北省					
河北省基督教两会	石家庄市石邑路1号	0311	7093879	050051	
保定市基督教会	保定市花园街12号	0312	234732	071000	日9:00
邯郸市基督教会	邯郸市陵西街190号	0310	326176	056002	日9:30
廊坊基督教会	廊坊市建国道24号	0316	227839	102800	日9:00
秦皇岛市基督教会	秦皇岛市民族路文明里一段10号	0335	337980	066000	日8:30
石家庄市基督教会	石家庄市新华东路176号	0311	722318	050000	日9:30 六9:30
唐山市教会	唐山市路北小窑马路	0315	24095	063000	日9:30
邢台市礼拜堂	邢台市新西街78号	0319		054001	日9:30 14:00
张家口市基督教会	张家口市桥西区东关街西清真寺巷1号	0313	213782	075000	日9:30
河南省					
河南省基督教两会	郑州市汉川街23号	0371	6964080	450000	
自由路礼拜堂	开封市自由路东段107号	0378	325330	457000	日8:00 10:00
南关礼拜堂	开封市南关医院前街	0378		457000	日8:30
西门里礼拜堂	开封市西门里	0378	344170	225002	日9:00
东大街堂	洛阳市老城区明新街49号	0379	351828	471002	日8:00 15:00
兴隆街礼拜堂	洛阳市瀍河回族区兴隆街73号	0379	353349	471002	日8:30 14:30
商丘市基督教会	商丘市民安大街189号	0370	228148	476000	日9:00
五一路教堂	许昌市委都区五一路北段80号	0374	225544	461000	日8:00 14:00
汉川街礼拜堂	郑州市汉川街23号	0371	6964080	450000	日8:30 14:30
人民路礼拜堂	郑州市人民路	0371		450000	日8:30 14:30
西太康路礼拜堂	郑州市西太康路	0371	224657	450000	日8:30
黑龙江省					
黑龙江省基督教两会	哈尔滨市南岗区革新街139号	0451	2631117	150001	
大庆市基督教会	大庆市龙凤区前二路	04610	44855	163711	日8:00 10:00 18:00
道里礼拜堂	哈尔滨市道里区新阳路160号	0451	4509734	150056	日8:30 13:00 18:00
道外礼拜堂	哈尔滨市道外区北大六道街14号	0451	8681563	150020	日7:00 13:00 18:00
南岗礼拜堂	哈尔滨市南岗区东大直街252号	0451	3638690	150001	日6:00 8:00 13:00 17:30
鹤岗市基督教会	鹤岗市工农区28委6组	04618		154101	日8:00 12:00

单位	地址	地区号	电话	邮编	礼拜时间或传真号
佳木斯市基督教会	佳木斯市光复路西段	0454		154002	日9:00 13:30 17:30
牡丹江市基督教会	牡丹江市东四条路长安二道街37号	0453	241870	157000	日8:30
齐齐哈尔市基督教会	齐齐哈尔市龙沙区安心胡同一号	0452	427472	161000	日7:30 10:30 14:00
湖北省					
湖北省基督教两会	武汉市武昌区民主路187号	027	8877807	430061	
中南神学院	武汉市武昌区民主路187号	027	8876281	441800	
老河口市基督教堂	老河口市普宁街83号福音堂	07207	223420	441800	日9:00 14:30
沙市基督教堂	沙市中山路44号	0716	215817	434000	日9:30
救世堂	武汉市汉口汉正街475号	027	5861899	430033	日9:30
荣光堂	武汉市江岸区黄石路26号	027	2835484	430014	日9:30
武昌堂	武汉市武昌民主路187号	027	8877807	430061	日9:30
襄樊市基督教堂	襄樊市朝阳路30号	0710	223208	441000	日9:30
宜昌市基督教堂	宜昌市沿江大道101号	0717	221895	443000	日9:00 六19:00
湖南省					
湖南省基督教两会	长沙市南阳街114号	0731	4429034	410005	
真光堂	常德市和平西街卫门口	0736	226063	415000	日9:30
城南堂	长沙市社坛街19号	0731	5551910	410002	日9:00
城北堂	长沙市外湘春街50号	0731	4442166	410008	日9:30
郴州市基督教会	郴州市中山北街26号	0735	255215	423000	日9:30 六9:30
衡阳市基督教会	衡阳市中山南路20号	0734	226150	421000	日9:30
邵阳市基督教会	邵阳市城北路36号	0739	325594	422000	日9:00
湘潭市基督教会	湘潭市城正街383号	0732	222876	411100	日9:00
益阳市基督教会	益阳市桃花仑康复南路	0737	223603	413000	日10:00
岳阳市教会	岳阳市洞庭南路89号	0730	225297	414000	日9:00 六9:00
张家界市基督教会	张家界市新码头75号	0737		416600	日10:00
株洲堂	株洲市解放街115号	0733		412000	日9:00
吉林省					
吉林省基督教两会	长春市西五马路37号	0431	2957722	130042	
长春市基督教会	长春市西五马路37号	0431	2957722	130042	日8:00 11:00 六9:00
吉林市基督教会	吉林市河南街188号		229188	132011	日
江苏省					
江苏省基督教两会	南京市大铜银巷17号	025	6641548	210029	
莫愁路堂	南京市莫愁路390号	025	4469257	210004	日9:00 六9:00
圣保罗堂	南京市太平南路396号	025	6647225	210002	日9:00
丹阳市基督教堂	丹阳市老西门大街19号	05211	528627	212300	日9:00
常州市基督教堂	常州市县学街17号	0519	6634339	213003	日9:00
南通教堂	南通市段家坝路	0513	511556	226006	日9:00
官巷堂	苏州市官巷20号	0512	5224152	215005	日9:30
使徒堂	苏州市养育巷130号	0512	5227701	215002	日9:00
无锡市教堂	无锡市中山路98号	0510	2720149	214002	日9:00 19:00 六9:00
淮海西路礼拜堂	徐州市淮海西路47号	0516	3725330	221002	日8:00 10:00 六8:30
扬州市礼拜堂	扬州市萃园路2号	0514	344170	225002	日9:00
镇江市基督教堂	镇江市大西路343号	0511	5225601	212002	日9:00
江西省					
江西省基督教两会	南昌市民德路124号	0791	224657	330008	
赣州市基督教会	赣州市大公路47号	0797		341000	日9:00 14:00
景德镇市基督教会	景德镇市中华路101号	0798	226780	333000	日8:30 14:00 19:30
九江市礼拜堂	九江市督府巷18号	0792	227725	332000	日8:30 14:30
庐山礼拜堂	庐山市河西路438号	0792		332900	日9:30
志道堂	南昌市民德路124号	0791	224657	330008	日7:30 9:30 14:00 19:30
辽宁省					
辽宁省基督教两会	沈阳市沈河区北一经街60号	024	2829367	110014	
东北神学院	沈阳市沈河区北一经街60号	024	2829367	110014	
绿化街礼拜堂	鞍山市铁东区绿化街42号	0412	534089	114001	日8:00 10:00
朝阳市基督教会	朝阳市东塘子胡同二段19号	04284	215439	122000	日8:00
北京街礼拜堂	大连市长江路605号	0411	3631678	116011	日

单位	地址	地区号	电话	邮编	礼拜时间或传真号
玉光街礼拜堂	大连市中山区玉光街2号	0411	2630583	116001	日
丹东市基督教两会	丹东市元宝区青龙区街九组199号	0415	443878	118001	日9:00 14:00
锦西市基督教两会	锦西市连山区连山大街4756号	04261	222254	121500	日8:00
锦州市基督教两会	锦州市古塔区洛阳路32号	0416	20939	121000	日8:00
东三道街教会	辽阳市文圣区东三道街34号	0419	332723	111000	日9:30
建设街礼拜堂	盘锦市双台子区建设街四段教会	04271		124000	日8:00
东关教会	沈阳市东顺城街三自巷8号	024	4844769	110042	日8:00 10:00 13:00
北市教会	沈阳市皇寺路144号	024	2726956	110002	日8:00 10:00 18:00
铁西教会	沈阳市十三路32号	024	5875493	110023	日8:00 10:00 13:00
西塔教会	沈阳市市府大路33号	024	3401171	110001	日10:00 19:30
铁岭市基督教两会	铁岭市银州区柴河街16委二组	0410	25857	112000	日8:30 12:00
营口市基督教两会	营口市西市区延寿里一号	0417	236646	115003	日9:30
内蒙古自治区					
内蒙古自治区基督教两会	呼和浩特市新城南街	0471	636429	010010	
包头市基督教两会	包头市东河区大圪料街22号	0472		014040	日
通顺街基督教两会	呼和浩特市旧城通顺街	0471	672472	010010	日7:30 15:30
新城南街基督教两会	呼和浩特市新城南街	0471	636429	010010	日7:30 15:30
集宁市基督教两会	集宁市建国三路41号	0474		012000	日上午
银川市基督教两会	宁夏回族自治区银川市玉皇阁北街20号	0951		750004	日9:30
青海省基督教两会	西宁市教场街14号	0971	54918	810000	
西宁市基督教两会	西宁市教场街14号	0971	54918	810000	日9:00 14:00
山东省					
山东省基督教两会	济南市经二路67号	0531	6923228	250001	
山东神学院	济南市经二路67号	0531	6926227	250001	
经四路教会	济南市经四路425号	0531	7936327	250001	日9:00 19:00
后宰门教会	济南市历下区后宰门街105号	0531	6927094	250011	日8:30 19:00
黄家街教堂	济宁市县前街57号	0537	216420	272129	日8:30
周村基督教两会	淄博市丝市街22号	0533	610777	255300	日9:00
江苏路教会	青岛市江苏路15号	0532	2865970	266003	日9:00
泰安市基督教两会	泰安市青年路	0538	225828	271000	日9:00
潍坊市基督教两会	潍坊市东关后宰门街望槐园西侧	0536	235403	261041	日7:30
烟台市基督教两会	烟台市胜利路134号	0535	216461	264001	日9:00
枣庄基督教两会	枣庄市峰城南关	05471		277300	日9:30
山西省					
山西省基督教两会	太原市桥头街118号	0351	2027557 4049161	030001	
大同市基督教两会	大同市棋盘街15号	0352	253766	037004	日6:30 9:30 14:30
临汾市基督教两会	临汾市北青狮子口40号	0357	210035	041000	日10:00
朔州市礼拜堂	朔州市城区大营街25号	03618		038500	日9:30 14:30
太原市基督教两会	太原市桥头街118号	0351	2027557 4049161	030001	日9:30
陕西省					
陕西省基督教两会	西安市集贤巷甲字1号	029	7269079	710004	
陕西圣经学校	三原县油房道94号	09202	22577	713800	
宝鸡市基督教两会	宝鸡市胜利路22号	0917	214413	721001	日8:30
铜川市基督教两会	铜川市金华路	0919	211219	727000	日9:00 19:30
北大街堂	西安市北大街99号	029	7232036	710003	日8:00 10:00 19:30
东新巷堂	西安市东关东新巷55号	029	3238041	710048	日8:00 19:00
南新街堂	西安市南新街集贤巷付一号	029	7215757	710004	日7:00 8:30 10:00 19:30
上海市					
上海市基督教两会	西藏中路328号	021	3517152 3514515	200001	
华东神学院	五原路73号	021	4333304	200031	
闸北堂	宝通路340号	021	6629409	200071	六9:00 日9:00 19:00
沪西礼拜堂	长宁路1465号	021	2597389	200051	日7:30 9:30 19:00
清心堂	大昌街30号	021	3770874	200011	日7:30 9:30 19:00
诸圣堂	复兴中路425号	021	3260906	200025	日7:00 9:30
国际礼拜堂	衡山路53号	021	4376576	200031	日7:30 10:00
景灵堂	昆山路135号	021	3243021	200080	日7:00 9:30 19:00

单位	地址	地区号	电话	邮编	礼拜时间或传真号
沪东堂	宁国路486弄51号	021	5433326	200090	日7:00 9:30 19:00
怀恩堂	陕西北路375号	021	2539394	200040	日9:00 19:00 六9:00
沐恩堂	西藏中路316号	021	3225069	200011	六9:00 7:30 日9:30 14:00
普安堂	中山北路1907号	021	2146562	200061	日7:30 9:30
四川省					
四川省基督教两会	成都市四圣祠北街19号	028	6667930	610017	
四川神学院	成都市四圣祠北街19号	028	6667930	610017	
四圣堂	成都市四圣祠北街19号	028	6667930	610017	日10:00
上翔堂	成都市中西顺城街98号	028	6627560	610015	日10:00
自贡市基督教教会	自贡市自流井区高坪地84号	0813	226646	643000	日9:30
涪城区基督教教会	绵阳市解放街46号	0816		621000	日9:00
解放西路礼拜堂	重庆市解放西路47号	0811		630012	日9:00
南泉礼拜堂	重庆市南温泉公园路22-26号	0811	2850653	630056	日
基督教社交会堂	重庆市市中区磁器街96号	0811	3825024	630010	日9:00
天津市					
天津市基督教两会	和平区广西路10号	022	3304601	300050	
滨江道堂	和平区滨江道201号	022	7302441	300022	日9:30
冈纬路堂	河北区冈纬路27号	022	6369169	300140	日9:30
仓门口堂	南开区东门内大街186号	022	2354669	300090	日9:30
塘沽堂	塘沽区广州道1号	022		300450	日9:30
云南省					
云南省基督教两会	昆明市武成路218号	0871	5157485	650031	
云南省基督教神学院	昆明市昆沙路59号	0871	8182558	650101	
圣约翰堂	昆明市东风西路96号	0871		650022	日9:00 14:00
大理基督教教会	大理城复兴路576号	0872		671003	日10:00
三一圣堂	昆明市武成路218号	0871	5157485	650031	日9:00 14:00 20:00
锡安圣堂	昆明市金碧路61号	0871	3163205	650020	日9:00 14:00
浙江省					
浙江省基督教两会	杭州市解放路104号	0571	7029040	310009	传真: 7061550
浙江神学院	杭州市解放路104号	0571	7011303	310009	
鼓楼堂	杭州市布市巷6号	0571	7026413	310002	日8:30 19:00
思澄堂	杭州市解放路104号	0571	7024262	310009	日6:30 8:30 19:00
湖州市基督教教会	湖州市衣裳街56号	0572		313000	日9:00 19:00
嘉兴市基督教教会	嘉兴市姚庄路10号	0573	2086236	314000	日8:30 13:30
衢州市福音堂	衢州市蛟池街4号	0570	321202	324000	日8:30 13:30
百年堂	宁波市大梁街63号	0574	7364860	315000	日8:00 13:30 19:00
圣教堂	宁波市东郊路115号	0574		315040	日8:00 13:30
江北堂	宁波市中马路196号	0574	7351032	315020	日8:00 19:00
绍兴市基督教教会	绍兴市东街553号	0575	5135269	312000	日9:00 13:00 14:30
城西堂	温州市城西街73号	0577	8222872	325000	日8:30 14:00 19:00

填字遊戲(퍼즐)정답

晚	安		聚	寶	盆		天
禮		工	會		景	泰	藍
服	務	業		房		國	色
		福	如	東	海		
女	高	音			報	童	
	根		斑	馬		年	夜
拖	鞋			拉	倒		來
把		落	葉	松		燒	香

현지의 필요에 부응하는 중국선교

오늘날 중국선교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열정 못지 않게 전세계적인 협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더구나 중국선교에는 중국인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회는 중국선교 연구에 있어 그 역사와 신뢰성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홍콩의 CCL(福音證主協會)의 사역자를 모시고, 중국 복음화를 위한 현지의 실제적인 필요와 그 대책, 그리고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협력과 참여의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틀에 걸친 본 세미나는 선교 보안상의 이유로 첫째날 비공개로 진행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주 제: 현지의 필요한 부응하는 중국선교
 일 시: 1995년 4월 28일~29일 오후 12시 30분~7시 30분
 28일(비공개 세미나), 29일(공개 세미나)
 강 사: 陳敏瀾(CCL협력 목사)
 祝民忠(CCL發展部長),
 김성태 교수(충신대 대학원 선교학 교수,
 미국 플러신학교 선교학(Ph.D))
 참석대상: 비공개시 (28일): 중국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교단,
 교회의 목회자나 선교단체 책임자
 공개시 (29일): 중국선교 헌신자, 신학생,
 중국선교에 비전을 가진 사람
 장 소: 한성교회(중구 정동 25번지, Tel. 755-7630)
 회 비: 비공개 1만 5천원, 공개 1만원 5천원
 (두 강의를 다 들을 때는 3만원)
 주 관: 중국어문선교회
 주 치: 중국어문선교회, 중국복음선교회
 후 원: 한중선교협력위원회·한국세계선교협의회
 문 의 처: Tel. 594-8038, 533-5497, 535-4255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선교의 여러 사역 중 특히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훈련사역:

중국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지망자들을
위해 **중국선교훈련원**을 통해 중국어와 현지적
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중국어 교재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사역:

정기적으로 **중국선교세미나**를 개최하며, 국내
외 선교정보의 수립 및 자료화, 중국교회 동향
분석, 중국소수민족 및 각 성별 연구, 최근중국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중국선교 전략 연구 등
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문서사역:

중국선교의 필요성과 전략이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격월간 **“중국을 주계로”**를 발
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선교책자 번역, 출
판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교회가 필요로 하
는 신앙 및 신학서적을 중역(中譯)하는 일도 추
진중에 있습니다.

▶ 중국현지 사역:

국내에서 방한 중국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집회 및 **“사랑의 집”**에서 제자화 양육
을 수행하였습니다. 교포들이 한국에 나오는 것
이 어렵게 됨에 따라 중국현지에서 **“사랑의 집”**사
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승선전도사역:

한국에 들어온 중국배에 매주 올라가 중국인 선
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 594-8038, 533-5497

팩스 / 599-2786

섬기는 사람들

고문 방지일 목사·김지일 장로/대표 박성주 장로/총무 이요한 /
행정실 실장 장희락/행정간사 기드온/재정간사 강영옥/기획협력간사 문민/해외협력간사 루디아/
전산협력간사 김형동/교육부 운영위원 김성곤/간사 김바울/협력간사 안거안/연구부 운영위원 석은혜/
간사 권수영/협력간사 배다니엘/출판부 운영위원 석은혜/간사 차이니/협력간사 한영혜·전하리/
홍보협력간사 김정하/편집디자인 정光淑/훈련원 운영위원 장희락/간사 김바울/
선교부 운영위원 정선영/간사 임화평/인천지부 협력간사 김성수/사랑의집 운영위원 박애린/
파송연구원 주안도/파견간사 김광석·주미애·최동신 선교사 박애린(국내)·예보람(해외)·정선영(본부)
강성광(홍콩)·이성은(해외)·윤승일(해외)/협력선교사 주성지·고대위·이샤론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5년 3, 4월호 (통권32호)

발행처 / 시립(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표 / 박성주

발행·편집인 / 이동화

편집장 / 석은혜

편집기자 / 한영혜

차이나

권수영

편집디자인 / 정광숙

광고·홍보 / 김정하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 바 - 2078

발행일자 / 1995년 2월 10일

인쇄인 / 김수민(신성기획사)

값 3,5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 594-8038, 533-5497

팩스 / 599-2786

훈련원: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 594-8038, 535-4255

팩스 / 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전화 / 032-872-0742

사랑의 집: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306-67

전화 / 873-2570

편집후기

무감동의 세대여서일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작게는 내 주변에서, 넓게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어제에 이어 또 오늘이라는 시간속에 등장한 그렇고 그런 일 쭉으로 돌려버리고 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주님은 종종 그분의 말씀 속에서 “보라!”, “듣으라!”, “기억하라!”, “깨달으라!”고 계속 우리를 깨우실 필요가 있으신가 보다.

<중국을 주께로>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의미있는 소리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호에는

중국의 교육을 특집으로 다뤄보았다.

이것이 단지 읽을거리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주님의 메시지로써 독자들의 기도 속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송금라인지번호

7602362

총판/ 예영커뮤니케이션

서울시 중구 정동 1-23 구세군중앙회관내 / TEL. 722-9577, FAX. 722-9578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137-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137-069

정기구독 신청요령

아래의 정기구독 신청엽서에 기재사항을 모두 적으신 후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직접 전화(594-8038, 533-5497, 담당자:기드온)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료를 시중은행 99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02362

중국을 주제로 독자카드(1995년 3,4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께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께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서(전화신청 및 문의:정광숙 Tel.533-5497, 592-0132)

1. 해당되는 곳에 Y 표를 하십시오.

☐ 신규구독 ☐ 재구독 ☐ 주소변경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 1년 21,000(6권) ☐ 2년 42,000(12권) ☐ 3년 63,000(18권)

2. 신청인 이름 (남, 여)

생년월일

배달주소(우 -)

전화: (집) (직장) 팩스:

교회명 직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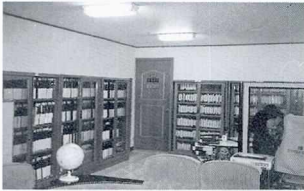
기타 요망사항

3. 주소변경; 성명 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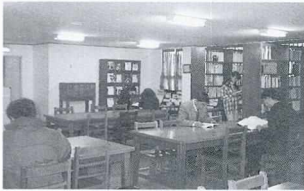
변경주소(우 -)

* 주소는 통반까지 정확히, 그리고 우편번호도 꼭 기입해 주십시오.

성광선교센터



• 선교정보 자료실
선교지역 및 종족, 선교단체,
선교활동 및 전략 등에
관한 문서자료와 비디오
자료 구비



• 도서관
선교 및 신앙 관련 도서



• 외국어훈련원
(F.L.T.C)
현대식 LAB 시설완비



• 세미나실
30~200석까지 다양



• 유치원
선교사 자녀 100%
장학금 (단, 국교부터
교교생은 50%)

레스토랑

저렴한 가격의
정성이 담긴 음식



한식당

300석의 한식 온돌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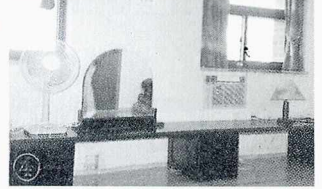
게스트 하우스(특실)

TV, 냉장고, 욕실, 주방



게스트 하우스

냉난방 완비된
온돌 및 침대방



의료봉사

선교사 가족 무료진료
(내, 외, 치과)
의료봉사진 : 필립
선교회, 길선교회)



♣ 교통편

주안역에서 5번 41번
마을버스 1번
인하대 후문 한 정거장
전에서 하차 (20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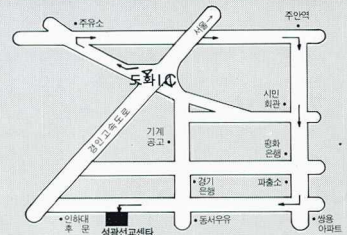
성광선교센터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4동 89번지

양치호 목사

TEL : (032) 872-2336~8

FAX : (032) 862-0642



세계속의 카타딘 정수기

그 명성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스위스까지 가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을 형 존



1. 품질보증

- 세균 적리 아메바, 살모넬라, 콜레라, 이질, 위장염균, 비브리오, 바이러스 완전 100% 제거되며 방사능까지도 제거됨
- 염소, 비소, 카드뮴, 납, 수은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중금속은 완벽히 제거하며
- 인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등의 미네랄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다.
- 미 하버드대학, 미 육군연구소, 미 환경보호청, 미시간대학, 스위스 바젤대학, 스위스 중앙연구소, 미 예일대학,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서울의대, 서울시 종합기술연구소등 세계 유명 시험기관에서 입증.

3. 경제성

- 필터의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반 영구적 (타입제 1년 정도)
- 필터의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 (타입제 1만 리터)
- 5인 가족 년간 유지비 4만원선 (타입제 40만원 이상)
- 생수 이용시 보다 경제적이며 사용시 세균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음.

2. 세계적인 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고있는 세계 고객은 ;Coca-Cola, Pepsi-Cola, Heineken, McDonald's, Red-Cross, Lotte Hotel, Swissair, Esso, Shell, Dole, Mobil, Philips Petroleum, Unionoil, Statoil, Amoco Norway, Jebsen Drilling, Texaco, USSR Shipping lines, India shipping, Mitsui, Nedlloyd, Hapag-Lloyd, Ben L. British Petroleum, 외 1,500여개의 정수 3,000여개의 세계 유명 음료업체
- 국내는 한라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제주생수, 현대상선(주), 한국해운(주) 등

4. 사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의 제품 종류는 ;
 - 가정용 • 등산용 • 생수회사용 • 음료회사
 - 대형호텔용 • 수도국 정수장용 • 제약회사
 - 시설용 • 종합병원용 • 가두리 양식장용
 - 선박용 • 주류회사용 • 비행기시설용
 - Tablets • Spray • Powder 등 다양한 정수 시스템을 결정체라고 볼 수 있음.
- 대회사 제품의 추종을 불허하며
- 열성과 패기가 있는 대리점 사업주는 카타딘 정수 시스템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

“요주의” 허위 선전 업체

모 정수기 업체에서는 전기분해기나 TDS를 가지고 다니며 허위선전으로 판하고 있음으로 소비자로부터 경고처분 받았음에도 실 수요자에게 눈속임으로 사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속지 마시고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21번)

속임수에 의하여 정수기를 선택하신다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리점 개설문의:
(02)582-4505

나라가 다르고, 회사가 달라도

모두가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스위스카콜라



독일펄사콜라



맥도날드사



국제적십자사



롯데호텔



스위스항공



하이네켄



(주) 카타딘코리아
KATADYN KOREA CO., LTD.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66-1
이래빌딩 (카타딘사) 401호
Tel. (02)582-4505(CR)